

제1차 년도
최종보고서

영동 포도주산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Specialized Grape
Production Areas in Yongdong-gun

연구기관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농림부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동포도 주산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8 . 10 . 26 .

주관연구기관명 : 충 북 대 학 교
총괄연구책임자 : 권 원 달
연 구 원 : 최 동 주
연 구 원 : 권 대 흠
연 구 원 : 김 현 정
연 구 원 : 전 승 규
연 구 원 : 박 준 수

요 약 문

I. 제목

영동 포도 주산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개선과 상품성향상으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저장·이용과 포도관련제품 개발로 포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개별 생산·유통방식에서 주산지 중심의 협동생산, 공동판매, 이용가공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단순 생산조직을 기능적생산조직으로 혁신·확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원리와 방법은 전국의 과수 및 채소 주산단지에 적용이 가능하며,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의 효과로 우리나라 과수 및 채소부문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포도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영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다음,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생산여건과 지역특화 현황, 포도생산·경영실태, 포도의 유통실태, 생산자 조직의 운영실태,

포도의 이용가공실태 등을 기존자료와 농가청취조사를 통하여 개황을 파악한 후 영동포도의 재배기술상의 과제와 경영·유통상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실태조사를 통하여 영동포도와 타주산지 포도의 시장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주산단지 조성방향,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방안, 상품성 향상과 판로 개척방안, 가공 및 수출증대방안, 개발기술의 농가보급 방안,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원시책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개발 결과

- 영동지역은 준산간지대로 대부분 100~300m의 표고에 80% 이상 분포되어 있어 연평균 기온이 11.5℃이며, 일교차가 연평균 10~15℃로 포도의 성숙기에 당도 및 색택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포도재배의 적지이다.

- 영동군의 포도재배품종은 캠벨얼리가 62%, 세리단 32%, 그리고 신품종(4배체 품종)이 2%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품종(4배체)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보급해야 한다.

- 영동포도의 품질과 기술개선방향은 품종갱신(4배체 품종), 당도의 향상(캠벨얼리- 15Bx 이상, 세리단 및 신품종 - 18Bx 이상), 품종고유의 색택 유지, 규격화된 포도송이 생산, 저농약 고품질 포도생산, 화진예방, 철저한 병충해 방제 등이며, 이를 위해서는 호맥재배와 비가림시설재배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10a당 노동투하량은 조사농가 평균이 253.8시간이었으며, 10a당 평균 조수입은 1,992천원이고 소득은 1,582천원(소득률 79.4%)으로 나타났다.

○ 1997년 영동포도 재배면적(2,197ha)의 약 9.9%는 입목선매로 산지수집상에게 팔리고 있으며, 생산자 수확량은 27,145톤으로 추정됨. 그중 11.6%는 개별농가 단위로 포도즙을 가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88.4%는 시장판매하고 있다. 시장판매량중 위탁도매상에 61.5%, 공영도매시장에 21.1%, 그리고 산지공판장에 2.1%가 출하되고 있다.

○ 향후 영동포도의 시장대응 방향은 현재의 유사도매시장 위주에서 포도의 품질과 상품성 향상으로 점차 공영도매시장과 농산물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할인매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영동포도의 상품성제고를 위해 선과, 표준규격화, 포장개선, 상표개발이 필요하며, 판로개척을 위해 출하조직 활성화, 시장선택, 유통정보 활성화, 홍보 및 선전이 필요하다.

○ 영동포도 테마파크의 건설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전국적인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외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장소에서 상시시식회 등을 통하여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해야 한다.

○ 영동지역내 포도작목반은 162개, 영농조합법인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수송)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공동생산에 의한 생산비용절감과 공동판매에 의한 유통비용 절감, 그리고 시장판매에 있어서 거래교섭력의 확대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혁신 및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 단위농협 중심의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하여 출하 단위의 규모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농협 중심의 출하기구를 만들어 각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출하 포도상품의 등급검사, 유통정보분석에 의한 출하처 선정과 물량배분 및 출하량조절, 공동수송, 공동계산 그리고 공동저장 및

가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영동군내 포도 가공업체는 3개업체가 있으나 연간 포도원료 구입량은 877톤으로 전체생산량의 2.9%를 가공업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판매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OEM방식, 직거래, 혹은 유기농산물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하므로 가공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 생산농가 자체로 가공하여 친지나 친척을 통해 판매하는 포도즙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영동군 자체의 포도즙 가공품의 포장의 규격 표준화와 표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갖추어 생산자 제조 포도즙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조직체는 현재의 부락공동집단인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면단위 작목반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기능집단으로 발전시켜, 생산기술의 상향 평준화와 철저한 생산자재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위한 주산지의 기능적생산조직을 확대·혁신해야할 것이다.

- 선별·포장체계는 생산자 중심으로 작목반이나 단위농협이 공동검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나아가 공동계산제의 도입으로 유통면에 있어서 내부경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향후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조직체는 부분공동의 개별생산, 즉 개별선별포장, 공동검사, 공동수송, 공동거래의 경제유형에서 더욱 발전시켜 군단위의 기능조직체, 즉 광역지역 공동집단으로 발전시켜 영동군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일원화시키고 영동군 광역공동집단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

2. 건의

○ 영동군 농가의 1/2이 포도재배농가이므로 앞으로 영동군 농촌지도소의 인력 배치를 포도를 위시한 과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력보강과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로 영동 포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영동포도 재배기술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와의 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최고의 포도산지인 야마나시현에 영동 포도생산자중 독농가를 매년 2명 정도 선발하여 1년기간으로 연수를 시켜 인재를 양성시켜야 한다.

○ 농협에 유통정보 분석기구를 설치하여 출하시장과 출하지역을 다양화하고 출하물량도 조절해야 한다. 농산물물류센터나 대형 할인소매기구의 판매전략으로 개방식 소포장(2kg, 5kg)도 개발하여야 한다.

○ 영동포도의 홍보선전기구를 군청내에 설치하여 일관적이고 조직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며, 영동지역에 포도 테마파크 등을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전국적인 포도축제의 개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영동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하여야 한다.

○ 생산조직의 확대와 혁신을 위해 현재 부락공동집단인 작목반을 단위농협 나아가 영동군 단위의 기능 조직체로의 전환과 포도가공품 개발, 그리고 포도산업과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 군(郡), 농협, 지도소, 학계가 연계하여 영동 포도장기 개발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Specialized Grape Production Areas in Yongdong-gun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technology for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grape production, improving quality, decreasing cost and increasing productivity, promoting commodity attributes of Yongdong Grape and increasing bargaining power of market, to examine alternatives for cooperative production, marketing and processing of grape, and to analysis alternatives of extending scope and function of cooperative grape farm organization of Yongdong-gu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and interviewed grape farmer to examine situation and status of grape industry, production conditions, regional specialization of agriculture, characteristics of grape farm management, marketing situation of grape, farmers organizations and processing companies of grape in Yongdong-gun and to investigate technical problems of grape cultivation and characteristics of grape management and marketing. And this study analysed attribute of marketing of Yongdong grape by conducting survey of grape wholesale market and comparing with other region's situations and examine alternatives of constructing specialized district for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grape production, alternatives of improving quality, alternatives of promoting attributes of commodity and expending markets, alternatives of increasing processing and export, alternatives of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new technology of grape.

IV. Results and Suggestions

1. Results

○ Yongdong region is semi-mountainous area. The sea levels of Yongdong-gun is around 100~300m,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is 11.5°C and the annual average difference of temperature between day and night is 10~15°C. Thus the weather conditions of Yongdong region was suitable for grape production especially in sweetening and coloring of grape during ripening season.

○ Cultivated grape varieties of Yongdong-gun were composed of 62% of Camber, 32% of Sheridan and 2% of new varieties. It is urgently need to develop and adoption of new varieties.

○ Quantities of labour input per 10a of farm was average 253.8 manhour. Average gross revenue per 10a was ₩1,992,000 and average income was ₩1,582,000(income proportion is 79.4%)

○ To promote commodity attributes of Yongdong Grape it is needed to introduce grading, standardization, improving packing and using a trade-mark. To open and extend new market it is necessary activating shipping organization, selecting practicalize market supplying marketing information, advertising and publicizing.

○ There are 162, Joint marketing group of grape farm and 12, cooperative farming corporation as a cooperative farm organization of grape in Yongdong-Gun.

Main functions of these organizations are encouraging cooperative purchase and marketing, but these organizations are not activated as expected.

○ Cooperative grape farm organizations need to be renovated and expended to reduce production cost by cooperative production, to decrease marketing cost by cooperative shipping(marketing) and to increase farmer's receiving price by increasing bargaining

power of market.

○ There were three grape processing companies in Yongdong-Gun. They were mostly small sized and purchased and used only 877 M/T (2.9% of total production) of grapes as a raw materials. These grape processing companies produced very low added value because they sold there product as OEM, or at consumer market.

○ Present grading and packing system which is managed by individual producer base is need to introduce cooperative inspection system which unit of grape shipping organization or regional cooperatives take part in inspection. Also introducing cooperative recording and accounting system would maximize internal economic effects of marketing.

○ Future scope and function of cooperative grape farm organization of Yongdong-gun would develop from partial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produce and pack grape by individual base but inspect, ship and trade by cooperative system to whole cooperative organization of which scope and function is expended to common brand of grape and Yongdong-gun level organization.

2. Suggestions

○ To develop technical level of Yongdong Grape, it is necessary to reallocate specialized manpower in fruits to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 and reinforce and secure specialized manpower in grape industry.

○ To promote production technology of Yongdong grape to international level it is needed to select two farmers who are advanced in technology of grape production send Yamanashi prefecture where Chungbuk has establishment of sisterhood every

year and get a training for year.

○ Establishing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post in Yongdong-gun building, constructing grape theme park and opening grape festival which is needed to attract tourist are needed to encourage and promote advertisement and publicity of Yongdong Grape.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 Chapter 2 The Situation and constraints of Grape Industry in Yongdong-gun
- Chapter 3 Grape Production, Management and Marketing Situation of Specialized Grape Production Area in Yongdong-gun
- Chapter 4 Techn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pecialized Grape Production Area in Yongdong-gun
- Chapter 5 Alternatives on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Grape Industry in Yongdong-gun
- Chapter 6 Summary and Suggestion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1. 연구목적	5
2. 연구내용	5
제 2 장 우리나라 포도산업의 현황과 영동군의 포도산업여건	7
제 1 절 우리나라 포도산업 현황	7
1. 생산현황	7
2. 재배농가 변동	11
3. 유통	13
4. 이용 및 가공	17
5. 수입 실태	18
제 2 절 영동포도 주산단지 여건	19
1. 입지여건	19
2. 농업여건과 포도	20
제 3 장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생산·경영·유통실태	22
제 1 절 생산여건과 지역특화 현상	22
1. 생산여건(입지, 환경, 특성)	22
2. 지역 특화 현상	23
3. 경영과 유통실태	24
제 2 절 포도생산 실태	29

1. 생산방법과 기술형태	29
제 3 절 포도재배 농가경영실태	39
1. 농가개황	39
2. 생산현황	44
3.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계획	45
4. 비료사용 현황 및 농약 살포 횟수	47
5.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49
6. 작업단계별 노동투입량	50
7. 품종별 출하현황	52
8. 저장 및 가공 현황	54
9. 출하처별 출하현황	58
10. 산지유통에서의 농협의 역할	59
11. 현재 진행중인 공동판매사업 부문	60
제 4 절 영동포도주산단지 생산자 조직실태	61
1. 생산자 조직 실태	61
2. 생산자조직별 포전거래 면적 및 가격	61
3. 생산조직의 보유시설명 및 설치비 내역	62
4. 생산조직별 기금 및 운영비 현황	63
5. 생산조직별 공동구매 비율	63
6. 생산조직별 공동구매 품목비중	64
7. 생산자조직별 공동판매방법	65
8. 생산자조직별, 출하처별 물량·금액 및 점유율	66
9. 생산자조직별 앞으로 필요한 정보와 출하개선 방안	68
10. 생산자 조직별 가공 현황	69
11. 영동군 단위 농협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현황	70
제 5 절 포도의 유통실태	72
1. 영동포도의 유통경로	72

2. 도매시장별 판매비용 및 농가수취가격 비교	73
3. 가락동도매시장의 포도 반입량 및 가격동향(1997년)	74
4. 가락동 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에서 영동포도의 평가	77
5. 영등포 위탁도매상의 영동포도 평가	79
제 6 절 주산단지 내 가공공장 실태	80
1. 가공업체별 생산현황	80
2. 가공업체별 시설 현황	81
3. 가공업체별 사업비 내역	81
4. 가공업체별 자산현황	82
5. 가공업체별 매출액 및 원료구입비	82
6. 가공업체별 원료 구입처별 비중	83
7. 가공업체별 연평균 가동일수 및 생산자 임금	84
8. 가공업체별 판매방법과 판매시 어려운 점	84
제 7 절 영동포도의 수출잠재력	85
1. 수출현황과 문제점	85
제 4 장 영동포도 주산지 기술 및 경제적 특성과 제문제	89
제 1 절 재배기술상의 특징	89
1. 적합한 재배환경과 높은 집중도	89
2. 포도의 품종과 육종	89
3. 재배기술	90
제 2 절 경영상의 특징	91
1. 농가개황	91
2. 농가경영상 특징	91
제 3 절 협동생산과 공동구매·판매상의 특징	93
1. 협동생산	93

2.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의 현황과 문제점	94
제 4 절 유통상의 특징	95
제 5 절 생산자 조직의 특성	96
제 5 장 영동 포도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	99
제 1 절 주산지 형성과 발전방향	99
1. 주산지의 개념	99
2. 주산지 형성효과	100
3. 주산지 형성의 경제효과	102
4. 포도주산지의 경제효과	103
제 2 절 품질향상과 기술개선 방향	111
1. 당도의 향상	111
2. 착색	111
3. 저농약 고품질 포도생산	112
4. 화진 예방	113
5. 철저한 병충해 방제	113
6. 포도 송이 손질	114
7. 품종갱신	114
8. 농촌지도소의 체제정비	115
9.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제 도입	115
제 3 절 상품성제고와 판로개척방안	116
1. 상품성제고	116
2. 판로개척	120
3. 시장 선택	121
4. 유통정보의 활성화	123
5. 거래교섭력 제고	123
6. 홍보·선전방법	124

7. 도매시장 출하전략	125
제 4 절 포도이용, 가공방안	125
1. 포도관련제품 이용방안	126
2. 기술개발과 가공입지	126
제 5 절 개발기술의 농가 보급방안	127
1. 권장기술수준	127
2. 농가보급방안	128
제 6 절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원시책	129
제 6 장 요약 및 건의	130
제 1 절 요약	130
1. 영동포도의 생산여건과 재배특징	130
2. 영동포도 재배·경영실태	131
3. 영동포도의 유통실태	132
4. 영동포도의 시장출하전략	132
5. 영동포도의 홍보·선전방법	133
6. 영동포도주산지의 생산자조직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33
7. 영동포도 가공사업	134
8. 영동 포도주산지의 개선방향	135
제 2 절 건의	135
1. 건의사항	136
2. 파급효과	137

【 표 차 례 】

<표2- 1> 연도별 과실 재배 동향	8
<표2- 2> 연도별 포도의 재배 및 생산동향	9
<표2- 3> 포도의 지역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9
<표2- 4> 연도별 과실 생산액	10
<표2- 5> 과실별 소득비교	13
<표2- 6> 포도 유통마진 명세표	16
<표2- 7> 포도가공제품 생산량	17
<표2- 8> 포도관련 품목의 수입동향	18
<표2- 9> 포도재배면적 및 농가수의 변화 추이	20
<표2-10> 영동군 과실 생산량 변화	21
<표3- 1> 영동군 포도재배 현황	23
<표3- 2> 전국 포도 주산지 실태	23
<표3- 3> 영동군의 주요품목 생산액	24
<표3- 4> 10a당 경제성 분석	24
<표3- 5> 시기별 출하비율	25
<표3- 6> 주산지 집중율	25
<표3- 7> 경영주 인적 사항 및 일반 현황	25
<표3- 8> 포도재배농가의 영농규모	26
<표3- 9> 농기계 보유 현황	26
<표3-10> 출하방법	26
<표3-11> 영동포도의 판매처별 판매비중	27
<표3-12> 시장별 경매가격	27
<표3-13>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구성비	28
<표3-14> 수령별 추천시비량	34
<표3-15> 농가의 지역별 개황	40
<표3-16> 경작규모별 농가개황	41
<표3-17> 연령별 농가개황	42
<표3-18> 경영주 경력별 농가현황	43
<표3-19> 지역별 학력 및 경력과 생산현황	44

<표3-20> 지역별 개별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의향	46
<표3-21> 경작규모별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의향	46
<표3-22> 지역별 비료·농약 사용 현황	47
<표3-23> 경작규모별 비료·농약 사용현황	48
<표3-24> 경력별비료 및 농약사용현황	49
<표3-25> 조사농가의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50
<표3-26> 지역별 작업단계별 노동투입량	51
<표3-27> 경작규모별 작업단계별 노동투입량	52
<표3-28> 지역별 품종별 출하등급 비중	52
<표3-29> 경작규모별 품종별 출하등급 비중	53
<표3-30> 조사농가의 지역별 저장 및 가공현황	54
<표3-31>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저장 및 가공현황	55
<표3-32> 조사농가의 연령별 저장 및 가공현황	56
<표3-33> 조사농가의 경력별 저장 및 가공현황	57
<표3-34> 조사농가의 지역별 출하처별 출하비중	58
<표3-35>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출하처별 비중	59
<표3-36> 포도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	59
<표3-37> 공동판매사업 시행비중	60
<표3-38> 생산조직별 일반 개황	61
<표3-39> 생산조직별 포전거래 현황	61
<표3-40> 생산조직별 보유시설 및 설치비 내역	62
<표3-41> 생산조직별 기금조성 및 운영비 규모	63
<표3-42> 생산조직별 공동구매금액 및 비중	64
<표3-43> 생산조직별 공동구매 품목 및 비중	65
<표3-44> 생산조직별 공동판매 개황	65
<표3-45> 생산자조직별 출하처 및 비중	67
<표3-46> 생산자조직별 필요 정보와 출하개선 의향	68
<표3-47> 생산자 조직별 가공현황 비교	69
<표3-48> 단위농협별 공동구매 현황	70

<표3-49> 단위농협별 출하처별 공동판매 현황	71
<표3-50> 도매시장별 출하자 수취가격 및 판매비용	73
<표3-51> 가락동도매시장의 월별 반입량 구성비	75
<표3-52> 가락동도매시장의 월별 출하순위	75
<표3-53> 가락동도매시장의 순별 가격동향	76
<표3-54> 가락동도매시장의 연도별 가격동향	76
<표3-55> 조사지역의 가공업체 생산현황	80
<표3-56> 가공업체별 시설현황	81
<표3-57> 가공업체별 사업비 내역	81
<표3-58> 가공업체별 자산현황	82
<표3-59> 가공업체별 매출액 및 원료구입액	83
<표3-60> 가공업체별 원료구입 현황	83
<표3-61> 연평균 가동일수 및 생산자 임금현황	84
<표3-62> 가공업체별 판매 현황	84
<표3-63> 한국포도 수출현황	85
<표3-64> 일본의 포도산업현황	87
<표5- 1> 포도주산지의 경제적 효과	104
<표5- 2> 일반산지와 주산지의 경제구조 유형	110

【 그림 차 례 】

<그림2-1> 포도의 일반적인 유통경로	13
<그림3-1> 영동포도의 유통경로도	7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포도는 과일 중 중요한 품목으로 재배역사가 길고 수익성이 높으며 소비량이 많다. 포도의 세계 생산량은 '97년말 현재 5,897만M/T로 과일 중 가장 많으며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량도 생식용 이외에 가공 조리용이 증대되면서 꾸준히 신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포도재배는 역사가 길고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량도 증가되어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포도재배 면적은 '97년말 현재 28,290ha이며 생산량도 393,195M/T으로 주요 품목이며 주산단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개방으로 단경기에 칠레를 비롯한 남미산 포도의 수입과 포도주 등 가공품 수입으로 국내산 포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포도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당 수량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무핵대립 고당도 포도생산이 되어야 하며 생력화에 의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그리고 선과, 표준 규격화, 포장 등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품종별, 저장방법별 시험과 유통개선, 그리고 이용가공기술개발과 수출증진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의 영동군 포도주산단지 는 '60년대에 영동읍 주곡리에서 재배가 시작되어 재배면적과 재배농가가 계속 확대되어 '97년말 현재 재배면적 2,178ha로 전국 3위이며 전국 재배면적의 7.7%, 전국생산량의 7.7%, 특화계수 18.5이다. 재배농가도 4,674호로 전체 군농가의 53%에 이른다.

영동군 포도는 품질경쟁과 가격경쟁면에서 떨어지고 있으나 품질개선과 상품성이 높아지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영동군은 포도주산지 조성을 위해 포도명품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배농가의 해외시장 견학 등 자발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하였으며, 품질개선, 상품성 제고, 가공시설 확충,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영동군 포도재배는 '90년대 이후 재배농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논에서도 재배면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일 중 포도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동군 포도주산단지는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지 않고 농가간에 재배방법과 판매방법이 다르며 협동생산과 공동판매방식이 초기단계에 있어 포도 품질개선과 상품성향상을 위해 주산단지 차원에서 적극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시장교섭력이 높고 제값을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서 본 연구는 영동군 포도주산단지에 대한 생산과 유통 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현행 생산방법과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질개선과 상품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재배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농가간에 기술수준 차이가 크고 기술 수용력도 차이가 커서 전체 주산단지의 기술평준화가 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포도기술 대응방안은 무핵대립 고당도 포도생산과 생력화에 의한 비용절감, 소비자기호에 맞는 품종개발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이 농가단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주산단지 농가가 협동적으로 기술수준을 평준화하고 높여서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결해야 생산성도 높고 비용도 절감되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경제·산업적 특징은 많은 재배농가가 생산량도 높여 집중도가 높으나 품질이 낮고 상품성이 높지 않아 시장 교섭력이 높지 못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이용·가공부문이 부진하고 수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영동 포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수확 후의 선과, 표준등급, 포장, 상표개발 등 상품성이 높아서 시장 교섭력을 높여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영동포도가 주산단지를 형성하여 개별농가는 물론 전체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안정적 생산과 소비가 지속될 것이다. 특히 포도의 이용·가공산업부문이 발전되어 관련산업이 발

전되어야 포도소비는 물론 원료용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가공산업을 통한 포도의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도록 비용절감과 생산력 증대가 바람직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서 개별농가단위가 아닌 전체 주산단지가 공동판매와 공동자재구입, 공동이용 가공, 품종별, 저장방법별 시험을 가능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영동 포도재배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고 평준화되지 않아서 집중도는 높으나 소비자가 원하는 포도와 가공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대와 사회·문화적 식문화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관습, 구매행태, 식품소비행태에 맞는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포도소비행태를 조사하여 발전적 유형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고품질 포도생산과 영동포도의 성가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선전, 행사를 통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포장방법개발과 포장용기개발, 상표개발에 의한 신용도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포도가공제품도 소득증대와 식문화 발전에 맞는 대중성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야 포도관련산업이 사회·문화 발전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목적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개선과 상품성을 높여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이용가공개발과 포도관련제품 개발로 포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증대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재배, 유통방식에서 주산지 중심으로 협동생산, 공동판매, 이용가공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영동포도 주산단지의 생산, 경영, 유통, 이용·가공실태를 조사하고 생산자조직과 출하방법, 품질개선과 상품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의 협동화와 판매의 공동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와 개발기술의 농가보급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가. 우리나라 포도산업 현황

나. 영동포도 주산단지의 생산, 경영, 유통, 이용·가공실태

- 생산여건과 지역특화 현황
- 포도생산·경영실태
- 포도의 유통실태
- 생산자 조직의 운영실태
- 포도의 이용가공실태

다. 영동포도 주산단지의 기술 및 경제적 특성과 제문제

- 재배기술상의 과제
- 경영, 유통상의 특징

라. 포도의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실태 조사

마. 영동포도 주산단지 경쟁력 제고방안

- 주산단지 조성방향
-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방안
- 상품성제고와 판로개척 방안
- 이용가공, 수출증대방안
- 생산자조직 활성화 방안
- 개발기술의 농가보급방안
-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원시책개발

제 2 장 우리나라 포도산업의 현황과 영동군의 포도산업여건

제 1 절 우리나라 포도산업 현황

1. 생산현황

○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과실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 1985년 국민 1인당 과일소비량 36.0kg에서 1996년에는 52.3kg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실은 성장가능성이 큰 작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 연도별 과실류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포도의 재배 면적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과실 중에서 포도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과실재배 면적은 1985년의 108.7천ha에서 1997년의 176.1천ha로 약 1.6배 증가에 비해, 포도재배 면적은 같은 기간 16.2천ha에서 28.3천ha로 약 1.7배 증가하였음.

○ 포도 생산량은 포도주 수입 개방에 따른 양조용 포도원의 폐원으로 198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93년부터 신품종의 도입과 시설재배

로 인한 출하조정으로 수익성의 호조에 힘입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성장 과실 작목임. 1997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과일재배면적은 176.1천ha이고, 이중 사과(40.0천ha), 감(22.6ha), 포도(28.3ha), 감귤(25.7천ha) 순으로 나타남.

<표2-1> 연도별 과실 재배 동향

(단위: 천ha)

	'85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사과	37.7	48.8	50.6	53.6	52.3	52.1	50.1	43.9	40.0
배	9.0	9.1	9.5	10.3	11.0	12.6	15.8	18.2	22.0
복숭아	13.1	12.3	11.5	10.6	10.5	10.2	10.2	10.0	10.9
포도	16.2	15.0	14.8	15.0	17.0	19.8	25.6	27.2	28.3
감	9.8	13.6	15.1	17.6	19.7	22.4	25.0	27.2	22.6
감귤	15.7	19.3	20.2	22.4	22.2	22.2	23.6	25.4	25.7
기타	8.7	18.9	20.9	22.3	26.8	26.8	22.0	20.8	25.0
계	108.7	133.3	138.8	147.7	155.1	161.5	172.4	171.4	176.1

자료: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97

○ 포도생산량은 1985년 149,912톤(925kg/10a)에서 1997년 393,195톤(1,390kg/10a)으로 2.6배 증가하였는데 이의 원인은 동 기간중 재배면적의 증가(1.8배)와 포도의 생산성(10a당 생산량)의 증가(1.6배)에 기인하고 있음.

○ 포도의 지역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우선 1997년 재배면적 중 경북의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충북(15.2%), 충남(11.0%), 경기(9.7%) 순이었으며, 생산량 역시 1997년 경북이 184,846톤(47.0%)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55,242톤(14.0%)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도의 주산지인 김천, 영천, 경산, 영동, 천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2> 연도별 포도의 재배 및 생산동향('90~'97년)

(단위: ha, kg, M/T)

연도	재배면적	영동군	(%)	10a당수량	영동군	(%)	생산량	영동군	(%)
1990	14,962	587	3.9	878	772	87.9	131,324	4,535	3.5
1991	14,802	641	4.3	1,000	926	92.6	147,973	5,932	4.0
1992	14,957	806	5.4	978	903	92.3	146,346	7,285	5.0
1993	16,991	948	5.6	964	900	93.4	163,780	8,543	5.2
1994	19,773	1,700	8.6	1,072	1,241	115.8	211,930	21,108	10.0
1995	26,030	1,955	7.5	1,216	1,020	83.8	316,443	19,897	6.3
1996	27,196	2,126	7.8	1,314	1,603	122.0	357,274	34,085	9.5
1997	20,298	2,179	7.7	1,390	1,371	98.6	393,195	30,128	7.7

자료 : 영동군, 「영동군통계연보」 및 행정자료 각년,

- 포도의 생산액은 '90년에 1,057억으로 농업생산액(177,281억원)의 0.6%, 과실생산액(13,087억원)의 8.1%였으나 1996년에는 3,744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1.3%, 과실 생산액의 14.8%로 각각 0.7%포인트와 6.7%포인트 증가하였음.

<표2-3> 포도의 지역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ha, kg, M/T)

지역	1990년						1997년					
	면적	비중	10a당수량	비중	생산량	비중	면적	비중	10a당수량	비중	생산량	비중
전국	14,962	100	878	100	131,324	100	28,290	100	1,390	100	393,195	100
서울	8	0.1	1,370	156.0	110	0.1	0
부산	5	0.0	1,260	143.5	63	0.0	0
대구	617	4.1	1,184	134.9	7,305	2.8	983	3.5	1,555	111.8	15,286	3.9
인천	77	0.5	710	80.9	547	0.4	167	0.6	1,303	93.7	2,176	0.6
광주	205	1.4	1,023	116.5	2,097	1.6	218	0.8	1,500	107.9	3,270	0.8
대전	373	2.5	1,004	114.4	3,745	2.9	663	2.3	1,275	91.7	8,453	2.1
경기	2,315	15.5	682	77.7	15,788	12.0	2,739	9.7	1,631	117.3	44,673	11.4
강원	141	0.9	905	103.1	1,276	1.0	96	0.3	1,178	84.7	1,131	0.3
충북	2,008	13.4	794	90.4	15,944	12.1	4,289	15.2	1,288	92.7	55,242	14.0
충남	1,519	10.2	996	113.4	15,129	11.5	3,125	11.0	1,271	91.4	39,875	10.1
전북	359	2.4	1,050	119.6	3,770	2.9	1,350	4.8	1,269	91.3	17,246	4.4
전남	622	4.2	1,061	120.8	6,599	5.0	553	2.0	1,148	82.6	6,348	1.6
경북	5,702	38.1	778	88.6	44,362	33.8	12,999	45.9	1,422	102.3	184,846	47.0
경남	1,011	6.8	1,443	164.4	14,589	11.1	1,098	3.9	1,333	95.9	14,636	3.7
제주	0	1	0.0	1,333	95.9	13	0.0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1997

<표2-4> 연도별 과실 생산액

(단위: 억원, %)

	'90	'91	'92	'93	'94	'95	'96
농업생산액(A)	177,281	191,573	204,050	207,366	233,976	258,553	281,288
과실 생산액(B)	13,087	15,931	16,864	17,080	24,783	30,254	25,245
B/A(%)	7.4	8.3	8.3	8.2	10.6	11.7	9.0
사과	4,397	4,849	5,640	5,750	7,459	8,962	6,280
배	1,172	1,669	1,700	1,764	2,376	2,865	3,736
복숭아	1,296	1,479	1,454	1,511	1,880	1,914	1,835
포도(C)	1,057	1,394	1,603	1,803	4,716	6,085	3,744
C/A(%)	0.6	0.7	0.8	0.9	2.0	2.4	1.3
C/B(%)	8.1	8.6	9.5	10.6	19.0	20.1	14.8
감	1,119	1,636	1,765	1,601	2,394	2,599	3,263
감귤	2,865	3,951	3,967	3,962	5,079	7,093	5,448
기타	1,180	953	735	689	879	736	939

자료 : 농림부, 「'97 원예특작업무자료」

○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캠벨얼리로서 전체 포도재배 면적의 69.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거봉(10.5%), 씨벨 9,110(8.1%)의 순서로 이들 품종이 전체의 88.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외의 품종으로는 네오버스켓, 델라웨어, 세레단, 실러, 타노레드, 블랙올림피아, 머스켓베일리에이(MBA) 등이 소량 재배되고 있어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재래 품종에 치우쳐 재배되고 있음.

○ 포도의 전체 재배 면적에서 시설재배(비가림재배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이며, 가온 재배는 전체면적의 0.9%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매년 25% 내외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

2. 재배농가 변동

- '95년 포도 재배 농가수는 48,304호로 '90년의 35,488호보다 12,816호가 늘어 3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포도재배 농가의 비율은 '90년의 2.0%에서 '95년에는 3.2%로서 1.2%포인트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농가에 대한 포도재배 농가의 구성비는 60% 이상 증가하여 재배기반이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포도가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 '90년도 포도재배농가 중 '95년까지 계속 재배한 농가는 20,587호로 전체 포도재배 농가의 58.0%이고, 나머지 14,901호(42.0%)는 이농, 혹은 타작목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므로 '95년의 포도재배농가(48,304호)중 57.4%는 '90년 이후의 신규재배 농가로 나타났으며, 이 신규재배 농가의 81.0%는 타작목에서 포도재배로 전환된 농가임.
- 포도재배 면적 규모별 농가 구성비를 살펴보면 1.0ha미만의 농가가 88.1%이고 1.0~2.0ha농가가 10.6%, 2.0~3.0ha 농가가 1.0%, 3.0ha이상의 농가가 0.3%로서 매우 영세하며, '95년의 호당 평균경지 면적은 0.54ha(약 1617평)정도에 지나지 않음.
- '90년 포도전업농가는 104호였으나, '95년에는 10,189호로 무려 98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95년의 전체규모 확대농가의 72.8%를 차지하였고, 신규농가 중 포도전업농가는 비농가로부터 전입한 농가가 4,221호로 전체의 80.3%이며, 타작목으로부터 포도로 전환한 전업농가는 15,470호로 전체 작목 전환농가의 68.9%를 차지하였음.
- 영농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95년에 7,611호로 전체 포도 재배농가의 15.8%로 나머지 84.2%는 후계자가 없어서 다음 세대의 포도재배가 불투명한 상태로 나타남.

- 연령별 경영주 분포 비율('95년)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0.8%, 30~40세 미만이 9.4%, 40~50세 미만이 21.5%, 50~60세 미만이 32.6%, 60~70세 미만이 27.2%, 70세 이상도 8.4% 이르고 있어 50세 이상의 경영주 분포가 68.2%로서 매우 고령화된 것으로 나타남.
- '95년 경영주의 학력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가 58.2%, 중학교 졸업이 21.4%, 고등학교 졸업이 17.4%,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2.9%로서 학력이 비교적 낮은 편임.
- '95년 포도재배 농가구 인원수별 분포는 대부분 가구원이 3인 이상이 67.3%이고, 2인인 경우는 27.7%이며 1인인 경우도 5%를 차지하고 있음.
- '91년 이후 포도 신규 재배농가는 22,463호였으며 이중 경북이 9,773호(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충북 4,187호(18.6%), 충남, 경기의 순이었음.
- 1997년도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살펴보면 포도(2,861천원)는 쌀보다 4.3배 소득이 높으며, 고추보다는 3.1배, 사과보다는 1.7배, 복숭아보다는 1.3배, 그리고 배의 0.94배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율은 78.3%로서 비교 작목 중에는 가장 높게 나타남
- 포도의 kg당 생산비는 '92년의 경우 한국 931원, 일본 2,556원, 미국 373원으로 미국보다 2.5배 비싸고 일본보다는 2.7배 싼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 생산가격보다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됨.
- 생산국별 10a당 노동 투입량은 한국 354.2시간(100), 일본 350.7시간(99.7), 미국 43.7시간(12.3), 프랑스 32.3시간(9.1)으로서 일본과 비슷하지만 미국·프랑스에 비해서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 과실별 소득비교 (1997년)

(단위: kg, 천원, %)

과종 \ 구분	수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A)	소득율	'96소득(B)	(A)/(B)
사과	2,300	2,664	1,021	1,643	61.7	1,746	94.1
배	2,520	4,338	1,290	3,048	72.4	3,104	98.2
복숭아	1,821	2,947	764	2,183	76.6	2,167	100.7
포도	1,992	3,655	794	2,862	80.5	3,108	92.1
감귤	3,595	1,932	560	1,372	80.0	2,273	60.4
단감	1,273	2,077	546	1,531	72.7	1,508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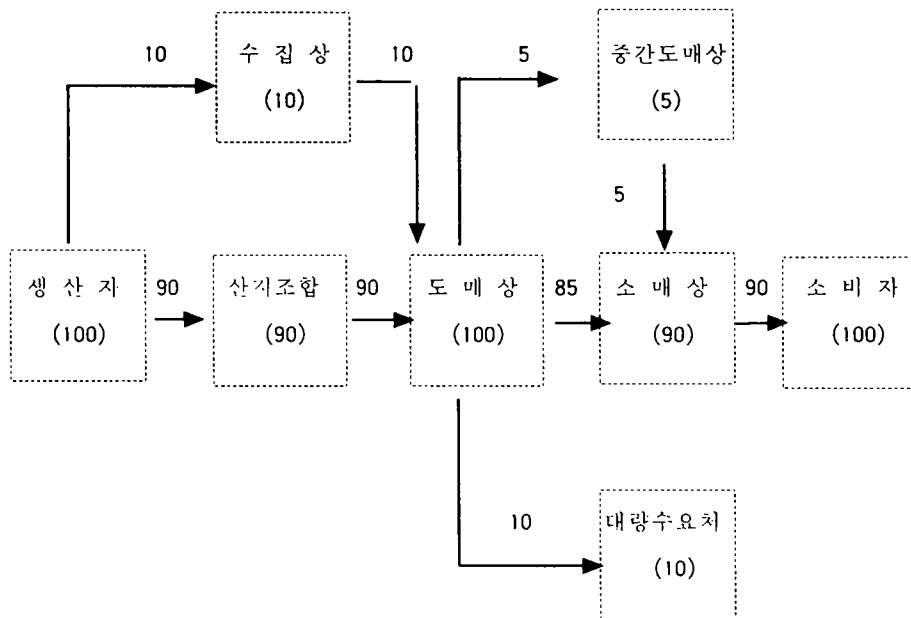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 「'97 농축산물 표준소득」, 1988.8

3. 유통

<그림2-1> 포도의 일반적인 유통경로

영동→서울('97.9.)

(단위: %)



가. 산지 유통 실태

- 캠벨얼리는 10kg(골판지)상자 출하가 주종을 이루고 등급은 주로 특·상·중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특·상의 출하 비중이 80%, 중품은 20% 정도로 나타남. 거봉은 4kg(골판지)상자 출하가 주종을 이루고, 등급은 특·상·보통으로 구분되고, 이 중 특·상의 출하 비중이 80%, 보통은 20% 정도임.
- 영동, 상주지역의 경우 단위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가 90~95% 정도이고, 수집상에게 입목선매(발떼기)가 5~10% 정도임.
- 산지마다 작목반 별로 운영되며 출하방법, 출하지역 등을 작목반 회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출하하고 있음.
- 산지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하대행, 차량지원, 포도상자의 공동제작·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계통출하의 경우 조합명의로 출하대금을 받아 개별생산자에게 정산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음.
- 계통출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출하장려금(판매 금액의 0.75%~1%)의 50%는 조합수수료로, 50%는 개별환원 또는 작목반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입목선매 거래의 경우 출하 10~15일 전의 株數, 재배면적, 포도송이의 품위와 당도 등을 고려하여 포도송이 당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나. 소비지 유통 실태

1) 도매시장

- 상주, 영동, 천안, 안성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중 70%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30%는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으로 출하됨.

- 1997년의 경우 가락동 도매시장 반입량은 서울 반입량의 60%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40%는 청량리 위탁시장, 영등포 위탁시장 등 유사 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별 취급물량은 중앙청과가 30% 정도, 서울청과·농협(공)이 각각 25%, 한국청과 동화청과가 각각 10% 정도임.
- 가락시장 반입 포도 품종은 캠벨얼리, 세레단, 거봉 등이며 5월 중순부터 대전, 논산지역의 시설포도인 캠벨얼리, 텔라웨어, 거봉 등이 첫 출하되며 노지포도는 7월 하순부터 출하하고 있음.
- 8~9월에는 경북, 충북, 충남, 경기에서 출하되는 포도가 주종이며, 10~11월에는 상주, 영동, 옥천, 김포, 강화, 화성 등에서 수확되는 세레단이 출하되고 있으며, 세레단은 저장성이 강하여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출하하고 있음.
- 도매시장 반입 차량은 주로 5ton트럭으로 1대당 캠벨얼리, 세레단등 10kg 골판지 상자의 경우는 600~700상자, 거봉(4kg)은 2,000~2,200상자가 실려서 운반됨.
- 운반비용은 10kg 상자당 상주에서 서울까지가 450원, 영동에서 서울까지가 500원, 천안에서 서울까지가 200원 정도임.
- 도매시장의 주거래 시간은 오전 4~8시까지이며, 하역비는 10kg상자는 160원, 4kg상자는 80원 정도임.
- 도매시장 반입 포도는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되며 이는 다시 도매상(5%), 소매상(85%), 대량수요처(10%) 등으로 판매됨.

2) 소매시장

포도의 소매 형태는 과일전문 소매상, 일반소매상, 백화점, 슈퍼마켓, 노점상, 트럭 행상 등 다양하며, 전문소매상의 경우 하루에 10kg들이 5~8상자, 4kg들이 10상자 정도를 판매하고 있음.

소매상 판매단위는 근, 관, kg 등으로 비닐에 담아 판매하고 있으나,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100g당 금액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표2-6> 포도 유통마진 명세표

'97.9. 영동→서울(가락시장)

【단위 : 원/kg, %(캠벨, 상품)】

	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거
생 산 자	농가수취가격	1,946.0	59.0	
	포장재비	78.0	2.4	골판치 상자 750원(750÷10kg = 75)
	운송비	50.0	1.5	테이프 750원(750÷25상자 = 30원)
	하역비	16.0	0.5	영동→서울(가락시장), 상자당 500원
	상장수수료	110.0	3.3	(500원÷10kg = 50원)
	판매가격	2,200.0	66.7	상자당 160원(160원÷10kg = 16) 경락가의 55(2,200원×0.05 = 110)
중 도 매 인	운반비	16.0	0.5	10kg 상자당 22,00원
	간접비용이윤	184.0	5.6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상자당 160원
	판매가격	2,400.0	72.8	(160원 ÷ 10kg = 16원)
소 매 인	운송비	137.1	4.1	도매시장→영등포소매시장,
	감모	24.0	0.7	1톤트럭용차4만원(4만원÷물품구입액70만
	간접비및이윤	738.9	22.4	원×2,400원 = 137.1원
	판매가격	3,300.0	100.0	감모 1%(2,400원 × 0.01 = 24원)
	판매가격	3,300.0	100.0	kg당 3,3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1997

4. 이용 및 가공

- 1996년의 포도 생산량 357천톤 중 가공량은 25천톤으로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 '80년에는 통조림, 넥타, 잼, 술의 4종의 가공품에 한정되었으나, 그후 식생활 개선에 따라 주스, 식초, 기타 음료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특히 포도주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여 '80년의 13,592톤에서 '96년의 3,332톤으로 4.1배 감소하였음.
- '96년 가공제품 중 주스가 60.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술(13.3%), 음료 및 기타(12.1%), 통조림(7.2%)순임.
- 정부의 가공 포도용 구매 지원 물량은 7,120ton이고, 금액은 2,436백만원으로서 10kg당 3,421원이었음.

<표2-7> 포도가공제품 생산량

(단위: 톤, %)

연도 제품	1980	1985	1990	1993	1995	1996	비중
통조림	4,537	6,516	12,017	3,035	1,753	1,804	7.2
주스		306	4,716	11,411	11,046	15,120	60.2
넥타	165	4	889	4,276	6,808	1,229	4.9
잼	1	16	12	546	126	397	1.6
술	13,592	6,578	6,900	6,961	3,746	3,332	13.3
식초					250	200	0.8
음료 및 기타		13	2,295	2,683	5,742	3,049	12.1
계	18,295	13,433	26,829	28,912	29,471	25,131	100.0

자료 : 농림부, 「'96과실 및 채소류 가공현황」, 1997

5. 수입 실태

<표2-8> 포도관련 품목의 수입동향

(단위: 톤)

품 목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10	주 수입선
건포도	5,030	4,596	4,193	4,145	3,892	3,616	미국,남아공,호주
포도주	1,250	2,109	3,233	4,226	6,181	5,754	프랑스,호주,미국,남아공
포도통조림	2	1	105	366	727	16	중국,칠레
포도주스	8	34	13	18	8,476	7,912	미국,대만, 칠레,브라질
신선포도	-	-	-	-	-	13,946	칠레,미국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 포도 관련제품의 시장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1981년의 건포도, 1990년 포도주, 1993년 포도조제품과 포도즙, 1995년에 포도주스, 그리고 1996년에 마지막으로 포도 생과가 개방됨으로써 포도관련 모든 품목이 개방되었음.

○ 건포도는 점차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포도주는 점차 물량과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 '96년의 수입량은 5,754ton이고 이의 수입액은 1,640만\$임. 포도 통조림과 포도주스는 1995년까지 증가하고 있다가 '96년부터 감소하였고 특히 포도 통조림은 45배의 급격한 감소를 보임.

○ 신선포도는 1996년부터 수입이 개방되어 전체 생산량의 3.9% 수준인 13,946ton이 수입되었으며 수입금액은 23,603천\$에 이르고 있으며 주 수입국은 미국이 70%, 칠레 17%, 남아공 7%의 순서로 나타났고, 수입포도 품종은 레드글로브, 레비에르가 주종임.

- '96년 미국산 수입 포도(리비에르)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월 40,000원/10kg 에서 10월 30,000원/10kg으로 하락하였으며, 레드글로브 품종은 11월에 40,000원 ~ 45,000원/10kg으로 나타났다.
- '96년 칠레산 포도(레드글로브) 수입가격은 4월에 34,150원/10kg, 5월에 39,020원/10kg, 6월과 7월에는 5,4880원/10kg으로 점차 상승하였으나 노지포도 출하시기인 7월 하순에는 수입초기 가격(34,150원/10kg)으로 하락함.
- 수입 포도가 국내포도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3월초순~5월초순까지 수입되는 포도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5월중순 이후에 수입되는 포도는 국내산 가온포도의 본격적인 출하시기와 결합하여 농가수취가격을 하락시킴에 따라 가온시설재배의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제 2 절 영동포도 주산단지 여건

1. 입지여건

- 영동군은 동서로 경부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가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지형적 영향으로 한서의 차가 심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현상을 나타냄.
- 강우형태는 호우 다건형으로 '85~'94년(10년간)의 평균 강우량은 1,188mm로 전국 평균 강우량의 1,274mm보다 낮으며, 년평균 기온은 11.7℃이고 최고 기온은 33.7℃, 최저 기온은 -17.2℃임.
- 초상일은 10월 12월이고 종상일은 4월 29일로 무상일수가 166일이고, 강설일수는 연평균 32일임.

2. 농업여건과 포도

○ 대부분의 지역이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산악지대로 표고별 경지면적은 100~200m가 56.9%, 201~300m가 26.9%로서 대부분 83.8%가 100~300m표고에 분포되어 있음.

또한 자원이 풍부한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며 산간 내륙지방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양질의 과수 생산에 유리하고 토질 유형은 보통지가 42.8%, 사질지가 46.5%로서 포도 재배의 적지임.

○ 영동군의 경지면적은 논 4,050ha, 밭 5,394ha, 과수원 3019ha로 총 12,463ha이며, 경지규모별 농가 비중은 영세농(0.5ha이하)이 26.8%, 소농(0.5~1.0ha)이 37.0%, 중농(1.0~2.0ha)이 29.5%, 대농(2.0ha이상)이 6.6%임.

○ 영동군의 총 농가수는 9,568호로 농가 호당 인구는 3.1명임.

○ 영동군의 총 농인구는 29,259명이고,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는 20세 이하가 28.9%, 21~30세가 17.1%, 31~40세가 12.6%, 41~50세가 10%, 51~60세가 14%, 61세 이상이 17.3%임

<표2-9> 포도재배면적 및 농가수의 변화 추이(1990년~1996년)

구 분	면적(ha)	농가수(호)
1990년	587(100)	1,174(100)
1996년	2,126(362)	4,405(375)

자료 : 영동군 「영동군통계연보」, 1997

○ 1990년~1996년 사이의 영동군의 포도 재배면적과 재배농가는 각각 3.6배와 3.7배로서 매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영동군의 포도재배 지역 분포('97년도 면적 2178.7ha)를 살펴보면 동부중간지(황간, 용산, 추풍령, 매곡)가 30.9%, 중부중간지(영동, 양강, 심천)가 34.0%, 서부중간지(학산, 양산)가 27.0%, 남부산간지(상촌, 용화)가 6.7%로 분포되어 있음.

○ 영동군 과실 생산량

<표2-10> 영동군 과실 생산량 변화 (단위: ha, 톤,%)

년 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1325	11893	372	4553	43	240	80	595	587 (44.3)	4535 (38)	144	1388	99	582
1997	3327	49038	525	11,150	187	2621	73	834	2,179 (65.5)	30319 (62)	234	2616	129	1498

자료 : 영동군, 「영동군통계연보」, 행정자료 각년도

1990년 포도의 재배면적은 전 과실재배면적의 44.3%를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65.5%로 21.2%포인트 증가하여 과실 중 포도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포도생산량은 1997년 전체 과일생산량의 62%를 차지하여 1990년보다 24%포인트 증가하였음.

제 3 장 영동 포도주산단지의 생산·경영·유통실태

제 1 절 생산여건과 지역특화 현상

1. 생산여건(입지,환경,특성)

○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김천, 서쪽으로는 금산군, 남쪽으로는 무주군, 북쪽으로는 옥천군 및 상주시와 인접해 있고, 지형은 소백산맥이 경북과 전북의 경계를 따라 영호남간의 장벽을 이루고 뺨어 있으며 금강과 초강천의 2대 하천이 흘러 수원이 좋고 관광자원이 많음.

○ 농경지는 해발이 높은 내륙지방의 중산간지가 대부분으로 일조량이 많으며 태풍의 피해가 적고 일교차가 커서 농작물 생육에 적당함. 특히 지역 특산물인 사과·배·포도·감 등의 과실류는 당도 및 색택이 좋아 고품질 농산물로서 각광받고 있음.

○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郡의 중앙을 횡단하고 있으며 도로망은 4번 국도와 19번 도로가 교차하고 지방도와의 연결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은 대체로 편리한 편임.

<표3-1> 영동군 포도재배 현황(1996년) (단위: ha, 톤, kg, %)

구 분	전국(A)	영동(B)	비중(B/A)
재배면적(ha)	27,196	2,126	7.8
생산량(톤)	357,274	34,085	9.5
10a당수량(kg)	1,314	1,603	122.0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연보」, 1997

영동군 포도재배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재배면적은 전국의 7.8%, 생산량은 9.5%, 그리고 10a당 수량은 전국의 122%에 이르고 있음.

○ 영동 군내의 전체 가구는 '90년 이후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농가수 및 전체인구와 농가인구는 다 같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95 작목별 농가 분포는 논벼가 71.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포도(49.5%), 한우(34.4%), 사과(11.9%), 닭(6.3%), 배(3.6%), 복숭아(3.6%) 순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과수분야 중 포도 재배농가수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음.

2. 지역 특화 현상

<표3-2> 전국 포도 주산지 실태(1996)

시군명	영천시	김천시	영동군	경산시	상주시	누계
재배면적	3,302	3,030	2,484	1,856	1,827	12,499
전국점유율	12.4	11.4	9.3	7.0	6.9	47.0

○ 영동군은 전국의 제3위의 주산지로서 '95년의 특화계수가 18.5로 영천이나 김천보다 높았음.

- 영동군의 주요품목(7개 품목) 생산액 1,469억원 중 포도생산액은 638억원으로 7개 품목 생산액의 43.4%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작물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3-3> 영동군의 주요품목 생산액 (1997년)

품목	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억원)	
쌀	4,050	56.7	17,820	22.1	360	24.5
포도	2,178	30.5	42,500	52.7	638	43.4
사과	525	7.4	12,040	14.9	185	12.6
배	186	2.6	2,690	3.3	54	3.7
감	134	1.9	3,444	4.3	90	6.1
호도	65	0.9	144	1.2	14	1.0
표고버섯	6,563천본	-	1,981	2.5	128	8.7
계	7,130	100	80,619	100	1,469	100

자료 : 영동군, 행정자료

3. 경영과 유통실태

- 기존조사 결과 영동군의 농가 호당 포도 경영면적은 1630평으로 매우 영세하며 10a당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조수입이 2,925천원, 경영비가 1,101천원, 소득이 1,824원으로서 소득율은 62%임.

<표3-4> 10a당 경제성 분석 (캠벨얼리)

경영규모(평)	조수입(천원)	경영비(천원)	생산비(천원)	소득(천원)	순수익(천원)
1,630	2,925	1,101	2,092	1,824	832

자료 : 충북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경영개선연구", 1996

- 캠벨얼리의 주 출하시기는 8월중순(40.7%)과 8월하순(37.1%)이고, 세레단의 주 출하시기는 9월상순(42.9%)과 9월중순(42.8%)임.

<표3-5> 시기별 출하비율

	8월상순	중순	하순	9월상순	중순	하순	10월상순
캠 벨 얼 리	14.8	40.7	37.1	7.4			
세 리 단			14.3	42.9	42.8		

자료 : 충북농촌진흥청, 상계서

○ 포도재배 면적의 전국 점유율 1위는 영천(10.8%)이지만 영동(10.4%)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특화계수는 영천이 13.2인 반면, 영동이 18.5로서 경산(18.7)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영동이 전국에서 가장 주산지 집중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3-6> 주산지 집중율('95)

시군명	1위 영 천	2위 김 천	3위 영 동	4위 경 산	5위 천 안
재배면적(ha)	2,759	2,754	2,720	2,072	1,656
전국점유율(%)	10.8	10.7	10.4	8.1	6.5
특화계수	13.2	11.60	18.5	18.7	8.4

자료 : 충북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 산지유통 개선연구", 1996년

○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5.0세이고, 호당 재배면적은 2,379평이며, 가족수는 3.3인으로 영동군 농가 평균과 비슷하고 영농종사원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났음.

<표3-7> 경영주 인적 사항 및 일반 현황

연 령	호당 재배 면적	농민단체 경력	가족수	영농종사인원
55.0	2,379(평)	3.0	3.3	2.3

자료 : 충북농촌진흥원, 상계서

○ 포도재배농가의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과수원이 전체 영농규모의 74.6%로서 거의 전업농 수준이고, 밭이16.1%, 논이 9.2%임.

<표3-8> 포도재배농가의 영농규모 (단위: 평/호)

논			밭			과수원	기타	계
자가	임차	계	자가	임차	계	3,275		4,387
129	275	404	58	650	708			

자료 : 상계서

○ 농기계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호당 경운기가 0.92대, 방제기가 0.83대, 관리기가 1.0대로 나타나고 있음.

<표3-9>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대/호)

경운기	방제기	관리기
0.92	0.83	1.0

자료 : 상계서

○ 출하방법은 단지공동출하가 82.8%, 농협계통 출하가 11.9%, 개별 출하가 5.3%로서 농협의 산지 공판활동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

<표3-10> 출하방법 (단위:%)

농협계통출하	단지공동출하	개별출하
11.9	82.8	5.3

자료 : 상계서

○ 영동포도의 판매처로서는 대도시 도매시장이 69.6%이며, 인근시장이 13.2%, 산지경매가 11.9%, 그리고 직판장, 산지수집상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3-11> 영동포도의 판매처별 판매비중 (단위:%)

직판장	산지수집상	산지경매	인근시장	대도시도매시장
3.3	2.0	11.9	13.2	69.6

자료 : 상계서

○ 포장

포장단위는 거의 대부분 10kg이고 포장재도 역시 대부분(98.7%)이 골판지이지만 아직도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1.3% 정도임.

○ 영동포도의 시장별 경매가격을 살펴보면 가락동 도매시장과 학산농협공판장의 경우는 캠벨얼리, 세레단 모두 출하초기는 학산 농협공판장의 경우가 약간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의 경매가격이 높았음.

<표3-12> 시장별 경매가격

- 캠벨얼리

(단위:원/kg/상품)

구 분	8월 하순	9월경매기간		평균가격	경매기간
		상순	중순		
서울가락시장(A)	1,183	1,225	1,390	1,269	'96년.8.26 ~9.16
학산농협공판장(B)	1,195	1,006	1,085	1,063	
대 비 (B/A)	101.0	82.1	78.1	83.8	

- 세레단

(단위:원/kg/상품)

구 분	10月			경매기간 평균가격	경매기간
	상순	중순	하순		
서울가락시장(A)	1,800	2,219	2,414	2,292	'96.9.17 ~10.30
확산농협공판장(B)	1,869	1,914	1,804	1860	
대 비(B/A)	103.8	86.3	74.7	81.2	

자료 : 상계서

- 유통비용은 출하 및 중계단계에서 8.5%, 소매단계에서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이윤은 전자가 7.9%,후자가 16.4%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유통비용과 상업이윤을 합한 유통마진은 출하 및 중계단계가 16.4%, 소매단계가 33.6%로서 소비자 판매가격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3-13>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구성비

- 세레단(영동→서울) 1996.

(단위:원/kg/상품,%)

구 분		상주→서울	영동→서울	천안→서울
농가 수취율		62.2	59.0	50.4
유통 마 진		37.8	41.0	49.6
마 진 내 용	직접비용	12.4	13.0	15.1
	간접비 및 이윤	25.4	28.0	34.5
단계별 마 진	출 하 단 계	7.0	7.7	9.6
	도 매 단 계	5.1	6.1	10.0
	소 매 단 계	25.7	27.2	30.0
소비자 가격(원/kg)		(3,900)	(3,300)	(2,500)

자료 : 상계서

제 2 절 포도생산 실태

1. 생산방법과 기술형태

가. 포도의 재배환경

○ 영동지역은 준 산간지대로 평야가 적고 경사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벼재배가 불리하므로 일찍부터 과수재배가 발달하였으며 과수중에서 포도의 재배면적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포도의 특화계수는 18.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재배면적도 2,415ha로 전국의 3번째의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음.

○ 영동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1.5℃이다. 4~5월의 평균기온은 13℃이고 7~8월의 평균기온은 24.8℃로 포도 재배에 매우 적합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음.

특히 영동은 표고 200미터 전후의 준 고랭지로서 연평균 일교차가 10~15℃로 과일의 성숙기에 당도 및 색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과일재배의 適地로 나타남.

○ 그러나 연간 최저기온은 -15℃~-16℃로 유럽계 품종재배시는 동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晩霜日이 5월 중순경이므로 매년 4월 하순경의 서리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의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포도나무의 토양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 우리나라 어디든지 재배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심이 깊고 기름지며 자갈땅 또는 사질 양토로 경운이 쉽고 심토는 너무 단단하지 않은 토양이 좋음.

영동지역의 토양은 사양토로써 배수가 좋고 비배관리가 편리하나, 표토가 얇고 유기물의 함량이 적은 것이 단점이므로 이를 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고도경제 성장기에 국민의 소득증가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높은 과일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 하였고 과일의 판매가격도 점차 높아져 타 지역 보다 농가소득이 높은 편임. 특히 최근 포도가 건강식품으로서 그 효능이 매스컴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포도의 수요량이 급증하였음.
- 영동군내 도로망의 포장율은 80%이상에 달하고 있고, 과수원 기반 정리 사업등이 타 지역 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과수재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영동의 교통망은 우리나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경부 고속도로 및 경부국도 그리고 경부철도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전국 대도시의 도매시장에 2~3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임.

나. 포도의 품종과 육종

- 포도는 삼목으로 쉽게 번식이 되므로 번거로운 접목재배가 농가에 정착되기 어려웠음. 외국에서도 삼목재배로 시작된 포도 농사가 뿌리혹벌레(피록세라)에 의한 피해가 확산 되면서 접목기술이 보급되어 이제는 보편화 되었음. 접목기술은 뿌리혹벌레(피록세라)의 방지 뿐만아니라 수세조절 및 수량증대, 품질향상, 숙기조절 등 재배상의 잇점도 함께 규명되어 현재 신품종의 재배기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접목기술이 기존 삼목 기술보다 까다롭다는 것이 단점이나 앞으로 고품질의 4배체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배기술임.
- 영동군의 학산면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세레단은 원래 가공용의 만생종으로 캠벨얼리보다 당도가 높아(보통 17° Bx) 재배 초창기에는 인기가 높았으나 타지역으로 재배면적이 확산 되면서 점차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품종갱신을 해야함.
- 1997년 영동군의 포도재배면적 2,415ha중 캠벨얼리가 62%, 세레단

33%, 그리고 신품종(4배체 품종)이 2%로 재래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음.

- 이에 영동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호가 점차 신 품종 위주로 다양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10개년 계획으로 1995년부터 품종 갱신사업을 시작하여 대목으로는 5C, 5BB, 3309를 확보하고 신 품종 삽수로는 블랙올림피아, 델라웨어, 하니블랙, 高妻, 高墨등 신품종 30여종을 옥천시설포도시험장과 연계하여 적응시험을 거쳐 하니블랙 등, 블랙올림피아, 후지미노리 등 6개품종을 선발하였고, 이를 영동군 지도소에서 직접 조직배양으로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한 신품종 보급실적은 1997년 5개면 6개소에 3,000본(2.0ha)이었으나, 1998년에는 2개면 2개소 1,500본(1.0ha)이며 희망농가에는 약 3,300본을 보급할 예정임.

-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 생식용 포도의 생산에 주력하여야 하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신품종(4배체품종)은 접목으로 품종갱신이 가능하나, 접목재배는 수세가 강하고 花振현상이 강하여 착과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량 비가림 시설이나 하우스 시설재배로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함. 그러나 IMF 경제체제 이후 하우스 시설재배는 경제성이 없어 현재 개량 비가림시설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음.

다. 전지 및 전정

- 포도는 덩굴과수로 수형구성이 쉽고, 또한 수형완성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므로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整枝를 하고 있음.

① 울타리형: 수형을 수직으로 가꾸는 방법으로 웨이크만식, 니핀식, 개량니핀식 등이 이에 속함. 설치비가 적게 들고 관리에 편리하나 신초가 부러지거나 지주가 넘어지기 쉬우며 수량이 적고 수명이 짧음. 주로 단초전정에 의존하고 있음.

② 평덕형 : 평덕위에 수형을 수평으로 가꾸는 방법으로 주로 일자형, H자형, X자형, 우산형, 올백형등이 이에 속함. 덕을 만들 때 전문기술과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나 수세가 강한 나무를 크게 가꾸어 수세를 속히 안정시킬 수 있고 땅에서 높게 결실되므로 통풍이 잘 되어 병의 피해가 적고 기계화에 편리하고 과수원 면적을 넓게 이용할 수 있어 수량이 많은 장점이 있음.

○ 영동지방의 수형은 90cm 높이에 수관과 결실부위가 오게되는 표준웨이크만식(울타리식 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도잎의 투광성을 개선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근래에 대부분 높이 140cm의 턱식으로 개량하였으며 외대(…文字)로 가지를 유인하여 내한성이 약한 유럽종 포도를 재배할 때 겨울철에 나무를 묻어 주는 작업도 가능하게 되었음.

○ 전정시에는 포도의 結果習性(미국계통 품종: 새순 기부 제2~3마디에 첫 꽃송이가 달리고 계속적으로 몇송이가 달림. 유럽계통 품종: 새순 기부 제2~3마디에 달리고 제4마디를 건너 뛰어 다시 제5~6마디에 달림)을 잘 이해하여야 함. 시기는 12월 상·중순에서 다음해 2월중·하순에 걸쳐 실시하는데 이때는 희생아 전정을 함.

① 剪定과 樹勢

썩 剪定을 할수록 수세가 억제되며 이 현상은 유목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며 성목의 경우는 전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老木이나 쇠약한 나무에서는 적당한 전정은 오히려 수세를 회복시켜줌. 또한 지상부의 가지와 지하부의 뿌리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상부를 강 전정하면 뿌리의 발육에 영향을 받음.

② 新梢의 생장

전정의 강약은 생장시기에도 영향을 미침. 弱 剪定(장초전정: 1년생까지의 눈을 7개이상 남기는 것.)을 하면 신초의 신장개시가 빠르고 생육 초기에 급 생장을 하나 그 후 생장율이 떨어짐. 일찍부터 많은 잎이 형성되어 동화양분의 공급에 유리함. 强 剪定(장초전정: 1년생까지의 눈을 1~3개 남기는 것.)을 하면 신초의 신장 개시가 더디고 초기의 생장은 완만하나 5~6월 이후에는 급격히 성장하여 가을까지 생장을 멈추지 않아 나무의 체내 저장 양분이 적어 이듬해 초기의 생육이 나빠짐.

③ 순 따주기

한 눈에서 2~3개의 새순이 자라므로 발육이 좋은 것 1개만 남기고 빨리 제거함. 가지가 무성하여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은 더 솎아줌. 묵은 가지에서 자라는 막눈(不定芽)은 일찍 제거함.

④ 순 지르기

열매가지인 새순이 자꾸 자라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송이에 포도알이 잘 달리게 하고, 가지에 햇볕이 잘 들게 함. 화진현상이 심한 품종의 경우 정받이가 잘 되도록 개화 5~7일 전에 열매가지의 6~7마디를 남기고 순을 잘라줌.

○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품종인 캠벨얼리는 주로 단초전정으로 결실과 다를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함과 편리한 수형 구성을 하였음.

앞으로 4배체의 신품종도 수세가 강하므로 단초 전정이나 초단초 전정으로 간편한 수형구성으로 전정이나 신초유인을 쉽게하며, 과방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라. 토양과 시비

○ 포도는 생리적으로 1년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2회씩 반복하므로 각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비료성분을 적절히 공급해야만 포도송이가 굵

고 착색이 잘된 고품질의 포도생산이 가능함. 각 비료성분의 시비량은 수세, 수령, 토양비옥도, 기상등에 따라 다르 지만 표준 시비량은 다음과 같음.

<표3-14> 수령별 추천시비량 (Kg/10a)

수령	질소(N)	인산(P)	칼리(K)	퇴비
1년생	2.0	1.0	1.0	100~300
3년생	3~5	2~3	2~4	1,000
5년생	7~10	4~6	5~8	1,875
10년생	13~18	7~10	10~15	1,875

- 포도는 과다 시비할 경우 화진, 각종 미량원소 결핍 등 생리 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 영동지역의 포도재배농가의 시비량은 타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종 비료의 시비량은 표준 시비량의 2~3배 이상의 과다한 시비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영동지역은 준산간의 포도주산단지로서 최근 논을 포도원으로 전환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볏짚 생산의 감소로 유기질비료 시용에 있어서 자가퇴비의 시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분, 우분, 계분 등을 톱밥과 발효시킨 것이나 시판용 유기질 비료의 시용으로 질소분 비료가 과다 투입되어 화진 피해나 품질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의 해결책은 호밀 재배로 포도 수확후 10월하순경 비료와 함께 파종하여 120cm정도 성장(50% 출수기)하는 5월 초순에 예취하여 포도원의 유기질 비료로 시용함. 이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겨울동안 탄산가스고정(1톤/10a)과 산소공급(0.7톤/10a)으로 공기정화

- 여름철 장마시·토양유실 방지 (0.2~2.0톤/10a)
- 빗물에 의한 무기질, 유기질 비료유출 방지로 댐이나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
- 토양에서 작물이 이용 불가능한 비료성분의 재활용 가능.
- 호밀 뿌리는 심근성으로 지하 180cm까지 뻗어 내려가므로 토양공극을 확대 등 토양의 물리적성질 개선으로 포도뿌리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육 유도.
- 호맥을 녹비로 이용할 경우 10a당 유기질비료 100포(25만원상당)정도의 절감이 가능함- 지상,지하부에 각각 1톤정도의 유기물 공급 가능
- 포도 생육을 건전하게 하고 병해감소로 인한 농약 살포 억제효과가 나타남.(보통 12회에서 8회 정도로 감소 살포)
- 호밀재배는 제초의 발생을 억제하므로 연간 3~4회 살포하는 제초제 비용절감(10a당 3만원 정도). 또한 선택이 좋아지고 당도가 높아져 고품질의 포도생산이 가능하게 됨.
- 예취한 호맥은 일부 축산농가의 자급사료로 이용가능함.
- 호밀재배는 수확시기를 늦추므로 음지나 습지에서는 피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밀재배시 예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량 재배에 유의하여야 함.
- 이와 같은 호밀재배의 잇점 때문에 관행재배보다 약 30%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정됨.

마. 花振 현상(꽃떨어 현상)

화진은 극단적인 착립불량 현상으로 비교적 나무의 세력이 강하고 대형의 꽃송이가 착생되는 거봉, 피오네, 네오머스켓 등의 4배체 품종에 심하게 나타나며 재래종으로는 캠벨얼리나 MBA 등에서도 재배관리가 소홀하면 종종 발생함. 이의 원인은 花器의 불완전, 不受精 및 정반이 이후의 胚의 퇴화 등으로 정상적인 개화 및 정반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함.

- 개화기의 기상불량등으로 꽃가루의 발아율이 저하하여 정상적인 정반이를 방해하고, 개화기 이후의 계속적인 일조 부족은 배주의 발달을 방해하여 결실불량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 발아 이후 개화기까지는 지난해 체내에 축된 저장양분이 이용되는데 지난해의 과다결실, 조기낙엽, 질소과다 시비는 저장양분의 생성을 불량하게 하여 신초와 뿌리의 생장을 억제시킴으로써 화기 및 화분의 발육을 억제함. 개화 및 정반이의 불량은 포도알의 착립을 불량하게 함.

- 지나친 질소비료 시용과 강전정은 개화기에도 신초의 생장을 조장하며 웃자람의 원인이 되어 체내 저장양분과 동화양분을 신초생장에 소모하여 꽃송이에 이행되는 영양분의 감소로 花蕾의 발달이 불량해짐.

- 花蕾발달시 봉소의 결핍은 원활한 세포분열을 억제하여 화기의 구조를 불완전하게 만듦. 개화기에 화관이 정상적으로 이탈하지 못하고 씨방에 붙어있거나 꽃잎의 일부가 찢어진채 수술에 의해 위로 올려져 다갈색으로 변하게되어 가루받이나 정반이가 불량해지고 개화후 탈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방제대책으로는 조기낙엽, 질소 과다시용, 결실과다를 피하여 수체내 충분한 영양분이 축적되도록 하며, 2년마다 10a당 2~3kg의 붕사를 시용하거나 개화 1~2주전에 붕사 0.3%액을 옆면 살포함. 또한 개화기의 신초 도장도 화진 현상을 촉진하므로 강전정, 밀식, 질소의 과다시용을 삼가 하여 수세를 안정시키고, 세력이 강한 신초는 개화 4~5일 전에 신초의 끝부분을 순지르기함. 수세가 강한 나무는 질소시용의 억제와 뿌리 절단이 효과가 큼.

바. 병충해 방제

- 비가 자주내리는 해는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대부분의 농민은

주위의 포도재배 농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간 9~12회 정도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포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그러나 개량 비가림시설을 하면 농약살포를 절반 가량으로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해짐.

○ 영동군의 개량 비가림시설은 1997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7농가(81.9ha)에 실시하였고 1998년에는 2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99농가(81.9ha)에 실시할 예정임. 이 사업의 효과는 포도의 생육기에 엽소현상등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품질(고당도, 병충해 발생감소, 열과방지)의 포도 생산이 가능함.

○ 영동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충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① 근두암종병

유럽계통의 신품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동해방지를 위한 겨울철 묻어주기 작업과정에서 구부리는 부위에 발생함. 연황색의 작은 혹이 생기고 이것이 점차 굳어져 그 표면에 주름이 생기고 농갈색으로 변하여 발육부진으로 수년후에 주게 됨.

묘목에 의해 전염되므로 묘목구입시 주의하며 새로운 상처로 병균이 침입하므로 근두부위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며 뿌리를 가해하는 곤충을 구제하여야 함.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음.

② 방고병(꼭지마름병)

유럽계 품종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는 숙기의 어린꼭지에서 발생하며 담갈색의 점무늬가 생기고 이것이 열매 꼭지를 한바퀴 돌 정도로 확대되면 그 부분이 枯死하므로 포도알이 검거나 검은 보랏빛으로 시들게 됨. 병원균은 열매꼭지나 덩굴손에서 월동하였다가 이듬해에 다시 전염됨.

생리적 장애시 특히 세레단 품종의 경우 과다 착과하면 유효잎의 부

족으로 숙기에 포도송이의 중간 아랫부분의 포도알이 착색이 잘되지 않아 성숙이 지연되고 수확기에 포도알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비가 자주오고 흐린날이 계속되거나 질소비료의 과다사용과 거름의 효과가 늦게 나타날 때 또 착색기에 지나나 있을 많이 제거했을 경우에 나타남.

·방제방법은 합리적인 비배와 배수관리로 안정적인 수세를 유지하여 결실을 조절하고 병든 포도는 즉시 제거시킴. 포도송이가 너무 짝 박히지 않도록 적당히 적방해줌.

③ 노균병

유럽계품종 특히 네오머스캐에이나 미국계 품종중 델라웨어, 다노레드, MBA, 거봉등에서 6~7월 장마시 고온 다습으로 주로 잎 부분에 발생하며 담황색의 큰 병반이 나타나며 이 부분을 햇빛에 비추어 보면 기름이 번 것처럼 보이고 뒷면에 흰색 곰팡이가 생긴.

병반은 갈변하고 전체가 불에 덴 것처럼 말라 낙엽이 되며, 꽃송이와 어린 포도알도 피해를 입음. 병원균은 잎과 함께 떨어져 흙속에서 난포자 형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빗방울에 의해 포도나무잎에 튀어 숨 구멍을 통하여 침입함.

방제법은 장마철의 약제살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잎뒷면에 약을 잘 뿌리며 피해 낙엽은 모아 땅속 깊숙히 묻거나 태움.

약제는 발아전 석회황합제 0.5%액을 살포하거나 보르도액(6-3식) 살포도 효과가 좋음.

④ 포도 호랑하늘소

몸 길이는 8~15mm로 유충이 신초의 목질부를 환상으로 갉아먹으며 피해 가지는 5~6월경 급히 시들어 枯死함. 이 벌레의 피해는 산간부에 가까운 포도원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정가지를 포도원 주위에 쌓아놓으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남. 대개 마디부분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가해한 후 가지의 피하에서 유충으로 월동한 후에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사이에 성충이 됨. 주로 눈의 인편속에 한 눈에 한알씩 알을 낳는데 6~10일 후에 부화하여 눈이나 껍질속을 파먹어 감.

방제법으로는 피해원의 전정가지를 태우며, 묵은 껍질 벗기기를 철저히 함. 성충이 수확기에 발생하므로 수확이 끝난 후 메프수화제(스미치온, 호리치온) 1,000배액이나 베스트수화제(파마치온) 1,000배액을 살포하며, 나무껍질속의 유충은 바늘 등으로 찔러죽임.

제 3 절 포도재배 농가경영실태

1. 농가개황

가. 지역별 농가개황

○ 조사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1.1세이고,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동군에서 가장 먼저 포도 재배를 시작한 영동읍 지역의 평균연령이 56.6세로 가장 높고, 학산의 경우 49.1세로 가장 낮았음.

조사농가의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가 42%, 50대가 18%, 60세 이상도 26%를 차지하였으나, 30대는 14%에 지나지 않았으며 29세 이하의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음.

○ 조사농가 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2,983평(0.99ha)으로 비교적 크고, 특히 황간의 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3,348평(1.12ha)으로 가장 크다.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분포는 2,000평이상~3,000평미만 층이 38%로 가장 많고 1,000평이상~2,000평미만 층과 3,000평이상~4,000평미만 층이 각각 20%, 4,000평 이상 층이 16%, 그리고 1,000평 미만 층은 6%에 지나지 않았음.

○ 영동군 포도재배시설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노지재배(비가림 재배 포함)가 전체의 98.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우스 재배면적이 1.3%이며 그중에서도 가온 재배 면적은 전체의 0.1%에 지나지 않음.

<표3-15> 농가의 지역별 개황

(단위: 평, %)

	농가수 (호,%)	연령 (세)	평균 경작 규모	시설 형태	재배품종 (%)		재 식 시 기						
					캠벨	세레단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영 동 읍	주곡리	14	45.7	2,814.3	노지	86	14	864.3	30.7	211.4	7.5	1,738.6	61.8
	화신1리	8	46.8	2,775.0	노지	65	35	375.0	13.5	509.0	18.0	1,900.0	68.5
	화신2리	8	55.5	2,625.0	노지	81	19	575.0	21.9	1,175.0	44.8	875.0	33.3
	지촌리 ¹⁾	8	56.5	1,750.0	노지	56	44	-	-	450.0	25.7	1,300.0	74.3
	소계	38	51.1	2,491.1		72	28	453.6	18.2	584.1	23.5	1,453.4	58.3
황 간 면	서송원	6	42.3	5,200.0	노지	79	21	1,010.0	19.4	1,300.0	25.0	2,890.0	55.6
	명륜동	8	60.0	3,039.0	노지	79	21	550.0	18.1	1,364.0	44.9	1,125.0	37.0
	한천리	8	51.5	3,000.0	노지	58	42	375.0	12.5	250.0	8.3	2,375.0	79.2
	신단리	8	50.5	3,500.0	노지	81	19	500.0	14.3	1,125.0	32.1	1,875.0	53.6
	신옥전 ²⁾	6	62.0	2,000.0	노지	83	17	-	-	766.7	38.3	1,233.3	61.7
	소계	36	53.3	3,347.8		76	24	487.0	14.5	961.1	28.7	1,897.7	56.8
학 산 면	모리	4	46.5	2,750.0	비가림	43	57	-	-	1,150.0	51.9	1,065.0	48.1
	압치리	8	52.0	2,575.0	비가림	18	82	-	-	1,100.0	40.0	1,650.0	60.0
	아암리	4	55.5	2,800.0	비가림	52	48	400.0	14.3	1,800.0	64.3	600.0	21.4
	마곡리	2	40	4,200.0	비가림	83 (M)	17	1,100.0	26.2	1,600.0	38.1	1,500.0	35.7
	당곡리	2	42	5,000.0	비가림	68 (M)	32	600.0	21.4	1,850.0	38.1	2,400.0	49.5
	삼정리	6	48.0	3,500.0	비가림	24	76	-	-	1,233.3	35.2	2,266.7	64.8
	소계	26	49.1	3,161.5		28	72	192.3	6.0	1,392.3	44.3	1,625.4	50.6
합계	100	51.1	2,983.1	72/28	64	36	421.6	14.7	904.7	31.5	1,669.4	53.8	

주 1) 양강면에 위치하지만 양간단위농협이 영동단위농협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영동읍으로 구분했음.

2) 배곡면에 위치하지만 배곡단위농협이 황간단위농협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황간면으로 구분했음.

○ 영동군 포도재배 품종별 재배면적 구성비는 캠벨얼리가 61.7%, 세레단이 33.0%, 머스켓 베일리에이(일명 MBA)가 3.3%, 기타 신품종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조사농가의 재식시기별 재배면적의 구성비는 1970년대와 1980년대가 각각 14.7%, 31.5%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포도가격의 상승과 포도가 건강식품으로 재인식되면서 전체 재배면적의 53.8%가 최근 6~7년간 급속히 늘어났음.

나. 경작규모별 농가개황

<표 3-16> 경작규모별 농가개황

(단위:평, %)

구 분 면 적	농가수 (호)	연령 (세)	평균 경작 규모	시 설 형 태 (노지/비 가림)	재 배 형 태		재배품종(%)		재 식 시 기					
					우 산	일 자	캠벨	세리단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면적	%	면적	%	면적	%
1,000평 미만	6	64.3	967	100/0	65	35	100	-	-	-	333.0	35	633.0	65
1,000평~ 2,000평	20	53.8	1,830	90/10	33	67	71	29	390.0	21	430.0	24	1,010.0	55
2,000평~ 3,000평	38	51.2	2,684	63/37	22	78	60	40	307.9	11	914.7	34	1,494.7	55
3,000평~ 4,000평	20	49.8	3,716	88/12	34	66	62	38	700.0	19	1,065.6	29	1,950.0	52
4,000평 이상	16	44.0	4,975	66/34	39	61	53	47	541.3	11	1,487.5	30	2,946.3	59
평균	100	51.1	2,983	76/24	32	68	64	36	421.6	14	904.7	30	1,669.4	56

○ 경지규모와 경영주와의 연령은 서로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작규모가 클수록 경영주의 연령이 낮은 경향을 나타냄. 1,000평 미만의 경작규모의 경영주 평균연령은 64.3세이고, 경작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점차 낮아져 4,000평 이상의 경우는 44.0세였음.

○ 경작규모별, 재식시기별 재배면적 구성비율을 보면 '90년 이후의 재배 면적 구성비율은 1,000평 미만의 경작규모 층(신규참여자)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0평~4,000평 경작규모 층에서는 52%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4,000평 이상의 대규모 경작층의 경우도 전체 경작규모 중 59% 정도가 '90년 이후에 확대되었으나 경작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연령별 농가개황

<표3-17> 연령별 농가개황

구 분 연 령	농가 수	평균 경작 규모	시 설 형 태 (노지/비가림)	재 배 형 태		재 배 품 종 (%)		재 식 년 도					
								1970		1980		1990	
				우산	일자	캠벨	세리단	면적	%	면적	%	면적	%
30이상 ~ 40미만	12	3,867	92/8	56	44	61	39	271.7	7	1428.3	37	2166.7	56
40이상 ~ 50미만	40	3,280	65/35	21	79	58	42	422.5	13	930.5	28	1958.5	59
50이상 ~ 60미만	22	2,691	73/27	22	78	62	38	509.1	19	609.1	23	1572.7	58
60이상 ~	26	2,366	85/15	45	55	77	23	415.4	18	873.5	37	1076.9	55
평균	100	2,983	76/24	32	68	64	36	421.6	14	904.7	30	1669.4	56

주: 농장주 평균연령은 51.1세임.

○ 경영주의 연령과 평균 경작규모는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연령이 낮을수록 경작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30세이상~40세미만 젊은층의 평균 경작규모는 3,867평이고 60세이상 노령층의 경작규모는 2,366평임).

○ 연령별 재식년도별 비중을 보면 '90년 이후의 재배면적 확대비율은 40세 이상~50대미만의 연령층에서 59%, 60세이상의 노령층에서는 55%이었으나 연령층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라. 경영주 경력별 농가개황

<표3-18> 경영주 경력별 농가현황

구분 경력 (이상~미만)	농가수	연령	평균 경작 규모	시 설 형 태 (노지/ 비가림)	재 배 형 태		재 배 품 종(%)		재 식 년 도					
					우 산	일 자	캠 벨	세 리 단	1970		1980		1990	
									면적	%	면적	%	면적	%
10년 미만	22	53.8	2,264	36/64	4	96	59	41	-	-	372.7	14	1948.2	86
10년 ~ 15년	26	48.8	3,369	38/62	30	70	48	52	125.4	4	1505.4	45	1738.5	51
15년 ~ 20년	12	51.5	2,783	17/83	43	57	73	27	533.3	19	1050.0	37	1200.0	54
20년 ~ 25년	26	49.5	3,235	15/85	30	70	73	27	673.1	21	914.3	28	1647.7	51
25년 이상	14	53.6	3,100	0/100	64	36	80	20	1071.4	34	482.9	16	1545.7	50
계	100	51.1	2,983	76/24	32	68	64	36	421.6	14	904.7	30	1669.4	56

○ 경영주의 경력별 평균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10년미만의 경우가 53.8세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경작규모는 2,264평으로 가장 적었음.

경력이 10년이상~15년미만의 경우가 44.8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으며 경작규모는 3,369평으로 가장 많았음. 25년이상의 경우는 평균연령이 53.6세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평균 경적면적은 3100평으로 평균 경작규모(2,983평)를 상회하고 있음.

○ 경력별 재식년도별 비중을 보면 '90년 이후의 재배면적 확대비율은 10년 미만의 경력층에서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년이상의 경력층에서는 50%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나, 10년미만의 경력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거의 50%~54%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생산현황

가. 지역별 생산현황

<표 3-19> 지역별 학력 및 경력과 생산현황

구 분 지 역	학력 ¹⁾	경력	농사참여 일수 (1ha당)	호당평균 생산량(kg)	단위생산량 (kg/10a)	단 가 (천원/ 10kg)	1ha당			소득율 (%)
							조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소득 (천원)	
영 동 읍	8.7	18.3	220.2	7,829	939	18.6	18,886	4,358	14,527	76.9
항 간 면	8.8	14.1	202.2	11,692	1,062	20.1	21,092	4,321	16,771	79.5
학 산 면	9.0	11.8	203.7	10,592	1,005	19.1	18,929	3,307	15,662	87.0
계(평균)	8.9	15.5	207.4	10,008	1,005	19.4	19,926	4,104	15,822	79.4

주 1) 학력은 수학년수로 표시했음.

○ 조사지역의 포도재배농가 경영주의 평균 학력은 수학년수가 8.9년으로 중학교 졸업수준에 가깝고, 지역별로는 경영주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학산면의 경우 수학년수가 9.0년으로 가장 높았으나, 조사지역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학력별로 구분하면 중학교 졸업층이 46%, 초등학교 졸업층이 26%, 고등학교 졸업층이 24%, 전문대 졸업 이상이 4%를 차지하고 있음.

○ 포도재배농가 경영주의 포도재배 경력의 전체 평균은 15.5년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으며, 이것 또한 지역별로 경영주의 연령과 $r(+)$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영동읍이 18.3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학산면이 11.8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지역 역시 10년 이상의 재배경력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인 재배기술은 전국 포도 재배농가에 비해 비교적 높고 평준화되었다고 생각됨.

○ 1ha당 경영주의 연간 포도농사 참여일수는 영동읍 지역이 220.2일로 가장 많았으며 황간면과 학산면은 각각 202.2일과 203.7일로 거의 비슷하였고 전체 조사농가 평균은 207.4일이었음. 이 역시 경영주의 연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포도재배 참여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포도 1상자(10kg)당 평균 농가판매가격은 19,400원 정도였으며, 지역별로는 황간이 20,100원으로 가장 높고 학산 19,100원, 영동읍 18,600원 수준이었음.

○ 조사농가의 1ha당 평균 조수입은 19,926천원이고 소득은 15,822천원(소득율 79.4%)이며, 지역별로는 황간면의 조수입은 21,092천원이고 소득은 16,771천원으로 소득율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동읍은 조수입이 18,886천원, 소득은 14,527천원으로 소득율이 76.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조사농가의 1997년도 평균 생활비는 13,322천원이며 이를 분포별로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의 농가가 8%, 50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농가가 26%,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의 농가가 22%,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농가가 22%,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의 농가가 18%, 2500만원 이상의 농가도 4%로 나타났음.

3.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계획

가. 지역별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의향

○ 포도재배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의향에 대한 전체 평균은 현상 유지의사를 밝힌 농가가 70%를 차지하였고 이는 가족노동력과 현재 재배면적이 거의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축소의사를 밝힌 농가는 20%로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주된 이유이고, 확대의사를 밝힌 농가는 겨우 10%로 나타났으며 이의 주된 이유는 여유있는 가족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함으로써 주로 임차경작지의 확대를 원하고 있음.

<표 3-20> 지역별 개별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의향

구 분 지 역	축 소		유 지		확 대		계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농가수
영 동 읍	8	21.1	20	52.6	10	26.3	38
황 간 면	4	11.1	32	88.9	-	-	36
학 산 면	8	30.8	18	69.2	-	-	26
계	20	20.0	70	70.0	10	10.0	100

나. 경작규모별 경영규모 확대(축소) 의향

<표 3-21> 경작규모별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의향

구 분 면 적	축 소		유 지		확 대		계
	농가수	비 중(%)	농가수	비 중(%)	농가수	비 중(%)	농가수
1,000평미만	2	33.3	4	66.7	-	-	6
1,000평~2,000평	-	-	16	80.0	4	20.0	20
2,000평~3,000평	12	31.6	22	57.9	4	10.5	38
3,000평~4,000평	-	-	18	90.0	2	10.0	20
4,000평 이상	6	37.5	10	62.5	-	-	16
계	20	100.0	70	70.0	10	10.0	100

○ 경작규모별 향후 경영규모의 확대 및 축소의사를 보면 우선 3,000평이상~4,000평미만층이 현재의 경영규모 유지의사가 90%로 가장 높았으며, 4,000평 이상층은 확대의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축소의사가 37.5%로 가장 높았음.

○ 향후 경영규모확대 의사가 가장 강한 집단은 1,000평이상~2,000평미만 층으로 20%에 이르고 있음.

○ 위 사실로 보아 영동지역의 가장 적정 경작규모는 3,000평이상~4,000평미만이라고 생각됨.

4. 비료사용 현황 및 농약 살포 횟수(1ha당)

가. 지역별 비료·농약 사용 현황

○ 조사농가의 1ha당 평균 전체 비료구입액은 1,265.2천원이며 그중 유기질 비료가 74.1%, 무기질비료가 20.5%, 미량원소가 5.4%를 차지하고 있음.

○ 연간 농가 살포횟수는 살균·살충제가 9.5회, 제초제 2.6회, 생장조절제 0.9회로 비교적 농약살포 횟수가 많음.

<표3-22> 지역별 비료·농약 사용 현황

구 분 지 역	비 료 구 입 금 액(천원)				농 약 살 포(횟수)		
	유기비료 (비중)	무기비료 (비중)	미량원소 (비중)		살균·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영 동 읍	995.3	213.8	47.2	1,256.3	9.3	3.3	1.0
	79.2	17.0	3.8	100.0			
황 간 면	929.6	280.7	64.9	1,275.2	9.1	2.2	0.5
	72.9	22.0	5.1	100.0			
학 산 면	796.4	315.4	38.8	1,210.2	10.2	2.1	1.3
	69.3	27.5	3.2	100.0			
평 균	937.3	259.5	68.4	1,265.2	9.5	2.6	0.9
	74.1	20.5	5.4	100.0			

나. 경작규모별 비료·농약 사용 현황

<표3-23> 경작규모별 비료·농약 사용현황

년 적	구 분	비료구입금액(천원)				농약살포(횟수)		
		유기비료 (비중)	무기비료 (비중)	미량원소 (비중)		살균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1,000평미만		1,436.4	269.9	27.9	1,734.2	6.0	1.0	-
		82.8	15.6	1.6	100.0			
1,000평~2,000평		852.5	268.9	60.7	1,177.1	10.1	3.4	0.8
		72.4	22.4	5.2	100.0			
2,000평~3,000평		754.5	213.5	87.2	1,055.2	9.6	2.7	0.9
		71.5	20.2	8.3	100.0			
3,000평~4,000평		1,001.1	231.7	61.4	1,294.2	9.5	2.9	1.2
		77.4	17.9	4.7	100.0			
4,000평 이상		818.9	179.7	55.5	1,054.1	9.5	1.8	1.0
		77.7	17.0	5.3	100.0			
평균		937.3	259.5	68.4	1,265.2	9.5	2.6	0.9
		74.1	20.5	5.4	100.0			

○ 경작규모별 1ha당 평균 비료구입액을 살펴보면 1,000평미만층의 비료구입액이 1,73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도 각각 1,437천원과 270천원으로 역시 가장 많았음.

○ 소규모 경작의 경우 비료 투하량 특히 유기질 비료의 투하량이 타 경작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多肥施用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실제 10a당 1,500kg 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임)로 소규모 경작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생각됨.

○ 반대로 4,000평이상의 대규모 영농층은 비료구입액이 1,054천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무기질 비료의 구입액은 180천원으로 타 경작규모에 비해 월등히 적었으며 이는 경작규모가 크므로 비교적 조방적인 小肥施用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가장 적은 10a당 927kg 으로 나타났음.

○ 경작규모별 농약 살포횟수를 보면 1,000평미만층의 경우가 살충·살균제

는 6회, 제초제는 1회 살포로 가장적었으며, 1,000평이상~2,000평미만층이 살충·살균제는 10.1회, 제초제는 3.4회로 가장 많았음. 그 외의 다른 경작규모층은 거의 평균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다. 경력별 비료·농약 사용 현황

- 경력별 1ha당 평균 비료구입액을 살펴보면 15년이상~20년미만층이 1,51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유기질 비료의 구입액은 1,179천원 이었음. 20년이상~25년미만층은 비료구입액이 1,148천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무기질 비료구입액은 322천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음.
- 경력별 농약살포횟수는 20년~25년층이 15.5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10년~15년층이 10.5회로 빈도가 가장 낮았음.

<표3-24> 경력별비료 및 농약사용현황

구분 경력 (이상~미만)	비료구입금액(천원)				농약투입(횟수)		
	유기비료 (비중)	무기비료 (비중)	미량원소 (비중)		살균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10년미만	961.5	175.8	72.6	1,210.0	9.9	2.5	0.5
	79.5	14.5	6.0	100.0			
10년~15년	874.5	220.6	80.6	1,175.7	8.2	1.5	0.8
	74.4	18.8	6.8	100.0			
15년~20년	1,179.3	284.6	49.5	1,513.4	8.2	3.0	1.5
	77.9	18.8	6.8	100.0			
20년~25년	769.8	321.8	56.2	1,147.8	11.6	3.2	0.7
	67.1	28.0	4.9	100.0			
25년이상	1,020.9	227.4	81.0	1,329.3	8.1	3.4	1.6
	76.8	17.1	6.1	100.0			
평균	937.3	259.5	68.4	1,265.2	9.5	2.6	0.9
	74.1	20.5	5.4	100.0			

5.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표 3-25> 조사농가의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보유농가수 (보유율)		유 지 비 (천원)	평균작업면적 (평)	작업일수
SS기	18	18%	342.2	4,400.0	18.4
분무기	54	54%	71.6	2,698.4	13.3
경운기	82	82%	273.1	3,516.0	132.8
관리기	78	78%	190.6	3,108.7	41.6
트럭(1톤)	36	36%	1,356.7	1,733.3	115.4

주: 농기계별 평균 마력수는 SS기-24.8마력, 경운기-10마력, 관리기-5.4마력

- 조사농가의 농기계보유율과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의보유율은 8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관리기 78%, 분무기 54%, 1톤 트럭 36%, SS기는 18%의 보유율을 보임. 연간 작업일수도 경운기가 133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트럭(115일), 관리기(42일), SS기(18일), 분무기(13일)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작업면적은 SS기가 4,400평으로 가장 넓었고, 연간 유지비(연료비 및 수리비)는 트럭의 경우가 1,357천원으로 가장 많았음.

6. 작업단계별 노동투입량

가. 지역별 노동 투입량

- 조사농가의 1ha당 평균 노동력은 253.8명(남자: 46.2%, 여자: 53.8%)으로 이를 작업단계별로 살펴보면 경운 및 비료주기가 9.9%, 전정·정지·방제 등이 46.2%, 수확·선별·포장 등이 46.2%로 구성되어 있음.

○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학산면의 경우 평균 노동력 투입량은 29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의 작업 단계별 구성비는 경운 및 비료주기가 5.2%, 전정·청지·방제등이 41.1%, 수확·선별·포장 등이 53.7%이며, 황간면의 경우에는 평균 노동력 투입량이 207.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작업단계별 구성비는 각각 13.6%, 49.7%, 36.7%로 나타났음. 작업단계별 노동량 투하 구성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26> 지역별 작업단계별 노동투입량(1ha당)

구분 지역	경운 및 비료주기			전정, 정지, 방제등			수확, 선별, 포장등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	여	
영동읍	16.5 (13.4)	11.8 (7.8)	28.3 (10.3)	58.4 (47.5)	72.1 (47.4)	130.5 (47.4)	48.2 (39.1)	68.2 (44.8)	116.4 (42.3)	122.8 (44.7)	152.1 (55.3)	274.9 (100.0)
황간면	16.4 (16.3)	11.8 (11.0)	28.2 (13.6)	51.4 (51.1)	51.9 (48.5)	103.3 (49.7)	32.8 (32.6)	43.5 (40.5)	76.3 (36.7)	100.6 (48.4)	107.3 (51.6)	207.9 (100.0)
학산면	10.5 (8.0)	4.6 (2.9)	15.1 (5.2)	60.1 (45.6)	58.1 (37.3)	118.2 (41.1)	61.1 (46.4)	93.2 (59.8)	154.3 (53.7)	131.7 (45.8)	155.8 (54.2)	297.5 (100.0)
평균	15.0 (12.8)	10.2 (7.4)	25.2 (9.9)	57.2 (48.8)	59.9 (43.9)	117.1 (46.2)	45.0 (38.4)	66.5 (48.7)	111.5 (46.2)	117.2 (46.2)	136.6 (53.8)	253.8 (100.0)

나. 경작규모별 노동투하량

○ 경작규모별 1ha당 노동투하량을 살펴보면 1,000평 이상~2,000평 미만 층이 306.8명으로 가장 많고 특히 전정, 정지, 방제 등의 작업단계에서 156.2명을 투입하여 이 단계의 작업에서 가장 적은 노동력(85.1명)을 투입한 4,000평 이상층 보다 1.8배 이상 투입하였음.

○ 1ha당 노동투하량이 가장 적은 4,000평 이상층은 전부 192.1명을 투입하여 평균의 76% 수준이었고 특히 전정, 정지, 방제 등의 작업단계(85.1명)와 수확선별포장단계(79.9명)가 다른 계층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음.

<표3-27> 경작규모별 작업단계별 노동투입량(1ha당)

구분 면적	경운 및 비료주기			전정,정지,적과,방제등			수확,선별,포장등			계		
	남자 (비중)	여자 (비중)		남자 (비중)	여자 (비중)		남자 (비중)	여자 (비중)		남 (비중)	여 (비중)	
1,000평 미만	16.4	2.2	18.6	70.4	80.7	151.1	80.7	67.3	148.0	133.4	150.2	283.6
	12.3	1.5	6.6	52.8	53.7	53.3	34.9	44.8	40.2	47.0	53.0	100.0
1,000평 ~ 2,000평	13.0	6.9	19.9	70.8	85.4	156.2	63.8	67.1	130.9	147.5	159.3	306.8
	8.8	4.3	6.5	48.0	53.6	50.9	43.2	42.1	42.6	48.1	51.9	100.0
2,000평 ~ 3,000평	12.4	6.9	19.3	74.1	62.3	136.4	45.5	70.1	115.6	132.8	139.3	271.3
	9.4	5.0	7.1	56.1	44.7	50.3	34.5	50.3	42.6	48.7	51.3	100.0
3,000평 ~ 4,000평	19.3	13.8	33.1	42.1	61.0	103.0	49.2	80.7	129.9	110.6	155.6	266.2
	17.4	8.9	12.4	38.1	39.2	38.8	44.5	51.9	48.8	41.6	58.4	100.0
4,000평 이상	14.8	12.4	27.2	42.5	42.6	85.1	31.7	48.2	79.9	88.9	103.2	192.1
	16.7	12.0	14.2	47.7	41.2	44.2	35.6	46.7	41.6	46.3	53.7	100.0
평균	15.0	10.2	25.2	57.2	59.9	117.1	45.0	66.5	111.5	117.2	136.6	253.8
	12.8	7.4	9.9	48.8	43.9	46.2	38.4	48.7	43.9	46.2	53.8	100.0

7. 품종별 출하현황

가. 지역별 출하현황

<표 3-28> 지역별 품종별 출하등급 비중

구분 지역	캠벨얼리					세레단				
	특	상	중	하		특	상	중	하	
영동읍	60.5	25.8	12.2	1.5	100.0	48.8	32.6	14.7	3.9	100.0
황간면	54.3	28.1	13.4	4.2	100.0	37.9	38.3	23.8	-	100.0
학산면	66.7	21.5	11.0	0.8	100.0	63.8	21.6	13.1	1.5	100.0
평균	59.5	26.0	12.0	2.5	100.0	53.5	29.0	15.8	1.7	100.0

○ 조사지역의 평균 수확품종별 출하등급은 우선 캬벨얼리의 경우 특, 상, 중, 하의 비율이 59.5%, 26.0%, 12.0%, 2.5%이고, 세레단의 경우는 각각 53.5%, 29.0%, 15.0%, 1.7%로 품종간 등급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가. 경작규모별 출하현황

<표3-29> 경작규모별 품종별 출하등급 비중

구분 면적	캬벨얼리					세리단				
	특	상	중	하		특	상	중	하	
1,000평미만	66.7	23.3	8.3	1.7	100.0	-	-	-	-	-
1,000평~2,000평	48.2	31.6	15.4	4.8	100.0	23.8	40.0	31.2	5.0	100.0
2,000평~3,000평	63.2	23.0	11.8	2.0	100.0	52.9	29.1	16.3	1.7	100.0
3,000평~4,000평	58.0	28.5	12.9	0.6	100.0	60.0	30.0	10.0	0	100.0
4,000평 이상	62.5	22.5	11.9	3.1	100.0	65.9	20.0	12.5	1.6	100.0
계	59.5	26.0	12.0	2.5	100.0	53.5	29.0	15.8	1.7	100.0

○ 캬벨얼리의 출하등급별 비중은 경작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1,000평이상~2,000평미만층은 특, 상, 중, 하의 비중이 각각 48.2%, 31.6%, 15.4%, 4.8%로 타 계층에 비하여 특의 비중이 낮고 상과 중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세레단의 경우도 역시 1,000평이상~2,000평미만층은 특, 상, 중, 하의 비중이 각각 23.8%, 40.0%, 31.2%, 5.0%로 역시 타계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특의 비중이 낮고 상과 중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10kg당 농가수취가격은 16,200으로 평균 수취가격의 87% 수준으로 계층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8. 저장 및 가공 현황

가. 지역별 저장 및 가공현황

<표 3-30> 조사농가의 지역별 저장 및 가공현황

구 분 지 역	저 장				가 공			
	농가 수	저 장 량 (kg)		저장비중 (저장량/ 저장농가 총생산량)	농가수	가공량 (kg)		가공비중 (가공량/ 가공농가 총생산량)
		캠벨얼리	세리단			캠벨얼리	세리단	
영 동 읍	2	1,500	14,000	22.4''	10	10,250	800	12.5
황 간 면	6	8,900	6,000	19.9	8	8,000	-	9.2
학 산 면	4	-	8,400	18.7	11	400	8,100	11.1
계	12	10,400	28,400	7.8	29	18,650	8,900	5.5''

주: 1) 한 농가의 저장포도는 자가생산이 아닌 별도 구입포도이므로 저장비중에서 제외함.

- 2)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저장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3)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가공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조사농가 저장현황을 살펴보면 총 생산량 500,400kg 중 저장량은 38,800kg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종별로는 저장성이 높은 세리단이 5.7%로 저장기간은 1~3개월이고, 저장성이 낮은 캠벨얼리는 2.1%를 차지하며 저장기간은 1개월 이내임.

○ 지역별 저장한 농가의 총생산량중 저장량의 비중은 영동읍이 22.4%이고 황간면과 학산면은 19~20% 정도였음. 저장시설은 주로 작목반이 설치한 저온 저장고나 개인 저온저장고 그리고 단위농협소유의 저온저장고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동지역의 개별농가 가공품은 주로 포도즙으로 영동군 농촌지도소가 1997년에 개별농가에 지원한 84대의 포도즙 가공 및 포장기 덕분에 전년도에 비하여 포도즙가공량이 급격히 늘어났음.

○ 조사농가 총 생산량 중에서 가공량은 27,550kg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 전국 평균 7%에 비하면 약간 낮은편임. 이를 지역별 저장한 농가의 총생산량중 저장량의 비중은 영동읍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황간면과 학산면은 각각 9.2%, 11.1%를 나타내고 있음.

○ 포도즙은 150ml를 비닐팩으로 포장하여 50개들이 1상자에 25,000원 ~ 30,000원을 받고있으며 판매처는 주로 친지 소개에 의한 폐쇄적 유통경로로 판매하고 있음. 포도의 품질을 공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나. 경작규모별 저장 및 가공현황

<표3-31>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저장 및 가공현황

구 분 면 적	저 장				가 공			
	농가수	저 장 량 (kg)		저장비중 (저장량/ 저장농가 총생산량)	농가수	가공량 (kg)		가공비중 (가공량/ 가공농가 총생산량)
		캠벨얼리	세리단			캠벨얼리	세리단	
0 ~ 1,000평	-	-	-	-	1	150	-	2.5
1,000평 ~ 2,000평	2	1,500	14,000	22.4 ¹⁾	5	4,730	800	18.6
2,000평 ~ 3,000평	4	1,500	5,400	14.1	11	5,120	6,100	11.7
3,000평 ~ 4,000평	3	6,400	4,000	38.5	5	4,600	-	9.2
4,000평 이상	3	1,000	5,000	11.1	7	4,050	2,000	5.9
계	12	10,400	28,400	7.8 ²⁾	29	18,650	8,900	5.5 ³⁾

주 1) 한 농가의 저장포도는 자가생산이 아닌 별도 구입포도이므로 저장비중에서 제외함.

2)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저장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3)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가공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경작규모별 저장현황을 보면 3,000평이상~4,000평미만층의 저장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단기저장 품종인 캠벨얼리의 저장량이 장기저장 품종인 세리단 보다 많아 전체 저장량의 62%를 차지 하였음. 또한 4,000평이상의 대규모 경영층은 저장율이 가장 낮은 11.1%를 나타냄.

○ 경작규모별 가공현황을 보면 1,000평이상~2,000평미만층의 가공비중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997년 화진현상으로 수확량 감소가 심하였으므로 생활비 충당을 위해 상품성이 없는 등급의 너슬포도를 포도즙으로 많이 가공한 것으로 생각됨.

다. 연령별 저장 및 가공현황

<표3-32> 조사농가의 연령별 저장 및 가공현황

구분 연령	저장				가공			
	농가수	저장량 (kg)		저장비중 (저장량/ 저장농가 총생산량)	농가수	가공량 (kg)		가공비중 (가공량/ 총생산량)
		캠벨얼리	세리단			캠벨얼리	세리단	
30이상~ 40미만	3	5,000	6,000	28.9	3	2,850	-	8.4
40이상~ 50미만	6	3,000	20,400	16.0 ¹⁾	15	8,450	4,300	7.4
50이상~ 60미만	1	1,400	-	12.7	6	3,750	3,300	17.8
60이상	2	1,000	2,000	9.1	5	2,600	1,300	7.1
계(평균)	12	10,400	28,400	7.8 ²⁾	29	18,650	8,900	5.5 ³⁾

주 1) 이 농가의 저장포도는 자가생산이 아닌 별도 구입포도이므로 저장비중에서 제외함.

2)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저장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3)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가공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연령별 저장현황을 보면 30세이상~40세미만의 젊은층의 저장비율이 28.9%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저장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령층별 경작규모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가공현황을 보면 50세이상~60세미만층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7.1%로 가공율이 가장 낮음.

라. 경력별 저장 및 가공현황

○ 경력별 저장과 가공현황을 보면 20년이상~25년미만층이 저장율과 가공율 모두 가장높은 31.1%와 11.2%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평균 경작규모가 비교적 크고 많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저장과 가공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라 생각됨.

<표3-33> 조사농가의 경력별 저장 및 가공현황

구분 경력 (이상~미만)	저장				가공			
	농가수	저장량 (kg)		저장비중 (저장량/ 저장농가 총생산량)	농가수	가공량 (kg)		가공비중 (가공량/ 가공농가 총생산량)
		캠벨얼리	세리단			캠벨얼리	세리단	
10년미만	3	6500	2000	30.4	6	650	2100	6.9
10년~15년	3	-	7400	16.1	8	4550	4000	9.5
15년~20년	3	1000	16000	8.2 ¹⁾	2	1600	-	10.0
20년~25년	3	2900	3000	31.1	10	6230	2800	11.2
25년이상	-	-	-	-	3	2620	-	8.5
계	12	10,400	28,400	7.8 ²⁾	29	18,650	8,900	5.5 ³⁾

주 1) 한 농가의 저장포도는 자가생산이 아닌 별도 구입포도(14000kg)이므로 저장비중에서 제외함.

2)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저장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3) 이 수치는 조사농가 총생산량 중 총가공량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9. 출하처별 출하현황

가. 지역별 출하처별 출하 비중

○ 영동군의 포도는 주로 서울지역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가락동, 구리시장)에 38.4%, 위탁도매상(영등포, 청량리 소재)에 49.6%, 기타 영동지역 위탁상과 직거래 등이 12.0%를 차지하고 있음. 즉 아직도 영동포도는 경매거래의 공영도매시장보다 수의거래의 위탁도매시장으로의 출하량이 많음.

<표 3-34> 조사농가의 지역별 출하처별 출하비중

구 분 지 역	출 하 처						
	위 탁 상			도매시장			기타
	영등포	청량리		가락동	구리		
영 동 읍	37.3	17.5	54.8	7.5	21.0	28.5	16.7
황 간 면	25.7	29.8	55.5	26.3	9.1	35.4	9.1
학 산 면	20.8	2.8	23.6	22.5	30.0	52.5	23.9
평균	30.6	19.0	49.6	19.5	18.9	38.4	12.0

나. 경작규모별 출하처별 출하 비중

○ 경작규모별 출하처 비중을 보면 경작규모가 작을수 공영도매시장과 서울의 유사도매상에 출하하는 비율이 낮고 직거래나 산지시장 판매 비중이 높음. 특히 1,000평 미만층은 직거래나 산지시장 판매가 전체 거래량의 1/2을 차지하고 있음.

<표 3-35>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출하처별 비중

구 분 면 적	출 하 처						
	위 탁 상			도매시장			기타
	영등포	청량리		가락동	구리		
1000평 미만	33.3	10.0	43.3	6.7	-	6.7	50.0
1000평~2000평	17.0	32.0	49.0	7.0	15.0	22.0	29.0
2000평~3000평	28.4	4.9	33.3	22.2	30.7	52.9	13.8
3000평~4000평	25.5	38.0	63.5	16.0	8.5	24.5	12.0
4000평 이상	42.3	8.0	50.3	30.0	7.9	37.9	11.8
계	30.6	19.0	49.6	19.5	18.9	38.4	12.0

10. 산지유통에서의 농협의 역할

<표3-36> 포도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

구 분	응답자수	비중(%)
영농자금조달	6	8.6
판 로 개 척	10	14.3
농산물 홍보	8	11.4
대금정산(개별정산)	23	37.1
공 동 구 매	12	17.2
정 보 제 공	4	5.7
기 타 ¹⁾	4	5.7
계	70	100.0

주 : 1) 기타 사항에는 가공사업 참여와 물량확보 등이 있음.

○ 조사농가가 응답한 포도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에서 계통 출하물량에 대한 작목반별 대금정산(개별정산)이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공동구매(17.2%), 판로개척(14.3%), 농산물 홍보(11.4%), 영농자금지원(8.6%), 정보제공과 기타가 각각 5.7% 로 나타났음.

○ 이는 농협이 아직도 산지유통에 있어서 수행할 부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며 농민의 신뢰를 더욱 받을수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11. 현재 진행중인 공동판매사업 부문

○ 조사농가의 공동판매사업 부문별 공동시행 비중을 보면, 공동포장상자 이용에 의한 작목반별 공동 상표이용은 100%에 달하고 있으며, 출하처 판매를 위한 작목반단위의 공동수송이 92%이나 계통출하에 의한 단협의 공동대금결제(작목반 개인별)는 28%, 작목반 소유의 저온저장고의 공동 저장은 22%에 지나지 않고 있음.

○ 특히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공동선별과 공동가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공판사업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표3-37> 공동판매사업 시행비중

구 분	농 가 수	공동시행비중(%)
선 별	-	-
포 장	-	-
공동상표이용	100	100.0
저 장	22	22.0
가 공	-	-
수 송	92	92.0
대 금 결 재	28	28.0

제 4 절 영동포도주산단지 생산자 조직실태

1. 생산자 조직 실태

<표 3-38> 생산조직별 일반 개황

구 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조직인원수(명)	60	32
조직년수(년)	16(2)	11
재배면적(ha)	60.7	23.3
호당재배면적(ha)	1.02	0.73
재배기술수준	상	중상

주1: ()은 영농조합법인 결성 년수임.

○ 영동군 내에는 162개의 작목반과 1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나 표본조사결과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직인원수(60명), 조직년수(16년), 재배면적(60.7ha), 호당재배면적(1.02ha)의 모든 면에서 작목반보다 대규모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생산조직 평균재배면적은 영농조합법인이 작목반보다 2배 이상 넓은 것을 알 수 있음. 재배기술 수준 역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가 작목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생산자조직별 포전거래 면적 및 가격

<표 3-39> 생산조직별 포전거래 현황

(단위: 평, 천원)

구 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평균경작면적(A)	182,100	74,100
포전거래면적(B)	19,167	5,940
포전거래액	178,833	74,937
평당포전거래액	9,330	12,616
B/A(%)	10.5	8.0

- 영농조합법인의 포전거래(입목선매) 면적은 19,167평으로 작목반의 5,940평보다 3배나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당 포전거래액은 영농조합법인이 9,330원, 작목반이 12,616원으로 작목반의 경우가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포전거래면적 비율은 호당 경지규모가 큰 영농조합법인이 10.5%로 작목반의 8.0%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3. 생산조직의 보유시설명 및 설치비 내역

<표3-40> 생산조직별 보유시설 및 설치비 내역

구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보유시설		집하장, 저온저장고, 농기계창고	집하장, 저온저장고
시설설치비(천원)		55,667	47,867
내역	정부보조	46.1%	66.6%
	정부유자	0	13.9%
	자부담	53.9%	19.5%
앞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 두 생산자 조직에 있어서 공동 보유시설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농기계창고 등이며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작목반에 비하여 대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시설설치 자금내역을 보면 작목반의 경우가 정부보조 비율이 높고(66.6%), 자부담의 비율(19.5%)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 조직이 앞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8월 15일부터 25일 사이의 홍수출하기에 저장함으로써 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동력 분산에도 효과가 있음.

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세레단과 같은 저장성이 높은 품종은 1~3개월 저장후 단경기에 출하하며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잇점도 있음.

4. 생산조직별 기금 및 운영비 현황

○ '97년 12월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기금은 52,000천원이며 작목반은 23,375천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의 45% 수준에 지나지 않음.

○ 기금형성 방법은 대개 공동출하시 출하 처로 부터의 환원수수료(0.5~2%)로 충당하나, 출자 및 연회비를 각출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연회비를 각출하는 생산조직은 아직 공동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포전거래나 직거래가 주된 판매형태를 이루는 곳이 많음.

○ 연간 운영비는 영조가 6,333천원,작목반이 2,734천원이나 이는 영조의 조직원 규모가 작목반의 거의 2배 이상에 달하므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표3-41> 생산조직별 기금조성 및 운영비 규모

구 분	영농조합법인	작 목 반
보유기금액(천원)	52,000(100%)	23,375(45.0%)
기금형성방법	출자 및 환원수수료	연회비,출자,환원수수료
연간운영비(천원)	6,333(100%)	2,734(43.2%)

5. 생산조직별 공동구매 비율

○ 영농조합과 작목반의 공동구매율을 보면 영농조합이 50.0%, 작목반이 61.0%로 작목반이 약간 높게 나타났음.

○ 공동구매액 중 농협공동 구매액의 비중도 역시 작목반이 62.6%로 영농조합의 2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영농조합은 비교적 조직 규모가 크므로 농협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공동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표3-42> 생산조직별 공동구매금액 및 비중

구 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총구매액(천원)(A) ¹⁾	144,438	56,296
공동구매액(천원)(B)	72,224	34,329
농협공동구매액(천원)(C)	19,574	21,483
(B/A)	50.0	61.0
(C/A)	13.6	38.2
(C/B)	27.1	62.6

주 1) 영동지역 조사 종가의 평당 평균 구매액을 산출하여 각 생산조직의 평균 면적에 곱하여 얻음.(평당 804원 구매)

6. 생산조직별 공동구매 품목비중

○ 영농조합법인(평균 경작규모 60.7ha)의 경우 총 72,224천원의 공동구매 농자재가 투입되었으며 1ha당으로는 1,190천원의 공동구매 농자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농자재중 비중이 높은 품목은 포장상자(46.5%), 봉지(37.1%)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작목반(평균경작규모 23.3ha)의 경우는 총 34,329천원의 공동구매 농자재가 투입되었으며 1ha당으로 1,473천원의 공동 농자재가 투입되어 영농조합법인의 1,190천원보다 23.8%포인트 많게 영농자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작목반은 호당 경작규모가 0.73ha로 영농조합법인의 1.02ha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표3-43> 생산조직별 공동구매 품목 및 비중

(단위:천원 %)

영농자재	영농조합 평균	1ha당	비중	작목반평균	1ha당	비중
포장상자	33,571	553	46.5	17,098	734	49.8
봉지	26,773	441	37.1	10,712	460	31.2
비닐	1,667	27	2.3	2,801	120	8.2
포장상장TAPE	888	15	1.2	284	12	0.8
결속기 TAPE,핀	495	8	0.7	407	17	1.2
비료	0	0	0	108	5	0.3
기타	8,830	145	12.2	2,919	125	8.5
계	72,224	1,990	100.0	34,329	1,473	100.0

7. 생산자조직별 공동판매방법

<표3-44> 생산조직별 공동판매 개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출하처 결정	영농조합총회	작목반 총회
출하시기	수확시기(8월말~10월말)	좌동
선별방법	개인선별	개인선별
수송방법	공동수송(470~700원/10kg)	공동수송(470~530원/10kg)
출하장려금융도	기금	기금,개인환원
출하장려금 분배율(농협:생산자단체)	10:90~50:50	10:90~50:50

○ 양 생산자 조직은 출하처 결정, 출하시기, 선별방법에 대하여 거의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송방법은 모두 공동수송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생산자 조직이 큰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으며 생산자조직이 적은 경우는 거의 농협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동→서울간 운임이 700원/10kg인 경우는 있으나 이는 부산, 광주 등의 원거리에 소량판매시 수송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 출하 장려금의 용도는 거의 기금으로 이용되나 조직이 아주 활성화되었거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조직에서는 개인에게 연회비를 각출하고 대신 출하 장려금을 환원해 주기도 함.

- 출하장려금의 농협과 출하조직과의 분배 비율은 10:90~50:50으로 이 역시 농협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농협 수수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8. 생산자조직별, 출하처별 물량·금액 및 점유율

- 영농조합법인의 출하시장별 점유율은 도매시장이 15.4%, 위탁상이 84.6%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위탁상 위주의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농조합 결성이전의 작목반 조직 때부터 위탁상 위주의 출하가 시작되어 이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결과이며,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단골거래로 위탁상의 10kg당 판매가격(21,691원)이 도매시장 판매가격(19,514원/10kg)보다 높고 비교적 전 출하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작목반의 출하처별 점유율과 10kg당 판매가격은 위탁상이 62.0%(19,965원), 도매시장이 27.7%(20,391원), 직거래 등 기타가 10.0%(20,402원), 산지공판장 0.3%(19,557원)순으로 되어 있음.

- 이중 도매시장 출하율이 영농조합법인보다 약간 높은 이유는 작목반의 경우 생산자 조직 결성년수가 영농조합보다 비교적 짧고 판매대금 정산 지연 혹은 미결제 등 위험부담률이 커서 출하처를 공영도매시장으

로 변경한 경우와 '97년 구리도매시장의 개장으로 기존 청량리 위탁상이 구리시장 도매법인의 임원으로 영입된 인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출하처를 도매시장으로 변경한 작목반이 많은 것으로 생각됨.

<표 3-45> 생산자조직별 출하처 및 비중

출 하 처		영 농 조 합	작 목 반
도매시장	①물량 (상자/10Kg)	5,938	4,841
	②금액 (천원)	115,869	98,724
	③10Kg당 가격(원)	19,514(91.5)	20,391(102.6)
	④점유율(%)	15.4	27.7
위탁상	①물량 (상자/10Kg)	32,659	10,814
	②금액 (천원)	708,401	215,897
	③10Kg당 가격(원)	21,691(101.7)	19,965(100.5)
	④점유율(%)	84.6	62.0
산지 공판장	①물량 (상자/10Kg)		47
	②금액 (천원)		914
	③10Kg당 가격(원)	-	19,557(98.4)
	④점유율(%)		0.3
직거래 등기타	①물량 (상자/10Kg)		1,743
	②금액 (천원)		35,557
	③10Kg당 가격(원)	-	20,402(102.7)
	④점유율(%)		10.0
계(평균)	①물량 (상자/10Kg)	38,597	17,445
	②금액 (천원)	824,270	346,675
	③10Kg당 가격(원)	21,332(100)	19,872(100)

○ 또한 도매시장 판매가격이 위탁상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목반의 거래가 위탁상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위탁상과의 단골 거래의 관행과 상품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인 것으로 생각됨.

9. 생산자조직별 앞으로 필요한 정보와 출하개선 방안

<표3-46> 생산자조직별 필요 정보와 출하개선 의향

구 분	영농조합법인	작 목 반
필요한 기술정보	신품종재배, 화진예방	화진예방, 병충해방제
필요한 유통 정보	PC이용 출하가격파악	출하차별 출하가격
영농교육	지도소, 농협, 포도작목회가 연 3~4회 실시	좌동(효과높음)
향후 출하처다원화 계획	전국도매시장 및 유통업자와 직거래	공영도매시장 확대 및 현상유지

○ 영농조합법인의 향후 필요한 기술정보로는 신품종 재배기술을 우선 들고 있으며, 그 다음이 화진 예방이다. 이는 작목반에서도 거의 같은 추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신기술 습득에 대하여 더욱 진취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유통정보로는 전국 출하차별 경락가격인데 영농조합법인은 PC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즉각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반면 작목반은 거래처나 농협으로부터의 FAX에 의존하려고 함.

○ 현재 실시중인 영농교육(농협, 지도소, 포도작목회 주관)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비교적 생산기술이 발달된 조직의 경우 영농교육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생산자 조직의 기술과 의식 수준에 맞는 영농교육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앞으로 출하처 다원화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 확대를 지적하였으나 작목반은 현상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공영도매시장 출하의 경우 타 산지의 포도에 비하여 상품성이

낮아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작목반의 경우는 더욱 도매시장 출하를 꺼리고 있음. 이는 소비 유통단계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응 방법을 영농교육을 통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10. 생산자 조직별 가공 현황

<표3-47> 생산자 조직별 가공현황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가공량(kg)	30,110	25,680
상과판매가격(10kg)	7,000~8,000	4,000~10,000원
포장운송비(10kg)	3,000~4,000	3,500원
가공후 판매가격(10kg)	25,000~30,000원	좌동
가공이윤(10kg)	12,500~15,000원	8,200~21,000원
총부가가치액(천원)	65,715천원	56,290천원
평균총생산량(kg)	368,880	115,599
가공비율	8.2%	22.2%

○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의 총생산량(발떼기 제외)중 포도주스 가공비율은 각각 8.2%, 22.2%로 작목반의 경우가 훨씬 높았음. 가공원료는 상품성이 없는 너슬포도가 원료이며 영농조합법인보다 작목반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너슬포도 생산량이 많았음을 의미함.

○ 특히 '97년 포도생산에 있어서 화진피해가 50% 이상 발생하여 예년에 비하여 너슬포도의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영동군지도소가 농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가용 포도즙 가공기를 84대 보급하여 영동군 포도경영 개별농가 단위의 포도즙 가공이 전년에 비하여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규모 경영농가의 경우 화진피해로 인한 농업소득감소분을 포도즙가공으로 만회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생과판매가격(10kg)은 대개 4,000~10,000원 사이이며 10kg당 가공비용은 대체로 5,000~8,000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750원의 아주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집에서 포도즙을 증탕한 것을 팩으로 포장하여 주는 포장비용만을 받은 경우임.
- 가공후 판매가격은 대체로 25,000~30,000원/50팩(1팩당150ml) 수준이며 택배 우송시는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 조직당 총 부가가치액은 영조와 작목반이 각각 65,715천원과 56,290천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작목반에서 매우 큰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 가공 포도주스는 판로가 폐쇄적으로 친인척 소개로 판매되고 있으나 '97년도 생산량이 과다하여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앞으로 개별 농가에서 가공한 포도즙의 품질을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아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해야할 것임.

11. 영동군 단위 농협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현황

가. 공동자재구매현황

<표3-48> 단위농협별 공동구매 현황

(단위: 백만원)

단협명	포장상자(매)	금액	비료(톤)	금액	비닐(톤)	금액	봉지(매)	금액	총구매액
영동	929,200	622	2,743	426	625	72	19,569,000	271	1,391
용산	12,000	90	7	1	1	3	2,000,000	30	124
심천	254,597	186	-	-	-	-	13,503,000	216	402
학산	447,140	331	1,000	460	4,320	256	800,000	12	1,059
양산	-	-	-	-	-	-	-	-	-
항간	407,000	278	510	16	-	-	-	-	294
추풍령	254,597	186	-	-	-	-	13,503,000	216	402
상촌	215,400	182	143	16	369	18	4,538,000	78	294
계	2,519,934	1,875	4,403	919	5,513	349	53,913,000	78	3,966

○ 1997년도 영동군내 8개 단위농협의 포도작목에 대한 총 차재공동구입액은 39억 6,600백만원이고, 단위조합별로는 영동단협이 13억 9,100백만원으로 전체의 35%로 1위이며 학산단협이 26.7%, 추풍령단협과 심천단협이 10.1%, 황간단협과 상촌단협이 7.4%의 순으로 나타남.

○ 공동구매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포장상자가 18억 7,500백만원으로 전체의 4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비료(23.2%), 봉지(20.8%), 비닐(8%)의 순으로 나타났음.

나. 공동판매현황

<표3-49> 단위농협별 출하처별 공동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단협명	농협(공판장)		도매시장(유사포함)		직거래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영 동	180	269	5,990	9,000			6,170	9,269
용 산	73	115	173	272			246	387
심 천	37	66	404	854			441	920
학 산	452	996	2,758	6,088	240	528	3,450	7,612
황 간	57	114	1,489	1,707	1,090	2,329	2,636	4,150
추풍령	22	41	1,566	2,658			1,588	2,699
계	821	1,601	12,380	20,579	1,330	2,857	14,531	25,037
(비중)	5.6	6.4	85.2	82.2	9.2	11.4	100	100

○ 1997년도 영동군 포도생산량중 시장판매량은 약 23,996톤으로 추정되므로 영동군 6개 단위농협의 계통출하(공동판매)량은 14,531톤으로 약 53%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단위농협별 공동판매량의 비중은 영동단협이 45.2%로 최고이며 학산단협이 23.7%, 황간단협이 18.1%, 추풍령단협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출하처별 공동판매량(계통출하량)은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포함)이 85.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직거래가 9.2%, 그리고 농협공판장은 5.6%로 가장 적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

- 특히 단위농협의 도매시장 출하량중 유사도매시장 출하량이 74%, 공영도매시장이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공동판매량중 유사도매시장 출하량의 비중이 63%나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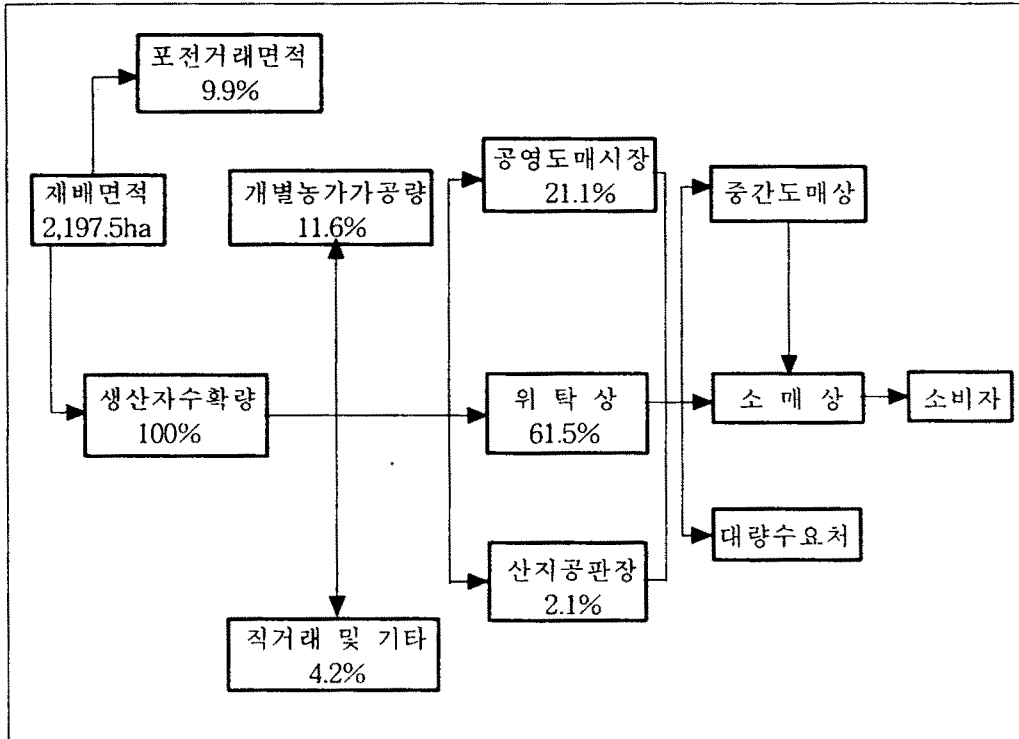
제 5 절 포도의 유통실태

1. 영동포도의 유통경로

- 영동군포도의 1997년도 재배면적은 2,197.5ha이고 생산량은 30,128톤으로 10a당 수확량은 1,371kg임. 재배면적의 약 9.9%는 임목선매로 산지수집상에게 팔리고 있으며, 생산자 수확량은 27,145톤으로 추정됨.

- 생산자 수확량의 11.6%는 개별 농가 단위로 포도즙을 가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88.4%는 시장판매하고 있음. 시장판매처의 주종은 위탁도매상(유사도매시장)으로 생산자 수확량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영도매시장으로 21.6%, 그리고 산지공판장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직거래 및 기타거래의 비중도 4.2%에 이르고 있음.

<그림 3-1 > 영동포도의 유통경로도



2. 도매시장별 판매비용 및 농가수취가격 비교

<표3-50> 도매시장별 출하자 수취가격 및 판매비용

(단위: 원, %)

구분		가 락 동 도매시장	구 리 도매시장	청 량 리 위탁도매상
평균판매가격		19,500	19,500	20,900
판매 경비	운송비	500	500	500
	수수료	(5%) 975	(7%) 1365	(8%) 1,672
	하역비	160	0	180
	소계	1,635	1,865	2,352
출하자수취가격		17,865	17,635	18,548
환원수수료		0.75%	0.75%	2%

- 가락동 도매시장의 평균 판매가격은 19,500원으로 추정되며 상장경매수수료가 5%, 10kg 1상자당 하역비가 160원, 수송비(영동→서울)가 500원으로 총 판매비용은 1,635원(판매가격의 8.4%)이므로 출하자 수취가격은 17,865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 구리도매시장의 평균 판매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은 19,500원 수준이며 상장경매 수수료가 7%인 반면 하역비는 도매법인 부담으로 되어 있고, 수송비(영동→구리)도 역시 500원으로 총 판매비용은 1,865원(판매가격의 9.6%)이 되어 출하자 수취가격은 17,635원으로 추정되어 가락동시장보다 출하자 수취가격이 10kg 1상자당 230원이 낮음.

- 영등포와 청량리 위탁도매상의 평균 판매가격은 20,900원으로 위의 두 도매시장보다 1,400원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상장경매수수료가 8%, 10kg 1상자당 하역비가 180원, 수송비(영동→서울)가 500원으로 총 판매비용은 2,352원(판매가격의 11.3%)으로 공영도매시장보다는 높지만 출하자 수취가격은 18,548원으로 추정되어 공영도매시장보다 출하자 수취가격이 10kg 1상자당 683원~913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동포도에 비해 선별과 포장이 우수한 상주의 모동포도와 인천의 대부도 포도의 경우 도매시장의 평균판매가격이 25,000원/10kg 정도이며, 이는 영동포도 보다 5,000원/10kg정도 높은 가격임.

- 앞으로 영동포도가 다른지역의 우수한 포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별과 개방형포장에 중점을 두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가락동도매시장의 포도 반입량 및 가격동향(1997년)

가. 월별 포도반입량 및 가격동향

- 1997년도 가락동 도매시장의 포도반입량은 총 28,794톤으로 전국생산량 393,195톤의 7.3%로 타작물의 반입비율보다 비교적 낮음.

○ 월별로는 9월이 39.3%로 가장 반입량이 많고 다음이 8월(27.3%), 10월(20.4%)의 순이며, 이 3개월간의 반입율은 총 반입량의 87%에 달함. 그 외 4월의 반입율이 2.1%로 비교적 높는데 이는 수입포도의 반입량이 많기 때문임.

<표3-51> 가락동도매시장의 월별 반입량 구성비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반입량 (톤)	106	74	301	611	459	424	1,095	7,875	11,304	5,876	480	189	28,794
구성비 (%)	0.4	0.3	1.0	2.1	1.6	1.5	3.8	27.3	39.3	20.4	1.7	0.7	100

자료 :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97년 농축산물거래동향연보」

○ 월별 생산도별 출하순위를 보면 경북이 7월부터 12월까지 항상 1위로 45~70%로 타 도에 비해 매우 높은 반입율을 나타내며, 2위는 월별로 다르나 충북이 10월~12월까지 10~25%의 반입율을 보이고 있음.

<표3-52> 가락동도매시장의 월별 출하순위(도별)

월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위	경북 45	경북 61	경북 54	경북 56	경북 70	경북 61
2위	서울 16	대구 15	충남 20	충북 25	충북 10	충북 10
3위	대전 14	충남 8	충북 13	충남 7		

자료 : 상계서

○ 1997년도 순별 등급별 10kg당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특등급의 경우는 8월 하순이 최저가격(24,313원)이었으나 上·中·下등급은 반입량이 가장 많은 9월 중순이 각각 17,100원, 11,300원, 7,700원으로 최저가격을 나타냈음.

<표3-53> 가락동도매시장의 순별 가격동향

(단위: 원/10kg)

구분 월	등급				
	특	상	중	하	
8월	상순	25,000	18,375	13,438	9,063
	중순	24,313	18,688	13,500	9,000
	하순	26,389	20,833	15,556	10,889
9월	상순	28,389	19,778	14,500	10,333
	중순	27,300	17,100	11,300	7,700
	하순	25,060	17,563	12,688	8,625
10월	상순	29,938	24,250	18,500	13,750
	중순	27,875	21,500	16,188	12,313
	하순	32,400	26,000	17,100	12,700

자료 : 상계서

○ 연도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평균가격은 1992년의 31,23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해인 1993년은 17,912원으로 가장 낮았음. 199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7년의 평균가격은 26,211원임. 최고가격은 1993년이 가장 낮은 18,775원이었고 1997년이 1992년(42,500원)보다 약간 높은 43,500원을 기록하였음. 최고가격과 최저가격과의 가격진폭은 1997년이 가장 높은 139.6이었고 1995년은 11.4로 가장 낮았고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2,279원)가 거의 없이 등급별 가격이 평준화되었음.

<표 3-54> 가락동도매시장의 연도별 가격동향

(단위: 원/10kg)

구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최고가	43,500	27,393	22,300	30,592	18,775	42,500	29,711
최저가	18,364	14,455	20,021	25,000	16,280	25,087	14,000
평균가	26,211	22,162	20,922	27,976	17,912	31,233	20,089
진폭율	136.9	89.5	11.4	23.8	15.3	69.4	112.2
최고-최저	25,136	12,938	2,279	5,952	2,495	17,413	5,711

자료 : 상계서

- S청과법인의 분산처별 분산비율을 보면 백화점이 35%로 가장 높고, 할인매장과 납품이 15%, 소매상(슈퍼 포함)이 30%, 차량판매가 10%, 자체소매가 10%로 나타났음. 이는 비교적 타 도매법인에 비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4. 가락동 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에서 영동포도의 평가

- 영동포도는 기후와 토양이 포도재배에 적지이기 때문에 포도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송이가 단단하여 좋은 상품으로 취급됨. 1980년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포도로 인정받았으나 그 후 타 지역에 비해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및 공정한 선별 등을 게을리하였으며, 또한 포도나무의 고령화로 품질이 떨어져 현재에는 전국의 중간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영동포도는 아직도 포전거래가 전 재배면적의 약 10%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포전거래시 산지수집상에게 영동 포도 상표가 인쇄된 포장상자도 함께 판매하므로 수집상이 이를 이용할 때 속박이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영동포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영동포도라벨의 포장 상자가 외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캠벨얼리는 환상박피 등으로 조기출하하는 경우 신맛이 강하여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영동포도의 인식을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적기에 완숙된 포도를 수확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동포도는 생산자의 기술이 비교적 평준화 되어있으나 포장 및 선별이 영천이나 상주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으므로 이들 지역보다 경락가격이 10kg 1상자당 5,000원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음. 특히 영동의 포장

상자는 밀폐형으로 중도매인이 경매 시작 전의 확인 작업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며 속박이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포장상자가 3단 쌓기이므로 가장 아랫단의 포도송이가 수송과 상하차 작업도중에 심하게 상하여 상품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므로 앞으로 중도매인과 소매상이 선호하는 개방형 2단 쌓기 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IMF시대에 자원절약과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포장단위는 10kg 골판지 상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소비자의 1회 구매량이 소량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포장(2kg이나 4kg)을 개발하여 포장한 후 10~12kg들이 상자로 다시 포장하여 출하하는 것도 바람직함.

- 중도매인들의 영동포도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구매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상표로 인식 되어 있음. 이 이유는 속박이가 아직도 있으며 선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포도의 경우 등급별 정확한 선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특과 上등급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영동포도는 청량리와 영동포 등지의 위탁상출하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 위탁상에게 과다한 물량이 출하될 경우 위탁상이 재선별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영동포도가 비교적 下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

- 가락동도매시장의 S청과법인의 주산지별 포도 반입율은 대략 영천과 상주가 각각 30%, 영동이 10%, 기타 지역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영동포도 생산자의 상품성향상을 위한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며 10년 전의 출하방식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음. 전국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의욕과 자긍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영동포도 생산자들은 가끔 도매시장에 나와 자신들이 생산한 포도가 어떤 평가를 받고있는지 중도매인과 소매상의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출하에 앞서 도매시장 관계자 및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 초청품평회를 개최하여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촉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5. 영동포. 위탁도매상의 영동포도 평가

- 영동포도는 기후 및 토성등 자연환경 여건이 포도재배에 유리하여 당도가 높고, 알이 굵어 좋은 상품성을 지니고 있음.
- 영동포도의 점유비가 60~70%로 매우 높으며 주품종은 캠벨얼리이나 만생종인 세레단도 영동포도를 대표하는 품종임.
- 개별 위탁도매상은 산지에 선대자금을 살포하지 않으나 성출하 기간(대개 2개월)동안 판매대금 정산보증금의 성격을 띤 1,000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단협에 예치하고 있음.
- 주된 수송수단은 5톤 트럭으로 트럭 1대당 보통 10kg상자 700상자를 적재하여 수송하고 있으나, 트럭당 보통 10여명의 분의 포도가 실려서 반입되고 있음.
- 위탁수수료는 보통 판매액의 8%이며 이중 2%는 생산자단체에게 환원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하차비는 10kg 1상자에 180원~200원을 받고 있음.
- 위탁도매상은 시장내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을 대상으로 오전 4~5시경에 주판식 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세결정은 물량의 수급에 의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리시장이나 가락동시장의 경매가 끝난 후 이들 시장의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1상자당 1천원 정도를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영동포도의 1997년도 평균 판매가격은 10kg 1상자당 20,000원이며, 이는 선별이 비교적 잘된 상주포도의 25,000원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므로 앞으로 선별 및 등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위탁도매상 1인당 1일 평균 취급량은 700~800상자 정도로 위탁수수료 수입은 84만원~96만원 정도로 추정됨.
- 위탁도매상의 분산처별 비중은 중간도매상이 30%, 소매상 30%, 차량판매자 20%, 시장내 좌판 10%, 기타 10%로 추정되고 있음.

제 6 절 주산단지 내 가공공장 실태

UR 협상과 WTO체제 출범을 맞이하여 농어촌 생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영동지역에도 포도가공공장 3곳이 1993년~1996년사이에 설립되었음.

1. 가공업체별 생산현황

<표 3-55> 조사지역의 가공업체 생산현황

	A업체	B업체	C업체
생산품목	포도시럽 통조림 포도즙	포도식초	포도쥬스, 잼 포도쥬스, 살구잼
정부지원사업명	산지일반가공 (생산자 단체)	전통식품개발 (농어가공동)	전통식품개발 (농어가공동)
생산량(톤)	132톤	10톤	포도·모과쥬스 14000ℓ
판매량(톤)		1톤	포도·살구잼 6.6톤
판매량(천원)	209,000	20,000	150,000

영동군 포도가공업체 3개소는 각각 다른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A와 B업체는 최근에 가동하여 아직까지 생산과 판매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C업체만이 4년 전에 가동하기 시작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C업체는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이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무농약 생산 포도로 잼과 주스를 만들어 유기농산물 유통채널인 한살림과 기타 단체를 통하여 전량 판매하고 있음.

2. 가공업체별 시설 현황

<표 3-56> 가공업체별 시설현황

(단위: 평)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평균
부 지	858	870	400	709
건 평	242	270	120	211

영동군 포도가공업체의 평균 부지는 709평이며 건평은 211평으로 나타났음. A업체와 B업체의 시설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C업체가 다른 두업체의 절반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음.

3. 가공업체별 사업비 내역

<표 3-57> 가공업체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평균
정부지원	771,000 (47.5)	90,000 (29.6)	60,000 (46.9)	307,000 (49.8)
용 자	463,000 (28.5)	54,000 (17.8)	36,000 (28.1)	184,330 (26.9)
자 부 담	389,000 (24.0)	160,000 (52.6)	32,000 (25.0)	193,670 (28.3)
총 액	1623,000	304,000	128,000	685,000

가공업체별 사업비는 가공공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B업체의 경우는 정부지원 비중이 29.6%로 가장 낮고 융자도 17.8%에 지나지 않으며 자부담의 비중이 52.6%로 다른 두개 업체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4. 가공업체별 자산현황

<표 3-58> 가공업체별 자산현황

(단위: 천원)

	A업체	B업체	C업체	평균
총 자산(A)	1,800,000	400,000	190,000	796,670
자기자본(B)	800,000	200,000	100,000	366,670
고정자산(C)	1,500,000	300,000	50,000	616,670
(B/A)	44.4%	50%	52.6%	46.0%
(C/A)	83.3%	75%	26.3%	77.4%

- 총자산은 A업체가 18억원으로 가장 많고 C업체가 가장 낮은 1억9천만 원이며, 3개업체 평균은 약 8억 정도임.
- 자기자본율은 C업체가 52.6%로 가장 높고 A업체가 4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개업체 평균은 46.0%임.
- 고정자산비율은 A업체가 83.3% B업체가 75%, C업체가 26.3% 순서로 나타났으며, 3개업체 평균은 77.4%임.

5. 가공업체별 매출액 및 원료구입비

A업체의 10kg당 원료 구입액은 4,120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C업체의 경우는 16,000원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유기재배한 포도를 계약재배하여 수매하므로 생산농가(영농조합회원)에게 생산비 보상차원에서 전량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중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임.

<표 3-59> 가공업체별 매출액 및 원료구입액 (단위: 천원)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매 출 액	209,000	20,000	150,000
원 료 구입비	321,994,5	70,000,000	40,000
원료구입량(kg)	781,760	70,000	25,000
10kg당 구입액(원)	4,120원	10,000원	16,000원

6. 가공업체별 원료 구입처별 비중

<표3-60> 가공업체별 원료구입 현황 (단위: %)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원료구입처			
농 가	33	80	100 ¹⁾
상 인	33	20	
농 협	33		
원료구입의 어려움정도	아주쉬움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가공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원료구입인데 영동군 가공업체의 경우는 3곳 모두 원료 구입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업체가 원료구입(유기농산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7명)과 전량 계약재배로 안정된 원료구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7. 가공업체별 연평균 가동일수 및 생산자 임금

<표 3-61> 연평균 가동일수 및 생산자 임금현황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평균
연평균가동일수	90	100	180	123
생산자 임금(여)/1인	25,000	20,000원 ~30,000원	25,000원 ~ 30,000원	

○ 연평균 가동 일수는 C업체가 가장 많은 180일이었으며 생산자 임금도 다른 두 업체보다 높은 25,000원~30,000원 수준이었음. 특히 C업체의 생산자는 주로 영농조합법인 구성원으로 포도 생산재배가 끝난 후 가공공장에 취업함으로써 겸업소득을 올리고 있음.

8. 가공업체별 판매방법과 판매시 어려운 점

<표 3-62> 가공업체별 판매 현황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판매처별 방법	동원식품OEM 납품(630원/1캔) - 100%	지역행사: 50% 바 자 회: 30% 지역소매: 20%	서울한살림: 50% 기 타: 50% (전국한살림, YWCA, 우리농촌살리기본부, 정농회, 농미촌)
판 매 시 어려운점	판매망 전무 상품인지도 부족 OEM생산 - 부가가치 적음	상품인지도 부족 판매수수료 과다 물류비용과다	물류비용과다 일괄판매 -의상회수 어려움

○ 판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B업체로서 주로 부정기적인 지역행사(직거래, 바자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널리 되지않았다는 점이 판매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지역 가공업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향토 농산물을 선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가공업체 자신이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함.

○ 비교적 규모가 작은 B업체와 C업체는 소규모 유통에 의한 물류 비용과다가 판매시 애로 사항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물류 관리로 물류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C업체의 생산품은 영동군 특산의 가공식품으로 널리 홍보하고 영동군 포도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영동군내 및 충북도내에 우수 점포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7 절 영동포도의 수출잠재력

1. 수출현황과 문제점

<표3- 63> 한국포도 수출현황 (가공품 포함) (단위 : kg, %)

년 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총 수출량	849,164	670,058	458,030	561,502
일본 수출량	371,786	327,443	278,974	385,272
(비중)	44	49	61	69

○ 한국의 포도수출품은 주로 건조 및 조제품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1997년의 수출량은 561,502kg으로 1994년(849,164kg)에 비해 무려 34% 포인트 감소하였음. 그러나 1997년의 일본수출량(385,272kg)은 1994년과 거의 비슷하며,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의 44%에서 1997년에는 69%로 증가 하였음.

1994년의 생과 수출량은 2,400kg이며 이는 전체수출량의 약 0.3%로 생과 수출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995년부터 생과의 수입이 미국과 칠레로부터 급격히 증가 하였고, 반대로 생과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단편적인 예로 생과의 일본 수출량은 1994년에 1톤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1995년에는 전혀 수출하지 못하였음.

○ 영동포도는 주 품종이 캠벨얼리(62%)와 세레단(33%)이므로 이 두가지 품종의 점유율이 무려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정 품종에 치우쳐 재배하고 있음.

○ 캠벨얼리는 한국에서 재배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표적인 조생종이나 당도가 낮아 일본인의 기호에 맞지 않고 수확시기가 7월 중순경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품종인 델라웨어와 경합되어 수출이 어려움.

○ 세레단은 원래 양조용이나 만생종으로 저장성이 강하고 당도가 높아 (보통 18Bx) 한국에서는 생식용으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으나 일본인들의 기호에는 당도가 낮고 질긴맛이 있어 수출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대일본 수출가능성 타진

1) 일본의 포도 생산현황

<표3-64> 일본의 포도산업현황

(단위: ha, M/T)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재배면적	22,500	21,900	21,400
생산량	250,300	243,900	250,900

○ 일본의 포도 생산량은 약 250,000톤정도이며 그중 델라웨어, 거봉, 캠벨얼리가 전체 생산량의 60~65%를 차지하며 최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998년은 전년대비 재배면적은 2%정도 감소하고 생산량은 3~1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1997년 일본의 포도 생과 수입량은 7,351톤이고 주로 칠레와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총생산량의 3%정도에 지나지 않음. 또한 건포도 수입량은 27,971톤으로 주 수입국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터키 등임.

2) 일본의 포도시장 파악

○ 주로 유통되는 품종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델라웨어, 거봉, 캠벨얼리등이며 선물용으로는 네오마스컷과 알렉산드리아 등이 인기가 있음.

○ 슈퍼마켓에서 판매형태는 거봉, 네오마스컷트, 알렉산드리아는 500g 또는 1kg 포장이 일반적이며 델라웨어, 캠벨얼리 등은 벌크상태로 쇼케이스에 진열 판매하는 경향이 많음.

○ 대일 수출시 유의사항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본에 델라웨어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 품종의 다원화가 필요함. 특히 네오마스컷트와 알렉산드리아 등 고가품의 수출에 심혈을 기울여야함. 또한 슈퍼마켓에서 바로 진열할 수 있도록 300~400g용 소포장의 개발이 시급함.

○ 일본에서의 한국포도에 대한 평가는 포도 알맹이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착색이 불량하며, 알맹이의 밀착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 소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구매자가 선호하지 않는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시장을 겨냥해서 포도수출을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여야 함.

제 4 장 영동포도 주산지 기술 및 경제적 특성과 제문제

제 1 절 재배기술상의 특징

1. 적합한 재배환경과 높은 집중도

- 영동지역은 준산간지대로 대부분 100~300m의 표고에 80%이상 분포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벼재배가 불리하여 일찍부터 과수재배가 발달하였음.
- 영동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11.5℃이며, 4~5월의 평균기온이 13℃이고 7~8월의 평균 기온이 24.8℃로 포도재배의 적지임. 또한 일교차가 연평균 10~15℃로 포도의 성숙기에 당도 및 색택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97년 영동포도주산지는 과수재배면적 중 포도가 50% 이상이며 전국 재배면적의 7.8%, 생산량의 9.5%, 10a당 수량도 전국 평균보다 22%가 높고 특화계수도 18.5(1995년)로 전국 2위 수준임.

2. 포도의 품종과 육종

- 1997년 영동군 포도재배면적 2,718ha 중 신품종이 2%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1995년부터 신품종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품종의 대목으로는 5C, 5BB, 3309 등을 확보 육성하고 있으며 삽수로는 블랙 올림피아, 하니블랙, 자옥, 고처, 고목, 등임(후지미노리), 갑비로(가이지) 등을 옥천시설포도시험장과 연계하여 선발 보급하고 있음.

3. 재배 기술

- 영동포도의 수형은 개량웨이크만형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에 매우 편리하고, 포도잎의 수광율이 높은 장점이 있음.
- 정지·전정 등은 주로 기존 품종재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품종의 경우 신품종의 특성에 맞는 정지·전정기술이 낮은 수준임.
- 영동지역의 경우 표준시비량의 2~3배의 과다시비로 화진, 미량원소 결핍증 등 생리적 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
- 유기질 비료의 과다 사용 특히, 돈분·계분·우분과 시판용 유기질 비료의 사용은 질소과다 투입의 역효과가 나타나므로 벼짚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제초제 무사용과 살균·살충제 감소효과가 있으며 천연유기물 생산이 가능한 호맥재배가 농촌지도소의 지도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포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농업 차원에서 작목반 및 개별 생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제 2 절 경영상의 특징

1. 농가개황

- 조사농가의 포도재배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1.1세이고 호당재배면적은 약 1ha정도로 영동군 평균 재배면적(0.46ha)의 2배 크기이며, 경영주의 평균수학년수는 8.9년으로 중학교 졸업 수준이었음.
- 재식시기별 재배면적 구성비는 1970년대와 1980년대가 각각 14.7%, 31.5%였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 53.8%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경지규모와 경영주와의 연령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1,000평미만의 경우가 64.3세인 반면 4,000평 이상의 경우는 44.0세이었음.
- 포도재배농가 경영주의 재배경력은 평균 15.5년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으며 전국수준에 비하여 비교적 재배경력이 많았음.

2. 농가경영상 특징

- 10a당 노동투하량은 조사농가 평균이 253.8시간이었으며, 이는 1997년 전국평균 297.5 시간의 85.3%수준으로 노동절약적인 포도재배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10a당 노동투하량은 재배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조사농가의 경우, 1,000평미만이 283.6시간, 1,000평 ~ 2,000평이 306.8시간, 2,000평 ~ 3,000평이 271.3시간, 3,000평 ~ 4,000평이 266.2시간, 4,000평이상인 192.1시간으로 비교적 규모가 클수록 단위면적당 노동투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인은 경영주가 젊을수록 재배면적이 크며, 농기계 보유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1997년 포도 1상자(10kg)당 평균 농가판매가격은 19,400원 수준이었으며 지역별로는 황간이 20,100원, 학산이 19,100원, 영동읍이 18,600원 수준이었음.

이는 1997년 9월 상순의 가락동 도매시장가격(상품) 19,778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농가의 10a당 평균조수입은 1,992천원이고 소득은 1,582천원(소득률 79.4%)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 10a당 전국평균은 조수입이 3,655천원, 소득은 2,861천원(소득율 78.3%)이었음. 이는 1997년 영동지역 포도에 심한 화진현상이 발생하여 수확율이 전체의 60%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농가의 소득은 1997년 전국평균의 55.3%수준에 그치고 있음.

○ 조사농가의 1997년 평균 가계비는 13,322천원으로 전국평균17,045천원의 78%수준으로 비교적 알뜰한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 생각됨.

○ 조사농가의 10a당 평균비료구입액은 27,180원이며 그 중 무기질비료가 7,040원, 유기질비료가 21,014원을 차지하고 있음.

1997년 10a당 전국평균 비료구입액은 무기질비료가 41,167원, 유기질비료가 75,415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역시 조사지역의 화진피해로 비료사용이 적었다고 생각됨.

그러나, 조사농가의 비료사용수준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무기질비료가 17% 수준이고, 유기질비료는 28%수준으로 비료투입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농가의 10a당 살균·살충제 살포회수가 9.5회이며 제초제는 2.6회를 살포하였으며, 10a당 농약살포액은 9만원으로 나타났음.

1997년 10a당 전국평균 농약살포액은 60,368원으로 조사농가의 경우가 화진으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5배 정도의 농약을 과다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포도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도기관에서 정확한 병충해 예보와 공동방제시스템을 갖추어 저농약 포도재배에 노력을 하여야 함.

○ 조사농가의 농기계보유율은 경운기 82%, 관릴기 78%, 분무기 54%, 1톤트럭 36%, SS기는 18%를 나타냈음. SS기는 대형고가이므로 작목반 별로 공동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

○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율은 경운 및 비료주기가 9.9%, 전정·정지·방제 등이 46.2%, 수확·선별·포장이 46.2%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앞으로 포도재배의 생력화를 위해서는 전정·정지와 수확·선과 부문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협동생산과 공동구매·판매상의 특징

1. 협동생산

○ 포도는 노동집약적인 작목이며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아 대형고성능 농업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은 거의 없음.

○ 신품종의 공동육묘와 보급으로 향후 소비자 기호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포도 생산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협동화는 초기단계이므로 기능적인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음.

2.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의 현황과 문제점

1) 공동구매사업

○ 1997년 영동군 전체의포도재배면적은 2,178ha이며 포장상자, 비닐, 봉지, 비료의 10a당 평균 구입액은 200천원으로 영동군 전체의 위 생산자재의 구매액은 44억9,500만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실제 위품목의 공동구매액은 36억 6,600만원으로 전체의 81.5%에 이르고 있으며 품목별 비중은 포장상자 47.3%, 비료 23.2%, 봉지 20.8%, 비닐 8.8%의 순으로 나타남.

○ 생산자재 중 농약은 거의 공동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약상회로부터 개별구입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1997년 영동군에서 포도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10a당 평균 구입액은 90,000원으로 영동군 전체의 포도배재에 필요한 농약구매액은 약19억 6,000만원 정도로 추정됨.

○ 포도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 중 포장상자, 비료, 비닐, 봉지외에 농약까지 포함시키면 1997년 영동군 전체 구입 추정액은 63억 2,400만원이고 실제 공동구입액은 36억 6,600만원이므로 공동구입비율은 약 58%에 지나지 않음.

○ 개별구매시보다 공동구매의 경우 약 10%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영동군 포도생산자재(농약포함)의 공동구매시 나타나는 비용절감 효과는 1997년의 경우 약 6억 3,240만원 정도로 추정됨.

2) 공동판매사업

○ 영동군의 포도 공동판매사업은 공동수송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영동군의 1997년 포도생산량은 30,128톤이며 이중 포전거래량이 2,982톤으로 9.9%에 이르고 있음. 생산자 수확량 27,146톤 중 개별농가가공량은 11.6%인 3,149톤으로 추정되며, 시장판매량은 88.4%인 23,997톤으로 추정됨.

- 1997년 영동군 전체의 포도 출하처별 출하비중은 시장판매량(23,997톤) 중 공영도매시장에 23%(5,728톤), 유사도매시장에 69.6%(16,695톤), 산지공판장에 2.3%(550톤), 직거래 및 기타가 4.2%(1,104톤)로, 특히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출하량이 전체 출하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1997년 농협계통 출하량은 15,504톤으로 총생산자의 시장 판매량(23,997톤)의 64.6%에 이르고 있으며, 판매처별 비율을 보면 농협공판장이 6.2%,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포함)이 85.3%, 직거래 및 기타가 8.6%를 차지하고 있음.

- 농협 계통출하량 중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 판매량의 51%는 공영도매시장에, 49%는 위탁도매상에 출하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유사도매시장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출하처의 결정이 거의 작목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작목반은 지난 10여년 이상 단골로 거래해 왔던 서울의 청량리와 영등포의 위탁도매상위주로 출하처를 4~5개소씩 지정하기 때문임.

제 4 절 유통상의 특징

- 영동포도 재배면적의 9.9%는 입목선매로 산지수집상에 팔리고 있으며 생산자 수확량은 27,145 톤으로 추정됨.

- 생산자 수확량의 11.6%는 개별 농가에서 포도즙으로 가공하며 나머지 88.4%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음.
- 가락동 도매시장의 평균 판매가격은 19,500원이며 상장경매수수료가 5%, 하역비(10kg/1상자) 160원 수송비가(영동 → 서울) 500원으로 총판매 비용은 1,635원으로 출하자 수취가격이 17,865원으로 추정됨.
- 상주의 모동포도의 경우 가락동경락가격이 25,000/10kg정도로 영동포도보다 5000원/10kg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원인은 공정하고 엄정한 선별과 출하량 조절 등으로 신용을 높였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음.
- 만약 현재의 영동포도를 품질향상과 엄격한 선별과 · 포장방법개선, 출하량 조절 등으로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주의 모동포도와 같은 평가를 얻게 된다면 현재보다 약 119억원 이상의 판매금액을 높일 수 있음.
- 영등포, 청량리 위탁도매상의 평균판매가격은 20,900원/10kg으로 가락동 도매시장보다 1,4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역시 선별과 출하량에 있어서 공영도매시장 대응력이 낮기 때문임.
- 영동포도가 도매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별 · 포장 등을 게을리하였으며 포도나무가 20년 이상의 고목이 많아 품질이 낮기 때문임.

제 5 절 생산자 조직의 특성

- 영동지역내 포도작목반은 162개, 영농조합법인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수송)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조사지역의 작목반의 평균 조직인원은 32명, 조직년수는 11년, 재배면적은 23.3ha, 호당 재배면적은 0.73ha로 전국평균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조직의 공동구매액은 3,400만원/97년이며 이는 총구매액의 60% 이상이며 농협 공동구매액은 38.2%에 이르고 있음.
- 생산조직의 공동구매품목별 비중은 포장상자는 49.8%, 봉지 31.2%, 비닐 8.2% 포장테이프 0.8%, 결속기판·테이프 1.2%, 비료 0.3%, 기타 8.5%로 나타났음.
- 생산자 조직의 출하처별 물량 및 금액을 살펴보면 위탁상이 62% 도매시장 21% 직거래 및 기타가 5.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탁상 출하가 주를 이루고 있음.

제 6 절 이용·가공상의 특징과 문제점

- 영동군내 포도 가공업체는 3개업체가 있으나 연간 포도원료 구입량은 877톤으로 전체생산량의 2.9%에 지나지 않고 이들 구입량의 1/2 이상을 타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음.
- 포도가공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며 판매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OEM 방식, 직거래, 혹은 유기농산물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하므로 가공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편임.
- 가공업체의 사업비는 주로 정부지원과 융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원료의 구입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시설의 이용율이 낮은 편임. 또한 가공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단점도 있음. 앞으로 와인등 지역가공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여함.

○ 영동군내 생산농가의 자체 가공량은 1997년 3,149톤에 이르며 가공
품은 포도즙으로서, 이것이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소득향
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증탕식 가공방법이므로 포도영양소 파
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생산농가의 가공비용은 10kg당 약 6,000원 정도이고 순 가공이익은
11,500원이므로 영동군 전체 포도생산농가의 포도즙 가공순이익은 1997
년도에 약 36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가공량의 절반 정도가 재고이므로 실
제 농가 가공순이익은 18억원 정도로 추산됨.

제 5 장 영동 포도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

제 1 절 주산지 형성과 발전방향

1. 주산지의 개념

주산지란 농업생산에 있어서 집중화된 산지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생산·판매의 측면에서 다음의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산지를 규정함.

첫째, 해당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농가가 집중하여 존재할 것.

둘째, 그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해당 농산물을 기간생산부분으로서 도입할 것.

셋째, 그 지역의 총 판매량은 관련판매시장으로부터 품질이 우수한 유명한 상품으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클 것.

넷째, 그 지역 생산농가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 있어서 기능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있을 것.

이와 같은 지표가 충족될 경우 주산지라 하며, 주산지 규모 측정 척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농산물의 총 작부면적 혹은 수확면적, 생산량, 판매 가능량, 생산 농가수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집중화된 산지를 주산지라고 함.

2. 주산지 형성효과

주산지 형성효과는 조직혁신과 시너지효과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음.

1) 조직혁신

산지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혁신수행인데 우선 산지전체에서 채용하는 혁신을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으로 분류함. 여기서 산지전체에서 채용하는 기술혁신은 농업경영단독으로는 수행 불가능하지만 산지전체에서 실현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혁신으로 기술단위와 마케팅 단위의 경제효과를 의미함.

ㄱ) 기술혁신

- 산지 전체에서 채용되는 기술혁신은 유발적이건 자발적이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일련의 생산기술체계·판매기술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신상품·신생산기술·신시장 등을 개발·채용하는 것임.
- 생산기술체계 혁신은 신형 중대형고성능기계·시설의 도입에 의한 생산과정의 합리화·자동화·생력화 등임. 이에 대하여 마케팅체계의 기술혁신은 생산물·제품의 개량, 판매방법·판매채널의 개정, 시장의 개발·개척 등임.
-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산지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며, 생산기술체계, 마케팅체계의 기술혁신이 연동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ㄴ) 조직혁신

- 공동조직으로서의 산지가 각자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정활동에 필요한 조정비용은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질적 특성에 의해 결정됨.

- 만약 윤리적인 질적 특성이 변화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경영의 조합, 결합의 방법, 인간관계의 본질이 변화하면 일정의 조직규모에 대한 이질성의 발현정도가 변하면 조정비용은 감소하게됨.

- 조직혁신의 전개과정은 부락공동집단 → 기능집단 → 지역공동집단의 순서로 윤리적인 질적 특성이 전환하여 재편·진행되어 가게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이룩됨.

2) 시너지 효과

- 인간의 활동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하여 능률을 향상 시킴으로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며, 조직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활동도 흔히 있음. 따라서, 조직의 목적은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함.

- 시너지효과란 조직의 산출(Output)이 질적·양적 이면에서 투입(Input)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것임.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2 + 3 = 5$ 가 되지만 조직산출에서는 그것이 3, 4, 5, 6, 7 등과 같은 어떠한 수치나 현상으로도 가능한 것임. 그 값이 5보다 작을 경우는 負의 시너지효과, 5인 경우에 시너지효과는 “ 0 ”, 5보다 클 경우에는 正의 시너지효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시너지효과라고 한다면 正의 시너지효과를 일컬음.

- 다시 말해서 조직의 시너지효과란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이룩한 성과의 총합계보다는 서로 협동·보완하여 이룩한 성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직은 바로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전제로 하여 형성하게 됨. 이 시너지 효과는 분업에 의한 전문화의 원리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음.

3. 주산지 형성의 경제효과

1) 생산면의 효과

주산지 형성에 따른 생산면의 준내부적 경제효과는, 첫째로 대형고성능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에 의해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생산량을 증수시키며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는 농업기계나 선별·포장시설 그리고 용·배수시설 경지정리를 공동수행 이용에 의해 나타남.

둘째로 생산기술의 개량 보급 촉진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용의 절감과 품질향상 및 생산기간 조절효과 등이 있으며, 또한 신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산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음.

2) 유통면의 효과

이에 속하는 효과는 농산물 판매, 생사자재구입, 농업노동력 조달(알선) 과정에서 나타남.

첫째, 대형·고성능 유통시설 및 수단의 공동이용으로 출하경비(선별·포장비)와 운반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의 구체적인 형태는 대형 고성능 선별·포장 시설의 도입에 따른 대량 자재구입과 분업에 의한 일관작업으로 생력효과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수송수단의 대량단위 공동이용으로 물류비용절감의 효과도 발생함.

둘째, 대외 거래교섭력의 형성으로 생산물 판매가격의 상승, 부가수익획득과 생산요소 구입가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즉 대량판매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출하 및 등급·규격화로 인해 도매시장법인은 수수료 증가 및 거래비용 절감의 이익이 실현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출하조직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이나 생산전도자금의 지급을 하게 됨. 또한 우량상품으로 인

정반게 되면 농가는 높은 수취가격을 획득하게 되며 판매량과 판매기간의 조절로 높은 거래 가격형성이 가능하게 됨.

셋째, 유통기술의 도입·보급촉진으로 저장·포장 등의 기술개량, 판매기간조절 및 출하비용 절감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3) 기타 효과

생산·시황등의 정보수집기관 설치로 유리한 판매시장 선택이 가능하며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고, 광고·선전에 의한 판매 촉진 및 시장 개척의 효과도 있음. 또한 대형주산지는 자금의 획득이나 도입을 촉진시키는 잇점도 있음.

4. 포도주산지의 경제효과

1) 포도주산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효과

가) 생산면의 효과

포도는 노동집약적인 작목이므로 대형고성능 기계·시설의 공동이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병충해 방제시 필요한 S·S 살포기는 대형고가이므로 현재 작목반 단위로 공동구입하여 사용하면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 증수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생산기술의 개량 보급 촉진에 있어서 국내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4배체)의 육종보급으로 기존품종의 저품질 생산기간 편중의 어려움을 극복시킬수 있음. 또한 포도과수원에 호맥 청예재배로 풍부한 유기물 보급과 잡초방제 등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의 가능성이 있음.

나) 유통면의 효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도의 선별·포장은 개별 농가단위에서 손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등급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작목반이나 단위농협단위의 공동검사체의 도입에 의한 균일한 등급표준화의 실현으로 농가수취가격을 향상시킬 수 있음.

또한 공동선별과 자동포장기계의 도입으로 대량자재구입 및 분업에 의한 일관작업으로 출하경비(선별·포장비)의 절감과 수송기관의 대량단위 공동이용으로 물류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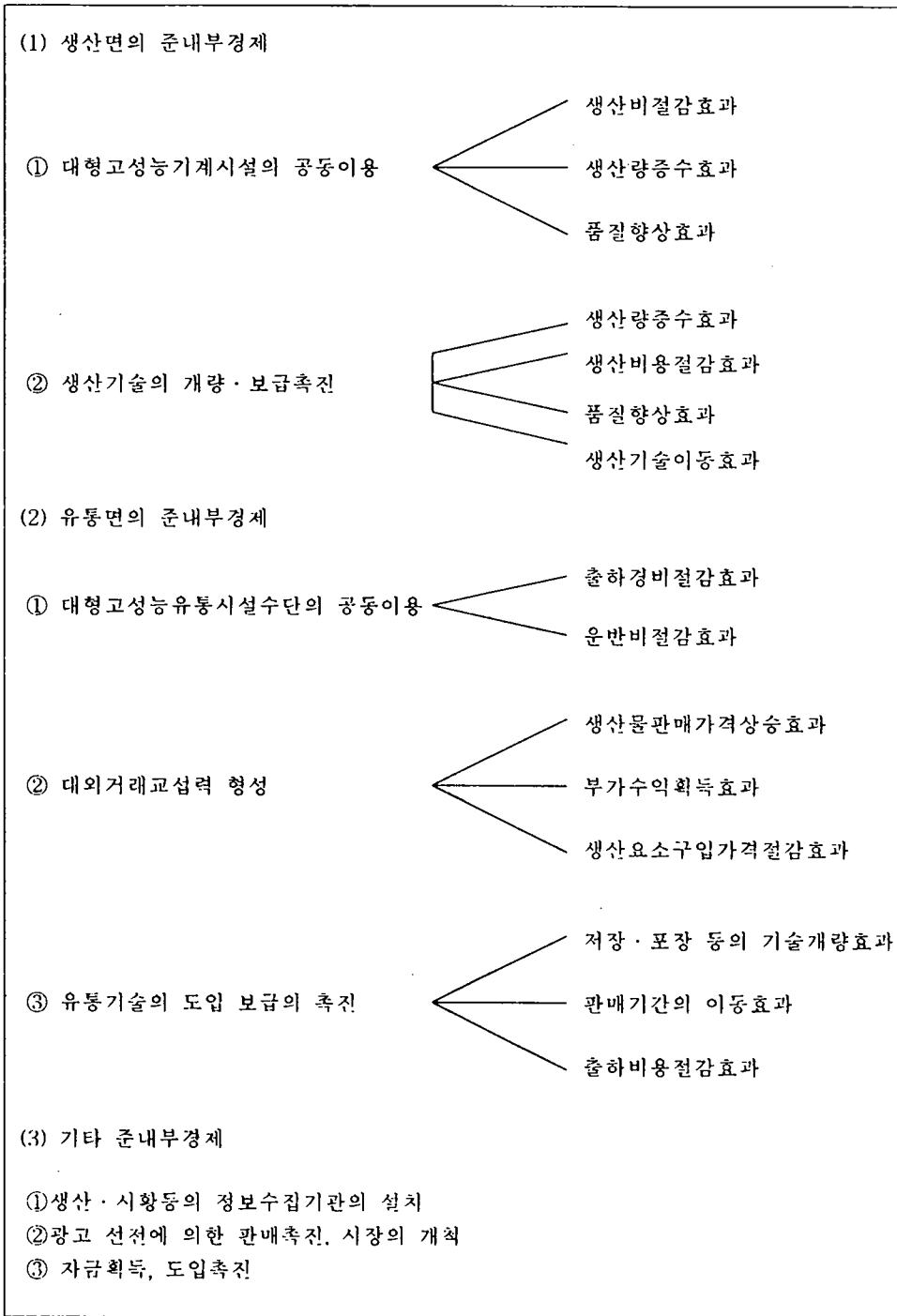
대량거래에 의한 거래교섭력 증대로 판매시장에서 유명상표로 인지되면 판매가격상승효과가 발생하며, 저온저장시설의 보급 및 적극적 이용으로 판매기간의 조절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와 출하비용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음.

다) 기타 효과

포도 주산지에 생산·시장가격 등의 정부수집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인을 고용하여 생산·시장가격의 분석으로 판매시장 선정 및 출하량 조절 등으로 높은 농가수취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음.

또한 적극적인 광고 선전을 담당하고 홍보담당자(기관)을 선정하여 주산지 생산품의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촉진 및 시장의 개척과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으로 높은 판매가격을 형성 시킬수 있는 효과로 연계됨.

<표 5-1> 포도 주산지의 경제적 효과



2) 영동포도 주산지의 경제효과와 전개방향

- 현재 영동 포도 주산지의 생산면에서 나타나는 경제효과는 개별 생산 형태이므로 거의 없음.
- 유통면에서는 생산자재의 공동구입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공동수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영동→서울 수송비용 500원/10kg)가 있음.
- 저온저장시설의 이용에 의한 출하시기조절로 홍수출하의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높은 수취가격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작목반 위주의 생산조직단계로서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으므로 영동주산지내의 기능조직체(작목반)를 기능집단으로 확대 전환시켜 생산면에서는 공동방제를 위한 S·S기의 공동구입 이용체계의 확립과 포도 정지 전정시 필요한 노동력의 공동 알선 및 조달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비 절감을 꾀할 것임.
- 또한 고품질의 4배체 신품종(블랙올림피아, 하니블랙, 후지미노리 등)을 공동개발 육종 보급하여 품질향상과 수확량증대에 힘써야 하며, 생력재배와 환경보전형 농업인 호맥재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포도생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 수확기에 필요한 농업노동력의 완화로 수집상에 판매하는 포전거래량을 감소시켜 보다 높은 농가수취가격 획득과 출하경비·운반비 절감효과를 실현시켜야 함. 그리고 현재 유사도매시장 위주의 출하선을 공영도매시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높은 품질과 동일한 등급규격화로 신뢰할 수 있는 우수상표로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타 산지보다 높은 거래가격을 실현시켜야 함.
- 이와 더불어 홍수출하기의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영동지역내에 있는 저온 저장고를 포도농가가 적정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관리 체계확립으로 출하시기 조절로 인한 농가수취가격을 높여야 할 것임.

- 기타 생산·시황 등의 유통정보 수집기관을 농협에 설치하여 각종 유통정보의 수집분석으로 가장 유리한 판매시장의 선정 및 출하량 조절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을 높여야 함.

- 또한 영동포도 홍보기관을 설치하여 영동포도의 선전홍보로 시장의 수요 확대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영동포도의 공동 브랜드화 및 브랜드의 관리로 영동포도의 이미지 향상으로 시장에서 높은 거래가격 형성에 주력하여야 함.

3) 영동 포도주산지의 경제구조 유형의 실태와 전개방향

- 일반적으로 일반산지와 주산지의 경제구조를 유형화시켜보면 <표 5-2>와 같이 나타낼수 있으므로 <표5-2>에 의거 영동 포도주산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영동포도 주산지의 경제구조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영동 포도주산지의 기능적 조직체(작목반 혹은 영농조합법인)는 생산부문에는 거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므로 개별 생산농가의 의사에 따라 포도생산량(면적)과 판매량이 결정됨.

- 영동지역 포도작목반의 평균규모는 30호 내외로 호당 평균면적은 1.2ha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임.

- 이 작목반 기금의 범위내에서 포도생산에 많은량이 필요한 포장상자와 봉지, 비닐,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고 있음. 구입방법은 작목반의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는 공장직거래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경우 생산자재는 농협에서 작목반 단위로 공동구매하며 농약은 개별 농가단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 영동포도의 선별·포장은 개별 생산농가에 의해 수확후 포도과원에 서 곧바로 이루어 지는데 농산물 검사소의 출하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거의 이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개별농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동일 작목반이라도 개별 농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개별 선별·포장후 작목반별 공동 집하장으로 포도를 이동시킨후 작목반단위로 계약한 수송업자의 트럭(5톤)을 이용하여 판매시장(대개 4~5개소)까지의 수송은 공동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판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은 개별 생산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개별거래방법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농가의 포도품질, 선별정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편이므로,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적 조직체(작목반)의 경제구조유형을 <표 5-2>에서 찾아보면 개별선별·포장, 공동수송, 개별거래의 유형(1B)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위 유형은 생산자재의 공동구매에 의한 내부경제효과와 공동수송에 의한 물류비용절감 그리고 공동출하에 의한 출하장려금 수수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기능적 조직체 유형의 초보 단계에 속함. 특히 선별이 개별 생산농가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등급이 표준화되지 않아 다른 주산지의 포도보다 판매시장 거래가격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조직체는 현재의 부락공동집단인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면단위 작목반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기능집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기능조직체가 기능집단으로 전환되면 면 단위의 대량공동구매로 생산비 절감효과를 높일수 있어 1997년의 경우 6억3천만원의 절감이 가능하고, 대규모의 균등한 품질의 포도생산을 기반으로 농산물 검사소의 규

격출하 기준에 의한 선과 및 공동검사, 포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선과·포장체계는 생산자중심으로 작목반이나 단위농협이 공동검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이 엄격한 선별과 공동검사제 그리고 공동포장체계는 판매시장에서 공동거래·공동계산제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므로 점차 개별거래형태에서 공동거래 형태로 전환시켜 유통면에 있어서 준내부경제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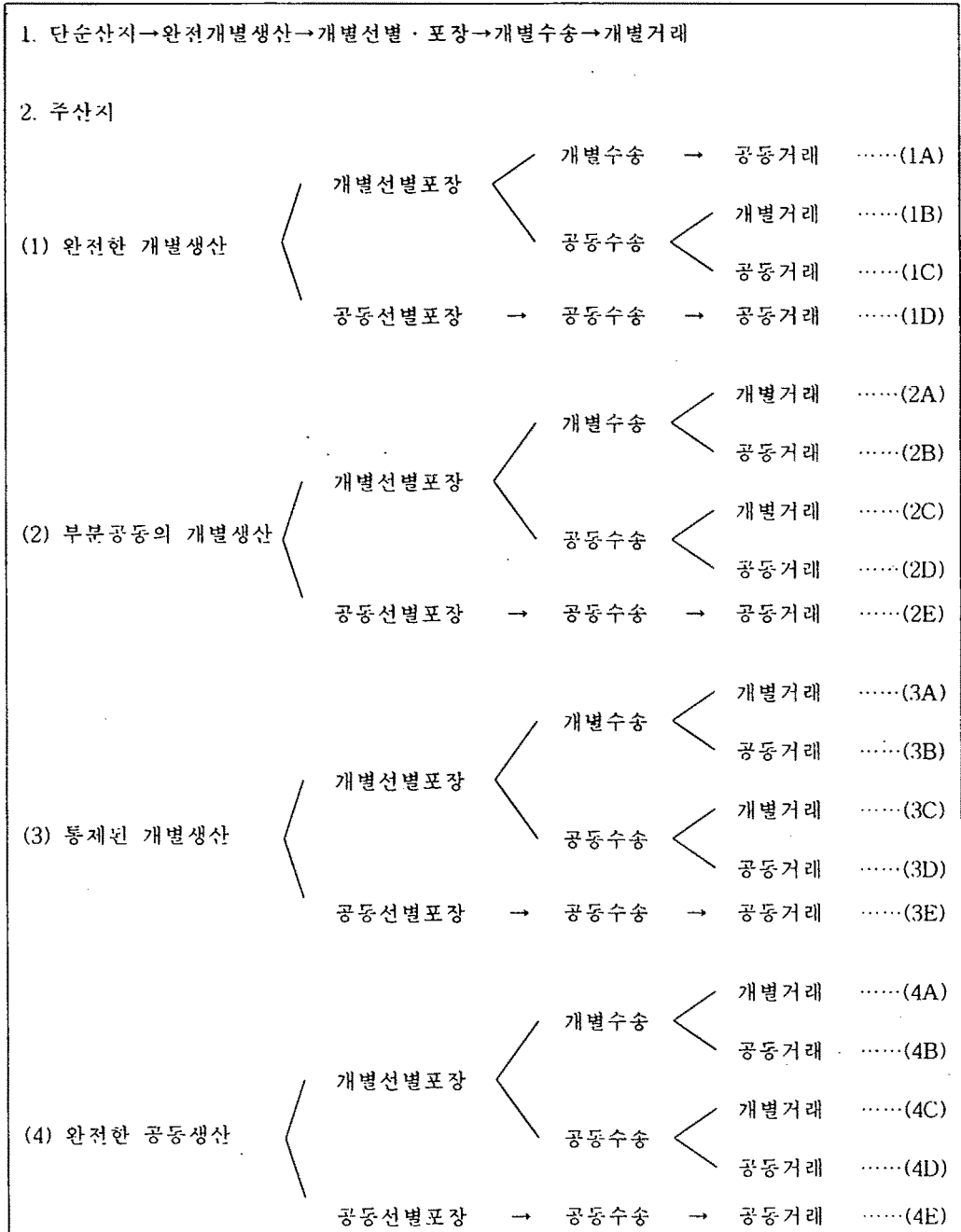
○ 이는 부분공동의 개별생산 즉 개별선별포장, 공동검사, 공동수송, 공동거래에 해당하며 현재의 영동포도 주산지 기능조직체 보다는 매우 진전된 유형이나 판매시장에 생산량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개별농가 및 전체 기능집단의 총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없음.

○ 그러므로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조직체는 부분공동의 개별생산 즉 개별선별포장, 공동검사, 공동수송, 공동거래의 경제유형에서 더욱 발전시켜 군단위의 기능조직체, 즉 광역지역공동집단으로 발전시켜 영동지역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일원화시키고 판매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개별 생산농가단위에서 자발적인 조절로 영동지역 공동집단의 생산량을 조절시켜 출하시장에서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수 있어야 함.

○ 그리하여 영동 포도주산지의 개별생산농가 및 주산지 집단전체의 총이윤을 극대화시킬수 있음. 이는통제된 개별생산 즉 개별선별·포장, 공동수송, 공동거래에 해당하며, 궁극적인 영동포도주산지의 경제유형 즉 <표5-2>의 4D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영동포도 주산지는 많은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위협동조합)이 있으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이들 조직이 기능적으로 지극히 미흡하며, 또한 개별생산농가의 재배기술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공동출하를 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표 5-2> 일반산지와 주산지의 경제구조 유형



제 2 절 품질향상과 기술개선 방향

1. 당도의 향상(캠벨얼리 - 15Bx 이상, 세레단 및 신품종 - 18Bx 이상)

- 광합성이 잘되도록 직접 일광에 노출되도록 재배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높은 광도(광포화점인 4만~6만 lux에 가까운 광도)에서 재배된 포도가 결실성이 높아지며 광합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온도로 온도가 25℃ 전후 일 때 최대 광합성작용을 함.
- 또한 상대습도가 60~70% 범위 내에서 광합성이 커진다. 포도알 비대기는 대체로 개화로부터 5~8주 사이로 이때에 착색이 시작되고 과육이 연화되므로 당의 함량이 증가하고 산의 함량이 감소하며 포도알이 굵어지게 되며, 이때의 포도알 비대 적온은 20~25 °C에 해당됨.
- 토양 수분의 부족은 광합성을 억제하여 포도알내의 糖度를 저하시키므로 포도알 비대기에 가물 때에는 관개시설을 하여 포장 용수량이 60~80%로 적절한 토양수분 함량이 유지되도록 함.
- 반대로 포도알 비대기에 과도한 경우는 당도의 저하와 품질저하를 초래하며 열과 발생이 많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비가림 시설을 늘려서 포도의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함.

2. 착색

- 포도알의 착색에는 일광, 온도, 토양수분, 영양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잎면적, 수량, 당분함량 등 생리적 재배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게되므로 전반적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특히 질소의 과다시비는 착색을 나쁘게 하므로 적정시비가 중요하며 적정 잎면적의 확보와 과도하지 않은 착과량의 유지도 중요하다. 환경요인중 온도가 착색에 가장 크게 적용하는데 일교차가 클수록 착색이 잘 된다. 즉 낮 온도는 15~25℃, 밤온도가 10~20℃의 범위가 가장 적당하며 건조한 조건에서 착색이 잘 되므로 역시 비가림 시설에 의해 좋은 착색을 유도할 수 있다.

3. 저농약 고품질 포도생산

- 영동 포도생산에 있어서 연간 9~12회의 농약을 살포하는데 이는 포도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특히 맹독성의 농약인 제초제의 살포는 포도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끼침.

- 이의 한 해결 방법은 호맥재배인데 이로 인한 제초제의 사용의 억제와 유기물 퇴비 시용에 의한 병충해 감소는 농약 사용의 감소로 저농약 포도생산이 가능하게 됨. 저농약 품질 인증제의 도입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동포도의 품질 차별화를 통하여 판매시장에서 높은 수취가격을 얻을 수 있음.

- 호맥재배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자원절약 효과

- ㉠ 제초제 대금 및 임금 절약(년 3회 사용할 때)

1ha당 : 제초제 대금 5만원 × 3회 = 15만원

인건비 2인 × 3만원 × 3회 = 18만원 계 33만원

- ㉡ 유기물 확보

1ha당 : 호밀에서 생산된 유기물량은 15,000kg~20,000kg로 다른 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됨.

1500포대/1ha × 2,000원 = 300만원

- ㉢ 화학비료 시용 절감(50%)

▶복합비료 : 관행시비량 100평당 1포대 사용 →1ha(3,000평)당 30포대 사용

▶호맥재배에 의한 복합비료 사용 절감량은 50%

→ 복합비료 15포대 × 5,800원/포 = 7만 8천원

전체적인 농업생산비 절감액 : 340만원/1ha

② 토양개선 및 토양 유실방지

③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④ 고품질 포도 생산

4. 화진 예방

○ 화진은 극단적인 착빙불량으로 포도의 상품성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심하면 생산량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의 예방은 포도농사 특히 캠벨얼리 품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낙엽, 질소의 과다 사용, 결실과다를 피하여 수체내의 충분한 영양이 축적되도록 하며 2년마다 10a당 2~3kg의 붕사를 사용하여 결실을 충실하게 하여야 함.

○ 또한 개화기의 신초 도장도 화진현상을 초래하므로 강전정, 밀식, 질소질 비료의 과다사용을 삼가며 수세를 안정시키고, 세력이 강한 신초는 개화 4~5일 전에 신초의 끝 부분을 순지르기 하여야 함.

5. 철저한 병충해 방제

영동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포도 병충해 예방법

○ 근두암증병 — 동해 방지를 위한 겨울철 묻어주기 작업시 주의해야하며, 이것이 발생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묘목 구입시 건전한 묘목을 구입해야 함.

- **방고병** — 과다 착과예방과 적정 질소비료사용 등 합리적인 비배·배수 관리로 안정적인 수세를 유지함.
- **노균병** — 장마철 농약 살포를 철저히 하며(특히 잎 뒷면 살포 철저), 피해 낙엽은 태우거나 깊게 묻음. 약제는 발아전 석회황합제 0.5% 액 살포나 보르도액(6-3식)을 살포함.
- **포도호랑하늘소** — 피해 과수원의 전정가지를 태우며 묵은 껍질 벗기기를 철저히 할 것. 포도수확후 메프수화제나 베스트수화제 1000배액을 살포함.

6. 포도 송이 손질

- 델라웨어와 같이 곱송이가 생기거나 캠벨얼리와 같이 어깨송이가 생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화진현상이 발생하므로 개화전에 어깨송이가 있는 품종은 이를 제거하고 포도송이가 큰 것은 송이 끝을 잘라주어 350~400g 정도의 균일한 포도송이를 생산하도록 함.
- 반대로 포도알이 지나치게 밀식되면 포도알의 비대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열과가 되는 수도 있고 착색이 균일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숙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음.
- 알 숙기는 개화후 빠를수록 효과가 크므로 불수정과가 떨어진 후 포도알이 콩알만할 때부터 되도록 빨리 실시함. 포도알을 숙아낼 때는 무핵 소립과를 우선 따냄으로써 포도알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포도송이 모양을 고르게 함.

7. 품종갱신

- 현재 영동군의 포도재배 품종은 캠벨얼리가 62%, 세레단이 32%, 신 품종이 2%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게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신품종(블랙올림피아, 하니블랙, 후지미노리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음.
- 영동군 농촌지도소가 주축이 되어 신품종의 적응시험과 우수한 대목의 확보로 점차적인 품종갱신을 추진하여야 하며, 앞으로 타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해갈 고품질의 신품종 재배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농촌지도소의 신품종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포도 재배농가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방비의 특별지원이 필요함.

8. 농촌지도소의 체제정비

- 영동지역의 농가의 1/2 이 포도재배 농가이므로 앞으로 영동군 농촌지도소의 인력 배치를 포도를 위시한 과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영동 포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영동 포도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또한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공동판매(공동계산제 포함)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농촌지도소의 포도기술보급을 위해 인력보강과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 확대가 요구됨.

9.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제 도입

- 저농약 포도의 품질인증을 농산물 검사소에 신청하여 품질 인증 마

크를 획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영동포도의 시장 판매가격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도록 함.

제 3 절 상품성제고와 판로개척방안

1. 상품성제고

1) 선과

- 영동 포도의 선별기준은 농산물 검사소의 표준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생산농가별로 기술수준의 차이가 있고, 수확 날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격 출하가 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생산자 자신이 직접 선별하므로 엄격한 선별이 불가능하며 이를 공정하게 검사하는 기구가 전혀 없는 실정임.
- 앞으로 농산물 검사소의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작목반 중심으로 철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개별농가가 철저하게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선별하고, 작목반 또는 단위농협에서 집하장에 집하된 포도를 자체 검사하여 선별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임.
- 이는 선별과정에서 생산자의 이기심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검사제도에 의해 상품성이 높은 포도만을 수확, 출하할 수 있게 됨. 또한 현재의 크기기준 선별(예 캠벨얼리의 경우 특대: 300g이상, 대: 250g

이상, 소: 200g미만)위주의 선별에서 포도송이모양, 색택, 당도 등의 품질(특, 상, 보통)을 가미하여 판매시장에서 영동 포도의 선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2) 표준규격화

-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농산물의 품질, 크기 등에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표준규격출하에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포장하여 출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준 규격출하 내용은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으로 크게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농산물검사소의 일반적인 포장규격은 10kg으로 일반소비자가 구입하기는 비교적 큰 포장이므로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파악하여 10kg들이 상자는 물론, 2kg과 5kg포장규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대형할인매장 및 농산물물류센터 그리고 노변 직판장 등 직거래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동산 포도에 대하여는 영동군이 표준규격을 적극권장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시키고 이 기준에 합격한 출하품에 대해서는 영동군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토록하고, 영동군은 영동포도의 적극적인 홍보·선전에 주력하여 영동포도의 상품성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함.

- 군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표준규격화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포장개선

- 영동포도의 포장재는 대부분 골판지(10kg들이)이나 극히 일부 작목반에서는 아직도 스티로폼(10kg들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변판매장의 경우는 대부분 4kg상자를 이용하고 있으나 매우 적은 양임. 향후

농산물검사소가 제정한 표준규격에 의거 스티로폼(10kg들이)포장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kg들이 골판지 포장상자는 밀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도시 공영도매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 똑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도 경락가격이 개방형 포장상자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중도매인이 경매거래 시작 전의 확인 작업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며 속박이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포장상자가 3단 쌓기이므로 가장 아랫단의 포도송이가 수송과 상하차 작업도중에 심하게 손상되어 상품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함.

- 그러므로 앞으로 10kg들이 골판지상자 포장은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일반 소매상이 선호하는 개방형 2단쌓기 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높은경락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IMF시대에 자원절약과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생산자가 자신의 출하상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소포장(5kg, 2kg들이)의 경우도 위의 10kg들이 골판지상자 포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밀폐형포장에서 개방형포장으로 전환시켜 선과의 엄정성과 품질(당도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영동포도의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상표 개발

- 영동산 포도의 경우1997년까지는 작목반별 혹은 단위농협명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98년부터 영동군에서 제작한 『영동』이라는 워드마크를 영동군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음.

- 이 영동군 브랜드는 포도상품 뿐만아니라 사과,배, 복숭아등에도 사용하여 영동군 농산물의 통합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영동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

- 『영동』 워드마크의 영동군 브랜드가 도매시장 상인과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영동군에서 영동군 브랜드를 매스컴이나 잡지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며, 영동군 농산물과 관광지역을 연계한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여 연중 적극적인 관광객의 유치와 더불어 영동군 포도 및 농산물의 선전 및 홍보활동을 상시화 하여야 함.

- 영동군 당국은 상표개발과 홍보선전을 위한 예산지원과 포도의 상징성을 높일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그리고 이 『영동』 브랜드의 시장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동』 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상자의 관리를 특수 제작된 seal의 부착 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5) 품질인증제의 도입에 의한 상품성 향상

- 영동포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당도, 크기, 병충해손상, 잔류 농약농도 등)과 기준을 영동군에서 직접 지정하고 체크하여 이에 적합한 포도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농산물검사소에 신청하여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도록 해야함.

- 이를 통하여 영동포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장 판매가격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도록 해야함.

- 나아가서는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영동군에서 실시하여 이에 통과한 포도는 영동군 자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전국 제일의 포도라는 인식을 시장 상인과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2. 판로개척

1) 출하조직의 활성화

○ 현재 영동지역은 작목반 단위의 공동 출하(엄격히말하면 공동수송)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 선별을 전제로 하여 출하단위를 면·군 단위로 확대하여 시장교섭력을 높여야 함. 특히 시장판매에 있어서 거래교섭력의 확대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혁신 및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단위 농협 중심의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하여 출하 단위의 규모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농협 중심의 출하기구를 만들어 각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출하 포도상품의 등급검사, 유통정보분석에 의한 출하처 선정과 물량배분 및 출하량조절, 공동수송, 공동계산 그리고 공동저장 및 가공등을 실시하면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고품질 포도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단위농협이 전문 유통인력을 확보하고 산지유통을 담당하면 농가수취가격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생산은 농가에 그리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기능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2) 작목반 단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방안

○ 작목반원간 각 작목반원 개인농가를 방문하여 포도의 결실, 영농, 농장관리와 품질 상태, 수확시기 등을 점검하여 서로 조언하는 기회를 년 2회 정도 가짐으로써 전 작목반원의 재배기술을 향상시킴.

○ 월례회 개최시 각 작목반원의 재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함.

- 국내의 선진지를 방문하여 기술을 교류하며, 더욱 나아가서 외국의 우수농가를 방문하면서, 선진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함.
- 도매시장 대형 소매기구 담당자 및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각각 유통종사자의 의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포도상품개발에 주력함.
- 출하시기에 도매시장을 견학하여 시황과 타 산지의 포도와 상품성을 비교하고, 품평회, 시식회를 개최하며, 지역 예술제등 행사에 영동포도 홍보코너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
- 각 개인별로 3일전 출하량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기준으로 출하처별 출하량을 조절하여 가격하락 방지에 노력함. 그리고 출하량 초과분은 저온저장하여 다음에 출하 유도함.

3. 시장 선택

1) 제도권 시장출하 권장

○ 1997년 영동군 포도재배면적은 약 2,179ha로 이중 9.9%인 215.6ha(약 2,982톤으로 추정)는 산지수집상에게 포전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포도 1송이당 크기와 품질에 따라 600~750원에 거래되고 있음.

○ 포전거래의 주원인은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수확시 노동력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음. 포전거래시 수집상에게 포장상자도 함께 판매하므로 영동포도의 상품관리가 허술하여 영동포도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앞으로 공동판매조직을 더욱 강화·확대하여 수확시 체계적으로 고용인력을 확보하여 포전거래를 줄여 나가야 함.

- 유사도매시장이 총 출하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유로는 영동지역이 포도재배역사가 20년이상으로 공영도매시장 개설이전부터 서울지역의 위탁상과 오랜기간동안 단골거래를 해왔고, 위탁상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파악한후 10kg들이 한상자당 1천원정도 더 높게 정산해주므로 공영도매시장 출하가격보다 높은가격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임, 또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매판매하므로 가격이 불안정하며 영동포도의 경우 품질과 상품성이 떨어져 타주산지 포도보다 경락가격이 낮게형성되기 때문임. 향후 영동포도의 시장대응 방향은 현재의 유사도매시장위주에서 포도의 품질과 상품성 향상으로 점차공영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야 함.

- 공영도매시장 판매전략으로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개방형 포장형태로 바꾸어 출하시킬필요가 있음.

2) 시장외거래의 확대

- 최근 농산물 물류센터나 대형할인매장의 급속한 출현에 대응하여 이들 업체와 지속적인 주문 출하계약으로 판매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구매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2kg과 5kg들이 소포장을 개발하고 선별, 규격 등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소포장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 지역으로 편중된 출하를 유통정보 특히 지역 공영도매시장 경락가격등을 비교분석하여 전국 각지에 비교적 골고루 출하시킬 필요가 있으며, 1998년 9월 개장된 청주농산물물류센터를 비롯하여 이미 개장하여 운영중인 양재동과 창동농산물물류센터와 계약 출하는 물론이고 충북지역에 개장한 대형할인매장과도 계약출하를 시작하여 중부권, 전국권으로 점차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지공판장의 출하 비율이 1997년의 경우 2.3%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5%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영동포도의 직거래내용은 대개 학산면 재배농가중 무주관광지 길목에 위치한 포도과수원에 노변 직판장을 개설하여 관광객 상대로 4kg들이 포장의 MBA나 세레단 품종 위주로 판매하고 있음.

- 앞으로는 영동군의 기존 관광지 및 테마파크등을 개발하고 각종 영동지역문화행사를 포도산업과 연계하여 영동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그들을 대상으로한 직거래 판매량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 영동포도의 첫출하시기에 군수나 지방 의회에서 가락동·도매시장등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판매협조를 부탁하는등 적극적인 관측 활동이 필요함.

4. 유통정보의 활성화

- 현재 영동 포도에 관한 유통정보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에 대한 전날의 경락가격을 단위농협에서 각 작목반별로 팩시밀리로 전송해주는 것과 출하처별 정산내역이 다음날 작목반을 통해 개인별로 알려주는 2가지 유형이 대부분임. 일부 농가에서 개인컴퓨터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의 가격정보 검색을 통하여 출하처 및 출하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5. 거래교섭력 제고

- 1997년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량(5,728톤으로추정)중 가락동도매시장 출하량이 약 2,921톤(공영도매시장 출하량의 약 51%)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락동도매시장의 총 포도 거래량(28,794톤)의 10.1%에 지나지 않고, 작목반별 출하 도매시장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락동도매시장에서의 시장교섭력은 매우 낮은 편임.

- 앞으로 영동포도의 공영도매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품종, 고당도, 저농약, 규격화된 포도송이 생산등 고품질의 포도생산이 전제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출하조직을 현재의 작목반단위에서 단위농협이나 영동군 전체로 점차 확대시키면서 엄격한 선별과 개방형 소포장제 도입을 비롯한 단위농협단위의 공동검사제의 도입으로 상품성 향상도 이루어져야함.

- 영동군 자체의 포도품증인증제를 도입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영동군과 농협, 지도소, 작목반 대표들로 구성된 출하조절 조직을 만들어 이곳에서 전국의 포도에 관한 모든 유통자료수집, 분석하여 출하처 선정 및 출하량을 조절함.

6. 홍보·선전방법

- 영동포도의 홍보, 선전기구를 군청내에 설치하여 일관성 있고 조직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출하기에 도매시장 관계자 및 유통업자·소비자를 초청하여 영동포도의 품평회 및 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함.

- 영동포도 테마마크의 건설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전국적인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외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식회 등을 통하여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벌임.

- 다양한 포도가공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영동 특산품점을 개설하여 영동을 찾는 관광객 대상으로 년중 판매가능도록 함.

- 대도시 향토물산전에 적극적 참여로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림.

- 선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포도 판매대금의 일정비율 (예: 0.5%~1% 정도) 적립한 재원으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임.

7. 도매시장 출하전략

- 1997년도 영동포도의 가락동도매시장 출하량은 약 2,921톤(공영도매시장 출하량의 약 51%)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총 포도 거래량(28,794톤)의 10.1%에 지나지 않아 시장교섭력이 낮으므로 앞으로 약 30%(약 9,000천톤 정도)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영동포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8년 이상의 고목의 수종갱신이 절실하며 21세기의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4배체 신품종인 블랙올림피아, 하니블랙, 후지미노리, 高妻, 高壘, 가이지 등을 확대 재배할 필요가 있음.
- 시기별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생종과 만생종에 치우친 현재의 재배 형태를 점차 중생종 품종인 골든, 올림피아, 네오머스캣, 머스캣, 피오네 등의 품종을 확대·재배해야함.
- 영동포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출하 초기에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과 일반 소비자 등을 영동으로 초청하여 시식회와 품평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영동포도의 첫 출하 전에 각 도매시장에 영동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포도 출하홍보단을 파견하여 출하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매장에 영동포도 출하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영동포도의 적극적인 관측 활동에 임해야함.

제 4 절 포도이용, 가공 방안

1. 포도관련제품 이용방안

○ 영동지역 포도 가공품목은 과즙, 넥타, 잼, 주스, 식초 등으로 다양하지 못한 단점도 있으므로 산학협동으로 각종 와인을 비롯하여 천연과당 등 각종 가공품을 개발하며 이를 지역특산품으로 지정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판매하는 방법을 개발해야함.

○ 포도즙은 생산농가 자체 가공이므로 품질과 규격이 각양각색이며 위생 및 품질검사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영동군 자체의 포도즙 가공품의 포장의 규격 표준화와 표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함. 또한 증탕식 가공제조법으로 포도영양소 파괴 등의 품질저하의 문제도 있으므로, 포도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 가공기술방법의 개발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일반 유통기구를 통한 판매를 확대를 꾀할 수 있음.

○ 향후 영동군 전체 포도생산 농가 참여의 가공조합을 설립하여 위생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의 도입과 전문기술자의 영입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포도즙을 생산하도록 함. 이의 홍보는 영동군의 홍보 조직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야 함.

생산농가는 포도원료의 제공과 친지·친척을 통한 판매를 담당하며, 나머지 생산품은 가공협동조합이 우편판매나 기존 유통기구를 통해 판매하도록 함.

2. 기술개발과 가공업지

○ 영동지역은 포도와 기타 과일의 재배를 환경보호차원의 저농약, 유기

비료 위주의 농업으로 전환하여 과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일반 대기업의 과일 가공품과 차별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함.

○ 영동지역 포도 및 기타 과일 가공품은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영동군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직접판매하거나 농협이나 우체국의 우편주문 판매방식과 충청북도의 컴퓨터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자상거래시스템(사이버 마켓)에 출품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함.

○ 영동군은 기후와 지리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과일가공산업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종합가공공장을 조합형태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이유로는 중산간지역으로 일교차가 커서 과일의 품질이 좋아 일찍부터 포도를 비롯하여 사과, 배, 복숭아, 감, 자두, 그리고 표고버섯재배가 발달하였으며 옥천과 경북지역인 상주, 김천지역도 과수재배가 활발하여 과일 원료의 확보가 쉽고 철도, 국도, 고속도로가 영동군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임.

제 5 절 개발기술의 농가 보급방안

1. 권장기술수준

○ 포도주산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① 주산단지 형성(현재의 부락공동집단의 작목반을 기능조직체로 혁신하여 →단위농협 → 군 단위로 확대)

② 품질향상 (당도 향상, 안전성 향상, 균일한 포도송이 생산등)

③ 상품성제고(엄격한선별, 포장방법개선,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출하량 조절 등)는 발전과정에 있음

○ 그러나 협동생산, 공동판매에 의한 전체주산지 농민에 의한 개발기술 즉, 시너지 효과에 의한 기술보급 방안은 주산단지의 조직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그러나, 현재 영동포도주산지의 생산조직은 지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2. 농가보급방안

개발기술의 농가보급방안은

- ① 조직혁신과 지너지 효과원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농민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위조합) 활성화 도모.
- ② 개발기술 보급방법은 지역, 또는 단체의 모든 조직을 동시에 활용하여 균형적으로 보급시킬 것.
실례로, 모든 지역조직에 대해 개발기술 보급의 필요성, 효과, 실시방법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통인식을 고취시킴.
- ③ 지역기관의 협동적 활용
지도기관 중심의 품질향상, 농협중심의 상품성 제고방안, 행정기관 중심의 주산지 형성을 기획, 실시, 보급단계별로 협동적이고 보완적 관계로 주산단지 위주로 보급 권장.
- ④ 주산지의 자원이용과 자원배분을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조직 또는 주산지 중심으로 활용함.
- ⑤ 농민조직간의 비교 교류를 통해 차별화된 개발기술수준을 평준화하여 향상시킴.
- ⑥ 우수지역(상주, 김천, 영천)의 개발기술을 적극 비교·수용하고 보급과정을 참고함.
- ⑦ 행정기관이 영동포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얼굴있는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의지를 생산자에게 보여주어야 함.
- ⑧ 품질개선과 상품성제고는 소비자 기호에 맞게 시장수요를 전제로 개선할 것.

제 6 절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원시책

- ① 포도주산단지 경쟁력 제고 방법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일치시킴.
- ② 행정기관은 주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군 산업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
- ③ 지도기관의 인력배치와 지도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기술개발이 최대화에 역점을 둠.
- ④ 농협의 조직과 기능을 포도 주산지 조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체 단위조합기능을 재조정하여 생산자 중심으로 구조 개편함.(예: 공동구입확대, 공동판매의 전면화)
- ⑤ 행정, 지도, 경제기능이 종합적으로 계획·조정·추진되어 자원배분과 이 용을 극대화시킴.
- ⑥ 지도기관은 선진지역 기술보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농협은 경제활동의 효율적 방법을 적극 수용해야함.
- ⑦ 행정, 지도, 농협기관과 주산지 농민간에 정보, 지도, 기술, 교류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지원시책이 추진되어야 함.

제 6 장 요약 및 건의

제 1 절 요약

1. 영동포도의 생산여건과 재배특징

- 1996년도 영동군 포도재배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재배면적은 전국의 7.8%(2,126ha), 생산량은 9.5%(34,085톤), 그리고 10a당 수량은 전국 평균의 122%(1,603kg/10a)에 이르고 있음. 특화계수는 18.5로 전국 2위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산지임.
- 영동지역은 준산간지대로 대부분 100~300m의 표고에 80% 이상 분포되어 있어연평균 기온이 11.5℃이며, 일교차가 연평균 10~15℃로 포도의 성숙기에 당도 및 설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포도재배의 적지임.
- 영동군의 포도재배품종은 캠벨얼리가 62%, 세레단 32%, 그리고 신품종(4배체 품종)이 2%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품종(4배체)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보급해야 함.
- 1997년도 영동지방에서는 기후불량과 토양관리 및 비배관리 부실로

화진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캠벨얼리의 수확량은 평년의 60% 정도 수준임.

- 포도는 비료 요구량이 적은 천근성 과수작목이나 영동지역의 경우 과다시비로 화진, 미량원소 결핍증 등 생리적 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 또한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생식용 포도의 품질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호맥과 비가림시설재배로 상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작목반 및 개별 생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동포도의 품질과 기술개선방향은 품종갱신(4배체 품종), 당도의 향상(캠벨얼리- 15Bx 이상, 세레단 및 신품종 - 18Bx 이상), 품종고유의 색택 유지, 규격화된 포도송이 생산, 저농약 고품질 포도생산, 화진예방, 철저한 병충해 방제 등임.

2. 영동포도 재배·경영실태

- 조사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1.1세로 전국평균에 비하면 젊은 편임.
- 조사지역의 포도재배농가 경영주의 평균 학력은 수학년수가 8.9년으로 중학교 졸업수준에 가까우나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학력수준임.
- 10a당 노동투하량은 조사농가 평균이 253.8시간이었으며, 이는 1996년 전국평균 346.4 시간의 73.3%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1997년 영동지역의 화진 피해가 심했기 때문으로 추측됨.
- 조사농가의 10a당 평균조수입은 1,992천원이고 소득은 1,582천원(소득률 79.4%)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 10a당 전국평균은 조수입이 3,594천원, 소득은 2,907천원(소득율 80.9%)이었음.

3. 영동포도의 유통실태

- 1997년 영동포도 재배면적(2,197ha)의 약 9.9%는 입목선매로 산지수집상에게 팔리고 있으며, 생산자 수확량은 27,145톤으로 추정됨. 그중 11.6%는 개별 농가 단위로 포도즙을 가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88.4%는 시장판매하고 있음. 시장판매량중 위탁도매상에 61.5%, 공영도매시장에 21.1%, 그리고 산지공판장에 2.1%가 출하되고 있음.
- 영동포도 생산자의 품질과 상품성향상을 위한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며 20여년 전의 출하방식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 주로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에게 출하되고 있음.
- 가락동 도매시장의 수취가격이 17,865원/10kg으로 추정되며, 청량리 위탁상의 수취가격은 18,548원으로 유사도매시장이 900원정도 더 높음.

4. 영동포도의 시장출하전략

- 향후 영동포도의 시장대응 방향은 현재의 유사도매시장위주에서 포도의 품질과 상품성 향상으로 점차공영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야 함.
- 선별 개선방법은 개별농가가 철저히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선별하고, 작목반 또는 단위농협은 공동검사제를 도입하여 엄격한 선별과 포장방법을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영동포도의 신뢰성을 높임.
- 영동포도의 첫 출하 전에 각 도매시장에 영동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포도 출하홍보단을 파견하여 출하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매장에 영동포도 출하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영동포도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 임해야함.
- 최근 농산물 물류센터나 대형할인매장의 급속한 출현에 대응하여 이들 업체와 지속적인 주문 출하계약으로 판매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구매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2kg과 4kg들이 소포장을 개발해야 함.

- 앞으로는 영동군의 기존 관광지 및 테마파크등을 개발하고 각종 영동지역문화행사를 포도산업과 연계하여 영동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그들을 대상으로한 직거래 판매량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5. 영동포도의 홍보·선전방법

- 영동포도의 홍보, 선전기구를 군청내에 설치하여 일관성 있고 조직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출하기에 도매시장 관계자 및 유통업자·소비자를 초청하여 영동포도의 품평회 및 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함.

- 영동포도 테마파크의 건설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전국적인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외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장소에서 상시시식회 등을 통하여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벌임.

- 홍보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포도 판매대금을 일정비율(예: 0.5%~1% 정도)로 적립하여 형성된 재원으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임.

6. 영동포도주산지의 생산자조직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영동지역내 포도작목반은 162개, 영농조합법인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수송)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1997년 영동군내 포도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포함시킨 생산자재 구입

추정액은 63억 2,400만원이고 실제 공동구입액은 36억 6,600만원이므로 공동구입비율은 약 58% 수준임.

- 공동생산에 의한 생산비용절감과 공동판매에 의한 유통비용 절감, 그리고 시장판매에 있어서 거래교섭력의 확대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혁신 및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단위농협 중심의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하여 출하 단위의 규모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농협 중심의 출하기구를 만들어 각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출하 포도상품의 등급검사, 유통정보분석에 의한 출하처 선정과 물량배분 및 출하량조절, 공동수송, 공동계산 그리고 공동저장 및 가공 등을 실시해야함.

-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품질향상과 상품성향상을 꾀하고, 농협은 전문 유통인력을 확보하고 산지유통을 전담하는 기능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7. 영동포도 가공사업

- 영동군내 포도 가공업체는 3개업체가 있으나 연간 포도원료 구입량은 877톤으로 전체생산량의 2.9%를 가공업체에서 소비하고 있음.

- 포도가공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며 판매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OEM 방식, 직거래, 혹은 유기농산물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하므로 가공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편임.

- 가공업체의 가공품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와인등 가공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생산농가 자체로 가공하여 친지나 친척을 통해 판매하는 포도즙은

100℃로 끓여 착즙하므로 포도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품질 및 위생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영동군자체의 포도즙 가공품의 포장의 규격 표준화와 표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갖추어 생산자 제조 포도즙의 안정을 확보해야함.

8. 영동 포도주산지의 개선방향

- 영동 포도주산지의 기능적 조직체(작목반 혹은 영농조합법인)는 생산부문에는 거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므로 개별 생산농가의 의사에 따라 포도생산량(면적)과 판매량이 결정됨.
-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조직체는 현재의 부락공동집단인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면단위 작목반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기능집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생산기술의 상향 평준화와 철저한 생산자재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위한 주산지의 기능적생산조직을 확대·혁신해야함.
- 선별·포장체계는 생산자 중심으로 작목반이나 단위농협이 공동검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나아가 공동계산제의 도입으로 유통면에 있어서 내부경제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향후 영동포도주산지의 기능조직체는 부분공동의 개별생산 즉 개별선별포장, 공동검사, 공동수송, 공동거래의 경제유형에서 더욱 발전시켜 군단위의 기능조직체, 즉 광역지역 공동집단으로 발전시켜 영동군의 공동Brand를 개발하여 일원화시키고 영동군 광역공동집단의 생산량을 조절해야함.

제 2 절 건의

1. 건의사항

- 영동군 농가의 1/2이 포도재배농가 이므로 앞으로 영동군 농촌지도소의 인력 배치를 포도를 위시한 과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영동 포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소의 포도기술보급을 위해 인력보강과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 및 생산자조직의 지도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 영동포도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호맥예취재배와 비가림시설재배를 영동군에서 적극 지원·보급하여 다른 산지의 포도와 차별성을 인정 받아야 함.
- 영동포도 재배기술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최고의 포도산지인 야마나시현에 영동 포도생산자중 매년 2명 정도를 1년기간으로 연수를 시켜 인재를 양성시킬 필요가 있음.
- 포도의 포전거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확기의 외부 노동력 공급을 위한 인력창구를 개발해야함.
- 농협에 유통정보 분석기구를 설치하여 출하시장과 출하지역을 다양화하고 출하물량도 조절해야함. 물류센터나 대형 할인소매기구의 판매전략으로 개방식 소포장방법도 개발하여야 함.
- 개별생산자가 가공하는 포도즙의 경우 가공기술이 부족하여 포도의 영양소파괴의 문제점과 규격·품질·위생기준에 대한 기준의 미비로 판

로가 폐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가공포도즙 판매를 활성화시킴.

- 영동포도의 홍보선전기구를 군청내에 설치하여 일관적이고 조직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며, 영동지역에 포도 테마파크 등을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전국적인 포도축제의 개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영동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함.

- 생산조직의 확대와 혁신을 위해 현재 부락공동집단인 작목반을 단위 농협 나아가 영동군 단위의 기능 조직체로 전환시키위한 노력을 생산자 조직, 군, 농협, 지도소, 학계가 연계한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2. 파급효과

- 연구결과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채소, 과수 주산단지에 똑같은 원리와 방법이 도입되면 전체 주산단지에도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문헌 】

- 김성용·심경구, 「낙엽 과수재배각론」, 선진문화사,
김정호, 「가정과수」, 오성출판사, 1995.
농림부, 「과수실태조사」, 1997.12.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
농림부, 「1996작물통계」, 1997.
농림부, 「1997 원예특작업무자료」, 1997.
농림부, 「농업경영 변동분석」, 1997.
농림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과제」, 농림부공청회자료 '97. 8. 5-8
농민신문사, 「포도(심기부터 판매까지)」, 신농민 강좌시리즈, 1995.
농수산물 유통공사, 「'96농수산물 도·소매 가격동향」, 1997.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1997. 12.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요람」, 1995. 9.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의 이해와 유통과 소비실태」, 1996.12.
농수산물 유통공사, 「'96농수산물 도·소매 가격동향」, 1997.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일농산물수출핸드북」, 1995.
농어민신문사, 「한국포도가공연구회 창립기념 세미나집」, 농어민 정책자료 97-9.
농촌경제연구소, 「식품수급표」, 1997.
농촌경제연구소, 「농협경제사업의 발전방향」, 1996. 9.
농촌진흥청, 「1997농축수산물 표준소득」, 1998.
농촌진흥청, 「작목별 기술대응력 방안」, 1991.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의 이론과 실험」, 1997.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6. 7.
농협중앙회, 「포도수입개방의 국내영향과 대응방안」, 농협 96-21,
박진연·최인명, 「포도나무의 토양관리와 시비」, 원예연구소.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96농수축산물 거래동향 연보」, 1997.

- 영동군 농촌지도소, 「과수병충해 및 생리장애」, 1996.
- 영동군, 「전국제일의 영동포도」, 1994.
-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각년.
- 영동군, 「포도재배기술교재」, 1996.
- 이광연외, 「신고과수원에 각론(포도)」, 향문사, 1978.
- 이복남, 강경하 「포도경영과 유통」, 농진총서 6권, 명륜당, 1998.
- 충남농촌진흥청, 「포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1997. 10.
- 충북농촌진흥원, 옥천시설포도시험장, 「4배체포도의 소복자연형재배」, 1997.
- 충북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경영개선연구”, 1996.
- 충북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 산지유통개선연구”, 1996.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농업정책학회·한스자이델재단, “농업생산, 가공, 유통을 연결한 농가 소득증대의 과제”, 세미나 자료, 1990.4.
- 한국포도회, 「포도회보」, 1997 가을호.
- 生田行雄, 「農産物流通論入門」, 全國協同出版, 1981.
- 伊庭慶昭, 「成果の成熟と貯藏」, 養賢堂, 1985.
- 淺見淳之, 「農業經營·産地發展論」, 大明堂, 1989.
- 慶野세이지, 「靑果物集出荷機構の組織と役割」, 大明堂, 1993.